

국립국어원 2018-01-08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712-01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해설



## 머리말

1988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립국어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국어연구소에서는 ‘한글 맞춤법 해설’, ‘표준어 규정 해설’(이하 ‘해설’)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해설’은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규정 본문에서는 상세히 다루기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도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규정의 역사적 배경이나 관련 사항 등도 담아 규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해설’과 규정을 거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할 만큼 지난 30년간 ‘해설’은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말이 변하면서 ‘해설’의 내용도 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먼저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하면서 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맞춤법이나 표준어 관련 세부 사항을 사전 항목으로 담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규정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해설’과는 달리 처리한 부분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비표준어나 방언을 국어심의회에서 표준어로 인정함에 따라 기존 규정과 다른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17년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비록 규정의 방향이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수정된 내용을 해설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어연구소에서 펴낸 기존 ‘해설’을 보완하여 ‘국립국어원 해설’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국어원 해설’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규정과 해설의 전통을 존중하되 변화한 언어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개정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대상으로 해설을 단 것은 바로 이러한 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의 언어 현실에 맞는 예를 추가하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둘째, 기존 ‘해설’의 지나치게 전문적이었던 문법 설명 등은 간소화하고, 최대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해설이 미진했던 부분에는 가능한 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기존 ‘해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배경이나 관련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해설 본문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기’를 통하여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충실히 보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새로 발간되는 ‘국립국어원 해설’이 국민들이 규정을 이해하고 실제 언어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립국어원

원장 소강춘

## 일러두기

1. ‘국립국어원 해설’은 2017년 개정된 ‘한글 맞춤법(문체부 고시 제2017-12호)’과 ‘표준어 규정(문체부 고시 제2017-13호)’을 대상으로 한다.
2. 규정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내용은 ‘더 알아보기’로 보충 설명을 하였다.
3. 표기와 발음을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경우에는 ‘ㄱ’, [ㄱ]과 같이 구별하여 표시하였으나 음운 현상 등을 설명할 때에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모두 ‘ㄱ’과 같이 표시하였다.  
예) ‘칼날’은 ‘ㄴ’이 ‘ㄹ’ 뒤에 올 때 ‘ㄹ’로 동화되는 예이다.
4.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사정 원칙’ 해설에서는 규정의 용어대로 고유어인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표준 발음법’에서는 자음 분류 및 음운 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파열음, 구개음화, 경음화 등)에 맞추어 한자어 ‘평음, 경음, 격음’을 사용하였다.
5. 설명에 나오는 단어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하되, 맥락상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간결하게 제시하였다.

6. 이 해설에서 사용한 부호와 쓰임은 다음과 같다.

(‘한글 맞춤법’ 부록 ‘문장 부호’에서 명시한 것 제외)

- |     |                 |                           |
|-----|-----------------|---------------------------|
| +   | 결합 관계           | 예) 헛-+웃음→헛웃음              |
| -   | 복합어의 단위 경계      | 예) 지긋-하다, 바깥-벽            |
|     | 어간, 어미, 접사      | 예) 먹-, -어서, 짓-, -이        |
| →   | 결합 과정           | 예) 짓-+-어→지어               |
|     | 발음, 표기 변화 과정    | 예) 바다+가→[바다까]→바닷가         |
|     | 본말과 준말 관계       | 예) 쓰이어→씩어/쓰여              |
| ←   | 결합 과정(괄호 안)     | 예) 파래(←파랑-+-아)            |
|     | 역사적 변화 과정, 어원   | 예) 고랑(←골+-양), 호루라기(←호루루기) |
|     | 준말과 본말 관계(괄호 안) | 예) 돼(←되어)                 |
| [ ] | 발음 표시           | 예) [고기꼭/고긴꼭]              |

## I. 한글 맞춤법 해설

제1장 총칙 .....	11
제2장 자모 .....	16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19
제1절 된소리 .....	19
제2절 구개음화 .....	21
제3절 ‘ㄷ’ 소리 받침 .....	23
제4절 모음 .....	24
제5절 두음 법칙 .....	27
제6절 겹처 나는 소리 .....	36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38
제1절 체언과 조사 .....	38
제2절 어간과 어미 .....	40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	57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	74
제5절 준말 .....	85
제5장 띄어쓰기 .....	99
제1절 조사 .....	99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	100
제3절 보조 용언 .....	109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	112
제6장 그 밖의 것 .....	119

---

---

## Ⅱ. 표준어 규정 해설

###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총칙 .....	149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153
제1절 자음 .....	153
제2절 모음 .....	161
제3절 준말 .....	173
제4절 단수 표준어 .....	178
제5절 복수 표준어 .....	182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185
제1절 고어 .....	185
제2절 한자어 .....	186
제3절 방언 .....	190
제4절 단수 표준어 .....	192
제5절 복수 표준어 .....	197
[붙임] 새로 추가된 표제어 목록 .....	208

### 제2부 표준 발음법

제1장 총칙 .....	215
제2장 자음과 모음 .....	218
제3장 음의 길이 .....	225
제4장 받침의 발음 .....	230
제5장 음의 동화 .....	243
제6장 경음화 .....	250
제7장 음의 첨가 .....	256

---



I

---

한글 맞춤법 해설

---



# 차례

제1장 총칙 .....	11
제2장 자모 .....	16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19
제1절 된소리 .....	19
제2절 구개음화 .....	21
제3절 ‘ㄷ’ 소리 받침 .....	23
제4절 모음 .....	24
제5절 두음 법칙 .....	27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	36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38
제1절 체언과 조사 .....	38
제2절 어간과 어미 .....	40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	57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	74
제5절 준말 .....	85
제5장 띄어쓰기 .....	99
제1절 조사 .....	99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	100
제3절 보조 용언 .....	109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	112
제6장 그 밖의 것 .....	119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은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밝히고 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가 기본 원칙이라면, “어법에 맞도록 함”은 또 다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
-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한글 맞춤법은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음성 언어인 표준어를 표음 문자인 한글로 올바르게 적는 방법이다.

먼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말에는 한글 맞춤법이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그 표준어를 적을 때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나무]라고 소리 나는 표준어는 ‘나무’로 적고, [달리다]라고 소리 나는 표준어는 ‘달리다’로 적는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꽃[花]’이란 단어는 쓰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꽃이[꼬치], 꽃을[꼬출], 꽃에[꼬체] …………… [꼬치]  
 꽃만[꼰만], 꽃나무[꼰나무], 꽃놀이[꼰노리] …………… [꼰]  
 꽃과[꼰과], 꽃다발[꼰다발], 꽃밭[꼰밭] …………… [꼰]

‘꽃’은 ‘꽃이’일 때는 [꼬치]으로, ‘꽃만’일 때는 [꼰]으로, ‘꽃과’일 때는 [꼰]으로 소리 난다. 만약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 적용한다면, [꼬치]로 소리 나는 말은 ‘꼬치’로, [꼰만]으로 소리 나는 말은 ‘꼰만’으로, [꼰과]로 소리 나는 말은 ‘꼰과’로 적게 되어 ‘꽃[花]’이라는 하나의 말이 여러 형태로 적히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적으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은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즉 ‘꽃, 꼰, 꼰’보다는 ‘꽃’ 하나로 일관되게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꽃’은 [꼬치], [꼰], [꼰]의 세 가지로 소리 나는 형태소이지만 그 본모양에 따라 ‘꽃’ 한 가지로 적고, [꼬치], [꼰만], [꼰과]도 ‘꽃이, 꽃만, 꽃과’로 적게 된다. 이는 ‘꽃’과 같은 명사 뒤에 조사가 결합할 때뿐 아니라 ‘늡-’과 같은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늡-’은 그 활용형이 환경에 따라 [늘거], [늘꼬], [늡찌], [늡는] 등으로 소리 나지만 ‘늘거, 늘꼬, 늡찌, 늡는’으로 적지 않고 ‘늡-’으로 어간의 형태를 고정하여 ‘늡어, 늡고, 늡지, 늡는’으로 적는다.

- 늘거, 늘꼬, 늡찌, 늡는 (×)
- 늡어, 늡고, 늡지, 늡는 (○)

이처럼 ‘늡-’이라는 어간과 거기에 결합하는 어미의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어법에 따라 형태소를 고정하여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형태소라고 하더라도 한 형태로 고정하여 적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덤고, 덤지
- 더워, 더우며

위의 ‘덥고, 덥지’에서의 ‘덥-’과 ‘더워, 더우며’의 ‘더우-’는 같은 형태소이다. 어법에 따라 형태소의 본모양을 ‘덥-’으로 고정하여 적는다면 ‘덥어, 덥으며’로 적어야 한다. 그렇지만 ‘덥어, 덥으며’는 [더버], [더브며]로 읽히게 되므로 표준어 [더워], [더우며]의 소리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러므로 ‘덥고, 덥지, 더워, 더우며’는 한 형태소의 활용형이지만 그 형태를 하나로 고정할 수 없고 ‘덥-’, ‘더우-’ 두 가지로 적게 된다.

이는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나 용언 어간에 결합하는 어미도 마찬가지다.

- 하늘이/바다가
- 잡아/잡어

‘하늘이, 바다가’의 ‘이/가’는 주격의 뜻을 나타내는 동일한 형태소이지만 하나로 고정해서 적을 수가 없다. ‘잡-, 잡-’에 결합하는 ‘-고’는 ‘잡고, 잡고’처럼 하나의 형태로만 실현되지만 ‘-아/-어’는 하나의 형태소인데도 ‘잡아, 잡어’와 같이 다르게 실현된다. 이는 달리 소리 나는 형태들을 하나의 형태소로 모두 적을 수 없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이다.

한편 한자어는 이러한 원리와 관계없이 각 글자의 소리를 밝혀 적는다. 예를 들어 ‘국어(國語)’는 [구거]로 소리 나고 ‘국민(國民)’은 [궁민]으로 소리 나지만 ‘구거’, ‘궁민’으로 적지 않는다. 한자 하나 하나는 소리와 의미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을 밝혀 적는 것이 독서에 효율적이다. 즉 한자 ‘국(國)’, ‘어(語)’, ‘민(民)’은 ‘나라 국’, ‘말씀 어’, ‘백성 민’과 같이 소리와 의미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독립적인 소리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국어, 국민’으로 적는다.

## 더 알아보기

### • ‘어법(語法)’의 의미

한글 맞춤법에서 사용되는 ‘어법’과 일반적인 의미의 ‘어법’은 개념이 다르다. 한글 맞춤법에서 말하는 ‘어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지를 정해 놓은 것으로, 표기와 관련된 원리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어법’은 ‘말의 일정한 법칙’이라는 뜻으로 적용 범위가 무척 넓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동생이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칙을 찾아볼 수 있다. 서술어 ‘먹는다’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하며, 주어의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동생’에는 조사 ‘가’가 아니라 ‘이’가 붙어야 하고, 목적어의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밥’에는 조사 ‘를’이 아니라 ‘을’이 붙어야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규칙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소리를 내고,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규칙이 필요하다. 이처럼 언어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규칙을 폭넓게 ‘어법(語法)’이라고 한다.

##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한다.

국어에서 단어를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 ‘동생 밥 먹는다’에서 ‘동생’, ‘밥’, ‘먹는다’는 각각이 단어이므로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어 ‘동생 밥 먹는다’로 띄어 쓴다. 그런데 단어 가운데 조사는 독립성이 없어서 다른 단어와는 달리 앞말에 붙여 쓴다. ‘동생이 밥을 먹는다’에서 ‘이’, ‘을’은 조사이므로 ‘동생이’, ‘밥을’과 같이 언제나 앞말에 붙여 쓴다.

### 더 알아보기

#### • 조사는 단어인가?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최소 단위이다. 예를 들어 ‘먹는다’에서 동사의 어간 ‘먹-’이나 어미 ‘-는다’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므로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여기에 결합하는 어미는 단어가 아니다. 동사의 어간이나 형용사의 어간은 어미와 서로 결합해야만 단어가 된다. 예를 들어 ‘먹-’, ‘-는다’는 단어가 아니지만 ‘먹는다’는 단어이다.

조사는 어미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할뿐더러 체언 뒤에 연결되어 실현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단어와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조사는 결합한 체언과 분리해도 체언이 자립성을 유지한다. ‘밥을’을 ‘밥’과 ‘을’로 분리해도 ‘밥’은 여전히 자립적이다. 이러한 점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면 어간과 어미가 모두 자립성을 잃는 것과 다른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는 어미보다는 단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외래어는 다른 언어에서 들어온 말이므로 원어의 언어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을 정하여 그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다. 외래어는 고유어, 한자어와 함께 국어의 어휘 체계에 정착한 어휘라고 할 수 있다.

#### 더 알아보기

- 원어에 따른 한국어 어휘 체계

한국어의 어휘 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원어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한국어 어휘에 속한다. 국어사전에서는 단어의 원어를 밝히고 있다. 고유어에는 원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한자어에는 한자가, 외래어에는 각 단어의 원어명과 로마자 표기가 제시되어 있어서 이로써 어휘 부류를 알 수가 있다. 외래어는 국어의 어휘 체계에 속하지 않는 외국어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국어사전에 실린 어휘는 외래어, 실리지 않은 것은 외국어로 구별하는 것이 편리하다. 예컨대 ‘보이(boy)’가 ‘식당이나 호텔 따위에서 접대하는 남자’를 의미할 때는 외래어지만 ‘소년’의 뜻으로 쓰일 때는 외국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를 표기할 때도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을 준용하는 일이 많다.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넷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ㄲ(쌍기역)	ㄸ(쌍디귤)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ㅙ(애)	ㅞ(예)	ㅜ어(예)	ㅟ어(예)	ㅚ(와)	ㅜ외(와)
ㅛ외(외)	ㅠ외(외)	ㅡ외(외)	ㅣ외(외)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한글 자모(字母)의 수, 순서, 이름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 분명히 제시되었고, ‘한글 맞춤법(1988)’도 이를 이어받았다. 이 가운데 자모의 이름과 순서는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1527)”에서 비롯한다. 최세진은 “훈몽자회” 범례(凡例)에서 한글 자모의 음가를 한자로 나타냈는데, 자음자의 경우 초성에 쓰인 것과 종성에 쓰인 것을 짝을 지어 표시했고 그것이 글자의 이름으로 굳어졌다. 예를 들어 ‘ㄱ’ 아래에는 한자로 ‘其役’이라고 적었는데, ‘其(기)’는 초성의 음가를, ‘役(역)’은 종성의 음가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자음자의 이름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등과 같이 ‘ㅣㅡ’ 모음을 바탕으로 각 자음이 초성, 종성에 놓이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따라서 ‘ㄱ, ㄷ, ㅅ’도 ‘기억, 디은, 시읏’으로 해야 나머지 글자와 이름 표기에서 일관성이 있겠지만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에서처럼 전통적으로 쓰여 온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붙임 1]** 한글 자모 스물네 자만으로 적을 수 없는 소리들을 적기 위하여, 자모 두 개를 어우른 글자인 ‘ㄲ, ㄸ, ㅃ, ㅆ, ㅉ’, ‘ㅈ, ㅊ, ㅋ, ㆁ, ㄷ, ㄹ, ㅍ, ㅍ, ㅍ’와 자모 세 개를 어우른 글자인 ‘ㄴ, ㄹ’를 쓴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순서를 명확하게 하려고 제시한 것이다. 한편 받침 글자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ㄱ ㄲ ㄴ ㄷ ㄸ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ㅁ ㅂ ㅃ ㅄ ㅅ ㅆ ㅇ ㅈ ㅊ ㅋ ㆁ

**더 알아보기**

• 한글 자모 명칭의 유래

한글 자모의 수, 순서, 이름은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1527)”에서 비롯한다. 최세진은 “훈몽자회” 범례(凡例)에서 한글 자모가 초성에 쓰인 것과 종성에 쓰인 것을 짝을 지어 표시했는데, 그것이 자모의 이름으로 이어졌다.

初聲終聲通用八字

ㄱ其役 ㄴ尼隱 ㄷ池(㉔) ㄹ梨乙 ㅁ眉音 ㅂ非邑 ㅅ時(㉔) ㅇ異凝

(㉔)(㉔)兩字只取本字之釋俚語爲聲

其尼池梨眉非時異八音用於初聲

役隱(㉔)乙音邑(㉔)凝八音用於終聲

###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쓰이는 여덟 자

ㄱ기역 ㄴ니은 ㄷ디근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㉔)(㉔) 두 자는 다만 그 글자의 우리말 뜻을 취해 소리로 사용한다.

기니디리미비시이 여덟 음은 초성에 사용되고,

역은근을음읍웃응 여덟 음은 종성에 사용된다.

“훈몽자회” 범례

자모의 이름 가운데 ‘ㄱ, ㄷ, ㅅ’의 명칭이 다른 자모의 이름과 다른 것은 한자에는 ‘역, 은, 옷’과 같은 발음을 가진 글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역’은 가까운 발음인 ‘役(역)’으로 표시하여 ‘ㄱ’은 ‘기역’이 되었다. 그리고 ‘을’과 ‘웃’은 각각 ‘未(근 말)’과 ‘衣(옷 의)’로 표기하고, 두 글자는 글자의 의미만을 취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ㄷ’의 명칭은 ‘디근’이, ‘ㅅ’의 명칭은 ‘시옷’이 된 것이다.

‘ㅈ, ㅊ, ㅋ, ㅌ, ㅍ, ㅎ’은 당시 종성으로 쓰이지 않던 것들이어서 초성에 모음 ‘ㅣ’를 붙인 ‘지, 치, 키, 티, 피, 히’로만 음가를 나타내 주었는데,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읒’과 같은 이름이 확정되었다.

## 제3장 | 소리에 관한 것

### 제1절 된소리

####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쓱하다	가끔
거꾸로	부썩	어찌	이따금	

#####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움짤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국수	각두기	딱지	색시	씩둑(~씩둑)
법석	갑자기	몹시		

이 조항에서 ‘한 단어’는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예시하고 있는 단어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은 모두 하나의 형태소 내부이다. 따라서 복합어인 ‘눈곱[눈꼽], 발바닥[발빠닥], 잠자리[잠짜리]’와 같은 표

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한 형태소 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새의 울음을 나타내는 형태소 ‘소쩍’은 ‘숫적’으로 적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숫’과 ‘적’이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깨      오빠      새끼      토끼      가꾸다      기쁘다      아끼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의 ‘어깨, 오빠, 새끼, 토끼, 가꾸다, 기쁘다, 아끼다’를 ‘엇개, 옴바, 셋기, 툃기, 갓구다, 깃브다, 앓기다’로 적을 근거는 없다.

2. 또한 한 형태소에서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도 소리대로 적는다. 받침 ‘ㄴ, ㄹ, ㅁ, ㅇ’은 뒤에 오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바꾸어 주는 필연적인 조건이 아니다.

건들      번개      딸기      절병      듬성(하다)      합지      쟁등(하다)      뭉실

따라서 ‘ㄴ, ㄹ, ㅁ, ㅇ’ 뒤에 오는 된소리는 특별한 까닭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건똥      번쩍      딸꾹      절뚝(거리다)      듬뿍      합뻑      쟁똥(하다)      뭉똥(그리다)

그렇지만 ‘ㄱ, ㅂ’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언제나 된소리로 소리 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늑대[늑대]      낙지[낙찌]      접시[접씨]      갑자기[갑짜기]

‘ㄱ, ㅂ’ 받침 외에 ‘믿고[믿꼬], 잊지[인찌]’와 ‘낫설대[낫썰대]’처럼 앞말의 받침이 [ㄷ]으로 발음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예들도 있다. 이러한 말 역시 된소

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데 이는 다른 이유에서이다. 이들은 ‘어간+어미’, ‘어근+어근’과 같이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된 말이라서, ‘눈곱, 발바닥’ 등과 마찬가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똑똑하다, 쓱싹쓱싹, 씹씹하다’의 ‘똑똑, 쓱싹, 씹씹’처럼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여 같은 글자로 적는다.

**더 알아보기**

• **형태소(形態素)란?**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국어에서 ‘ㅂ’이나 ‘ㅣ’ 등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태소가 될 수 없지만 ‘ㅂ’이 되면 뜻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 ‘책가방’은 ‘책’과 ‘가방’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쪼개지기 때문에 형태소는 ‘책가방’이 아니라 ‘책’과 ‘가방’이다.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진다고 해도 쪼갠 때 의미가 없어지거나 쪼개기 전의 의미와 관련되는 의미가 없어지면 안 된다. ‘나비’는 ‘나’와 ‘비’로 쪼개어지지만 이때 ‘나’와 ‘비’는 ‘나비’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나비’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의미 단위, 즉 형태소가 된다.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하-’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만	마	핥	할
해돋	해도	건	거
굳	구	달	다
같	가	묻	무
끝	꼬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從屬的) 관계’란, 실질 형태소인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술이[소치]: 술(실질 형태소)+이(형식 형태소)

묻히다[무치다]: 묻-(실질 형태소)+-히-(형식 형태소)+-다(형식 형태소)

구개음화 현상에서 후행하는 형태소는 반드시 조사, 접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이어야 한다. 구개음화 현상에 관여하는 형식 형태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 명사 파생 접미사(말이, 해돋이)

부사 파생 접미사(같이, 굳이)

주격 조사(끝이, 말이)

서술격 조사(끝이다, 밭이다)

사동 접미사(붙이다)

히: 피동 접미사(걸히다, 닫히다)

사동 접미사(굳히다)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곧이[고지]’는 부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부사가 되었으므로 구개음화가 실현되었지만, ‘곧이어’는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 부사가 결합한 말이므로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는다.

곧이[고지]: 곧-(어근)+-이(부사 파생 접미사)

곧이어[고디어]: 곧(부사)+이어(부사)

현재 표준어에서 구개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마디, 견디다’와 같이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제3절 ‘ㄷ’ 소리 받침

####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덧저고리	덧자리	엇셈	웃어른	햇옷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衆]
옛	첫	헛		

‘ㄷ’ 소리로 나는 받침이란, 음절 종성에서 [ㄷ]으로 소리 나는 ‘ㄷ, ㅅ, ㅆ, ㅈ, ㅊ, ㅌ, ㅎ’ 등을 말한다. 이 받침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음절 종성에서 [ㄷ]으로 소리가 난다.

- ① 형태소가 뒤에 오지 않을 때: 밭[반], 빗[빈], 꽃[꼐]
- ②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뒤에 올 때: 밭과[반과], 젓다[전다], 꽃병[꼐병]
- ③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뒤에 올 때: 젓어미[저더미]

이 조항에서는 이 가운데 ‘ㄷ’으로 적을 뚜렷한 까닭이 없는 경우에는 ‘ㅅ’으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예시에서 보듯이 이는 다른 자음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밭, 빗, 꽃’ 등과 같이 다른 자음으로 적을 뚜렷한 까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ㅌ, ㅈ, ㅊ’ 등으로 적지만, ‘낫, 빗’ 등과 같이 ‘ㄷ’이나 다른 자음으로 적을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경우는 ‘ㅅ’으로 적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ㄷ’으로 적을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ㄷ’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첫째, ‘맡이[마지], 맡아들[마다들]’의 ‘맡-’, ‘낫[낫], 낫알[냐달], 낫가리[냐까리]’의 ‘낫’처럼 원래부터 ‘ㄷ’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ㄷ’으로 적는다. ‘곧이[고지], 곧장[곧장]’ 등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돋보다(←도두보다), 딛다(←디디다), 얻다가(←어디에다가)’처럼 본말에서 준말이 만들어지면서 ‘ㄷ’ 받침을 갖게 된 경우에도

‘ㄷ’으로 적는다. 셋째,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반진고리, 사흔날, 순가락, 이튿날’처럼 ‘ㄹ’ 소리와 연관되어 ‘ㄷ’으로 소리 나는 경우에도 ‘ㄷ’으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29항 참조)

이처럼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관습대로 ‘ㅅ’으로 적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걸핏하면	그까짓	기껏	놋그릇	덧셈	빗장
삿대	숫접다	자칫	짓밟다	פות추	햇곡식

## 제4절 모음

### 제8항

‘계, 레, 메, 폐, 헤’의 ‘ㄷ’은 ‘ㄷ’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ㄷ’으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계수(桂樹)	계수	혜택(惠澤)	혜택
사례(謝禮)	사례	계집	계집
연매(連袂)	연매	핑계	핑계
폐품(廢品)	폐품	계시다	계시다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	----------	----------

‘계, 레, 메, 폐, 헤’는 현실에서 [계, 레, 메, 폐, 헤]로 발음되는 일이 있다. 그렇지만 발음이 변화한 것과는 달리 표기는 여전히 ‘ㄷ’으로 굳어져 있으므로 ‘ㄷ’으로 적는다.

조항에서 “‘계, 레, 메, 폐, 헤’의 ‘ㄷ’은 ‘ㄷ’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라고 한

것이 ‘례’를 [례]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례]로 발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는 표준 발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현실 발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계, 예, 폐, 혜’는 발음의 변화를 따르면 ‘꺀’로 적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꺀’의 발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고 철자와 발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사람들이 여전히 표기를 ‘꺀’로 인식하므로 ‘꺀’로 적는다.

다만, 한자 ‘揭, 揭, 憩’는 본음이 [계]이므로 ‘꺀’로 적는다. 따라서 ‘계구(揭句), 계제(揭諦), 계기(揭記), 계방(揭榜), 계양(揭揚), 게재(揭載), 계판(揭板), 계류(憩流), 계식(憩息), 계휴(憩休)’ 등도 ‘계’로 적는다.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의의(意義)	의이	닝큼	닝큼
본의(本義)	본이	띄어쓰기	띠어쓰기
무늬[紋]	무니	씩어	씨어
보늬	보니	띄어	티어
오늬	오니	희망(希望)	히망
하늬바람	하니바람	희다	히다
널리리	널리리	유희(遊戱)	유히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는 ‘ㄴ’의 발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ㄷ]로 발음한다.

널리리[널리리]      씹어[씨어]      유희[유히]

②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주의[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예]

이러한 발음의 변화를 반영한다면 ‘니’는 ‘ㅣ’로 적을 수 있고, 특히 자음 뒤에서는 ‘ㅣ’로 적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익숙해진 표기인 ‘희망, 주의’를 ‘히망, 주이’로 적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고 발음의 변화를 표기에 모두 반영할 수도 없으므로 ‘니’가 ‘ㅣ’로 소리 나더라도 ‘니’로 적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니’로 적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① 모음 ‘ㅡ, ㅣ’가 줄어든 형태이므로 ‘니’로 적는 경우: 씌어(← 쓰이어), 툃어(← 트이어) 등
- ② 한자어이므로 ‘니’로 적는 경우: 의의(意義), 희망(希望), 유희(遊戱) 등
- ③ 발음과 표기의 전통에 따라 ‘니’로 적는 경우: 무늬, 하늬바람, 날리리, 념큼 등

## 더 알아보기

### • ‘의’의 발음

‘의사의 책임’에서 첫음절의 ‘의’는 [의]로 발음하고 조사 ‘의’는 [의]나 [에]로 모두 발음할 수 있다. 이들은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아니라서 이 조항과는 무관하지만, 모두 ‘의’로 적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첫음절의 ‘의’는 발음의 변화가 없으므로 ‘의’로 적고,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지만 [의]가 원칙이므로 ‘의’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는 ‘긔차, 일긔’와 같이 언어 현실에서 멀어진 표기를 ‘기차(汽車), 일기(日氣)’로 적을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희망, 주의’는 [의]로 발음되므로 표기도 ‘니’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글 맞춤법(1988)’에서는 발음의 변화는 인정하면서 표기는 기존대로 유지하였다.

### • ‘늬’의 발음과 표기

‘날리리, 무늬’ 등의 ‘늬’를 ‘니’로 읽지만 표기는 ‘늬’로 하는 것을 ‘니’의 음가와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무늬’의 ‘늬’은 ‘어머니’의 ‘니’와 음가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늬’로 적는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늬’은 ‘ㅣ’ (ㄴ, ㄷ, ㄹ, ㅂ, ㅅ)와 결합하면 ‘어머니, 읽으니까’에서의 [니]처럼

경구개음(硬口蓋音) [ŋ]으로 발음되지만, ‘닐리리, 무늬’ 등의 ‘니’에서는 구개음화하지 않은 ‘ㄴ’, 곧 치경음(齒莖音) [n]으로 발음된다. 이를 고려하여 ‘닐리리, 무늬’ 등에서는 전통적인 표기대로 ‘니’로 적는다고 본다.

## 제5절 두음 법칙

###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중(兩-)                      년(年)(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0항~제12항에서는 국어의 두음 법칙을 규정하였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특정한 소리가 출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녀, 뇨, 뉴, 니’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ㄴ’이 나타나지 못하여 ‘여,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 되는데, 이 조항에서는 이러한 두음 법칙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연도(年度)	열반(涅槃)	요도(尿道)
이승(尼僧)	이공(泥工)	익사(溺死)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한자어 음절이 ‘녀, 뇨, 뉴, 니’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의존 명사는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냥, 냥쫘, 년’ 등과 같은 의존 명사는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쓰지만 언제나 의존하는 대상과 하나의 단위로 쓰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말들은 독립된 단어로 잘 인식되지 않고, 그 결과 단어의 첫머리에도 ‘연도, 열반’ 등과 달리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십 년      금 한 냥      은 두 냥쫘

따라서 ‘年’, ‘年度’처럼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의 적용에서 차이가 난다. ‘년, 년도’가 의존 명사라면 ‘연, 연도’는 명사이다.

연 강수량(명사)	일 년(의존 명사)
생산 연도(명사)	2018 년도(의존 명사)

**[붙임 1]**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 것이다.

소녀(少女)	만년(晩年)	배뇨(排尿)
비구니(比丘尼)	운니(雲泥)	탐닉(耽溺)

[붙임 2]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은 이미 두음 법칙이 적용된 자립적인 명사 ‘여성, 염불’에 ‘신-, 구-, 공-’이 결합한 구조이므로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로 적는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라고 한 것은 ‘신(新), 구(舊)’와 같은 한자를 접두사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구(舊)’는 ‘구 시민 회관’과 같은 구성에서는 관형사로도 쓰인다. ‘남존-여비, 남부-여대’ 등은 엄밀히 말하면 합성어는 아니지만, ‘남존’, ‘여비’, ‘남부’, ‘여대’ 등이 마치 단어와 같이 인식되어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굳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신년도, 구년도’ 등은 발음이 [신년도], [구년도]이며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한국 여자 농구 연맹’을 붙여서 쓰면 ‘한국여자농구연맹’이 된다.

### 더 알아보기

#### • 두음 법칙의 적용

두음 법칙의 적용에 차이가 있는 ‘연도’와 ‘년도’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年度)** 「명사」 사무나 회계 결산 따위의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구분한 일 년 동안의 기간. 또는 앞의 말에 해당하는 그해. ¶ 졸업 연도/제작 연도.

**년도(年度)** 「의존명사」(해를 뜻하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 ¶ 1985년도 출생자/1970년도 졸업식/1990년도 예산안.

###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룽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 리(里): 몇 리냐?
-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열, 율’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나열(羅列)	나렬	분열(分裂)	분렬
치열(齒列)	치렬	선열(先烈)	선렬
비열(卑劣)	비렬	진열(陳列)	진렬
규율(規律)	규률	선율(旋律)	선률
비율(比率)	비률	전율(戰慄)	전률
실패율(失敗率)	실패률	백분율(百分率)	백분률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림(申稔)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 연합)      한시련(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이 조항에서도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자어 ‘랴, 려, 례, 료, 류, 리’를 포함하는 음절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야, 여, 예,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 조항에서는 이처럼 단어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될 때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양질(良質)	역량(力量)	예법(禮法)
용왕(龍王)	유랑(流浪)	이치(理致)

의존 명사 ‘량(輛), 리(理, 里, 厘)’ 등은 앞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므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객차(客車) 오십 량(輛)      2푼 5리(厘)

[붙임 1] 단어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랴, 러, 레, 료, 류, 리’로 적는다. ‘쌍룡(雙龍)’은 명사 ‘쌍(쌍가락지, 쌍가마)’과 ‘용’이 결합한 말로 보아 ‘쌍용’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지만 ‘외룡(臥龍), 수룡(水龍), 잠룡(潛龍)’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다고 보아 ‘쌍룡’으로 적는다.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결합되는 ‘렬(列, 烈, 裂, 劣), 률(律, 率, 栗, 慄)’은 ‘나열[나열], 비율[바:율], 선열[서널], 운율[우:눌]’ 등에서와 같이 [열], [율]로 소리 나므로 소리대로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	비열(卑劣)	균열(龜裂)	분열(分列)
서열(序列)	우열(優劣)	분열(分裂)	선열(先烈)
의열(義烈)	치열(熾烈)	전열(前列)	천열(賤劣)
규율(規律)	비율(比率)	백분율(百分率)	선율(旋律)
외율(煨栗)	이율(利率)	운율(韻律)	전율(戰慄)
자율(自律)	조율(棗栗)	환율(換率)	

‘率’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이자율(利子率)[아:자율], 회전율(回轉率)[회전놀/훤전놀]’처럼 ‘율’로 적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능률(能率)[능눌], 합격률(合格率)[합경눌]’처럼 ‘률’로 적는다. 외래어에서도 동일하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율’로 적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로 적는다.

서비스-율(service率)	시엔-율(CN率)
슛-률(shoot率)	영-률(Young率)

[붙임 2] 널리 알려진 역사적인 인물 성명의 발음이 ‘申砬[실립], 崔麟[최린]’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립, 최린’과 같이 적을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신입’과 ‘신립’, ‘최인’과 ‘최린’을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현재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이와 같이 처리한 역사적 인물은 다음과 같다.

신입/신립(申昝)	최인/최린(崔麟)	채운/채륜(蔡倫)
하운/하륜(河崙)	김입/김립(金笠)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 줄어들어 하나의 단위로 인식될 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 경우 뒤의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제 연합’은 ‘국련’으로 줄여서 쓸 수 있다. ‘국제’의 ‘국’과 ‘연합’의 ‘연’을 따서 만든 말인데, ‘연’ 자체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국련’으로 쓰는 것이다. ‘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를 ‘한시련’으로 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붙임 4]** 한글 맞춤법 제10항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 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된 단어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또한 두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구조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몰-이해(沒理解)	과-인산(過燐酸)	가-영수(假領收)
등-용문(登龍門)	불-이행(不履行)	사-육신(死六臣)
생-육신(生六臣)	선-이자(先利子)	무실-역행(務實力行)
청-요리(淸料理)	수학-여행(修學旅行)	낙화-유수(落花流水)

한편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한 한자어는 독립적인 한 단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가시-연(蓮)	구름-양(量)
히파숨-양(量)	떡이-양(量)
벡터(vector)-양(量)	에너지(energy)-양(量)

‘量’이 고유어 ‘구름’과 결합하면 ‘구름양’이 되는 것은 ‘양’이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자와 결합하면 ‘운량(雲量)’처럼 ‘량’으로 적는다. ‘이슬양’과 ‘노량(露量)’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각각 ‘양’과 ‘량’으로 적는다.

**[붙임 5]** 수를 나타내는 ‘육’은 ‘십육(十六), 육육삼십육(6×6=36)’처럼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그렇지만 ‘오륙도(五六島), 사륙판(四六判)’ 등은 ‘오’와 ‘육’, ‘사’와 ‘육’이 독립적인 단어로 나누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서울여관(←서울 여관), 국제수영연맹(←국제 수영 연맹)’처럼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료,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낙원(樂園)	락원	뇌성(雷聲)	뢰성
내일(來日)	래일	누각(樓閣)	루각
노인(老人)	로인	능묘(陵墓)	릉묘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	----------	----------	------------

‘라, 래, 로, 례, 루, 르’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나, 내, 노, 뇌, 누, 느’를 포함하는 형태로 실현된다. 이 조항에서는 이처럼 단어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될 때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관(樂觀)	내년(來年)	노년(老年)
뇌우(雷雨)	누수(漏水)	능사(綾紗)

[붙임 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왕릉(王陵), 정릉(貞陵), 동구릉(東九陵)’에 쓰이는 ‘릉(陵)’이나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에 쓰이는 ‘란(欄)’은 한 음절 한자어 형태소가 한자어 뒤에 결합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릉’과 ‘란’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

강릉(江陵)	태릉(泰陵)	서오릉(西五陵)
공란(空欄)	소식란(消息欄)	투고란(投稿欄)

다만,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gossip)-난’과 같이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제11항 [붙임 4]에서 보인 ‘가시-연(蓮), 구름-양(量)’과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반-나체(半裸體)	사상-누각(沙上樓閣)	실-낙원(失樂園)
중-노인(中老人)	육체-노동(肉體勞動)	부화-뇌동(附和雷同)

한편 ‘표고(標高)가 높고 한랭한 곳’이란 뜻의 ‘高冷地’는 ‘고냉지’가 아닌 ‘고랭지’로 적는다. 발음이 [고랭지]이고 ‘고랭-지’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딱딱	딱닥	꼳꼳하다	꼳굿하다
쌩쌩	쌩쌩	놀놀하다	놀롤하다
씩씩	씩식	눅눅하다	눔눅하다
똑똑똑딱	똑닥똑닥	밋밋하다	민밋하다
씩씩씩씩	씩삭씩삭	씩씩하다	씩삭하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연련불망	쌍쌍하다	쌍살하다
유류상종(類類相從)	유류상종	쓱쓱하다	쓱슬하다
누누이(屢屢-)	누루이	짹짹하다	짹질하다

‘딱딱, 쌩쌩’ 등은 ‘딱, 쌩’의 음절이 반복되는 의성어이므로 반복되는 음절을 동일하게 적는다. ‘딱딱’을 ‘딱닥’으로 적어도 소리는 동일하지만 ‘딱딱’이라고 적으면 ‘딱’이라는 음절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언어 직관에 더 맞는다. ‘쓱쓱하다, 똑똑똑딱, 씹씹씹씹’ 등도 각각 ‘쓱, 씹’, ‘똑, 딱’, ‘씹, 씹’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딱딱, 쌩쌩’ 등과 성격이 비슷하다. 따라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 그 반복되는 부분을 같은 글자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조항에서는 고유어뿐 아니라 한자어도 다루고 있다. 한자어는 두음 법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고유어와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냉’은 ‘냉수(冷水), 급력(急冷)’과 같이 두음 법칙의 적용 여부에 따라 두 가지 표기가 나타나므로 ‘냉냉’은 ‘냉랭’과 같이 적어야 한다.

낭랑(朗朗)하다      냉랭(泠泠)하다      녹록(碌碌)하다      늠름(凜凜)하다  
연년생(年年生)      염념불망(念念不忘)      역력(歷歷)하다      인린(鱗鱗)하다

이에 따르면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연련불망, 유류상종, 누루이’로 적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발음이 ‘[여:년불망], [유:유상종], [누:누이]’이고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구조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연연(戀戀)하다      요요무문(寥寥無聞)      요요(寥寥)하다

## 제4장 | 형태에 관한 것

### 제1절 체언과 조사

####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손이	손을	손에	손도	손만
팔이	팔을	팔에	팔도	팔만
밤이	밤을	밤에	밤도	밤만
집이	집을	집에	집도	집만
옷이	옷을	옷에	옷도	옷만
콩이	콩을	콩에	콩도	콩만
낮이	낮을	낮에	낮도	낮만
꽃이	꽃을	꽃에	꽃도	꽃만
밭이	밭을	밭에	밭도	밭만
앞이	앞을	앞에	앞도	앞만
밖이	밖을	밖에	밖도	밖만
넋이	넋을	넋에	넋도	넋만
흙이	흙을	흙에	흙도	흙만
삶이	삶을	삶에	삶도	삶만
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여덟도	여덟만
곶이	곶을	곶에	곶도	곶만
값이	값을	값에	값도	값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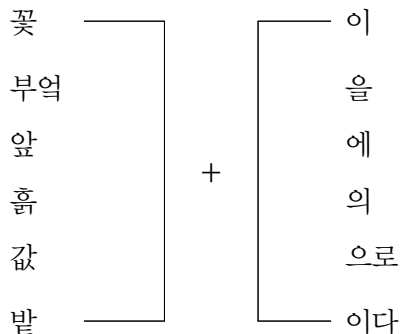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 가운데 ‘어법’에 해당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실질 형태소인 체언과 형식 형태소인 조사를 분리하여 적음으로써 체언과 조사의 형태를 고정한다. 예를 들어 ‘값[價]’에 다양한 조사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값씨                  값쓸                  값또                  값만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하나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표기되어 실질 형태소의 본모양과 형식 형태소의 본모양이 무엇인지, 둘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와 달리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해서 적으면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의 모양이 일관되게 고정되어서 뜻을 파악하기가 쉽고 독서의 능률도 향상된다.

값이                  값을                  값도                  값만

‘값이’는 ‘값씨’와 비교할 때 실질 형태소 ‘값’과 형식 형태소 ‘이’가 분리됨으로써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조항에서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값, 이’, ‘값, 을’의 각 형태를 나누어 적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값씨, 값쓸’, ‘값시, 값쓸’이 아니라 ‘값이, 값을’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 한다’에는 이처럼 체언과 조사를 구분하여 적음으로써 의미 파악을 쉽게 하여 독서의 능률을 높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체언과 조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데, 항상 체언과 조사의 본모양을 밝혀서 적는다.



## 제2절 어간과 어미

###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민다	민고	민어	민으니
울다	울고	울어	(우니)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입다	입고	입어	입으니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찾다	찾고	찾아	찾으니
좃다	좃고	좃아	좃으니
같다	같고	같아	같으니
높다	높고	높아	높으니
좋다	좋고	좋아	좋으니
깎다	깎고	깎아	깎으니
앉다	앉고	앉아	앉으니
많다	많고	많아	많으니
늡다	늡고	늡어	늡으니
젊다	젊고	젊어	젊으니
넓다	넓고	넓어	넓으니
훤다	훤고	훤어	훤으니
웁다	웁고	웁어	웁으니
웁다	웁고	웁아	웁으니
없다	없고	없어	없으니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엮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	------	------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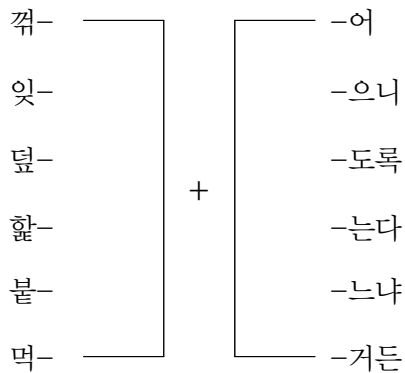
체언에 조사가 결합할 때와 마찬가지로 실질 형태소인 어간과 형식 형태소인 어미의 형태를 고정해서 일관되게 적는다. 예를 들어 어간 형태소 ‘읽-’에 다양한 어미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일꼬          익찌          잉는          일그니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형태소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표기되어서 실질 형태소의 본모양과 형식 형태소의 본모양이 무엇인지, 둘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와 달리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구분되도록 하면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의 모양이 일관되게 고정되어서 뜻을 파악하기가 쉽고 독서의 능률도 향상된다.

읽고          읽지          읽는          읽으니

‘읽고’는 ‘일꼬’와 비교할 때 실질 형태소 ‘읽-’과 형식 형태소 ‘-고’가 구분됨으로써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조항에서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일꼬, 익찌, 일거, 일그니’가 아닌, ‘읽고, 읽지, 읽어, 읽으니’로 어간과 어미의 각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 한다’에는 이처럼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적음으로써 의미 파악을 쉽게 하고 독서의 능률을 높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어간과 어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데, 항상 어간과 어미의 본모양을 밝혀서 적는다.



**[붙임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될 때 앞말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앞말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와 달리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단독으로 쓰일 때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고 다른 의미로 변화했다는 뜻으로, 이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늘어나다(늘다)	늘어지다(늘다)
돌아가다(돌다)	들어가다(들다)
떨어지다(떨다)	벌어지다(벌다)
엎어지다(엎다)	틀어지다(틀다)
흩어지다(흩다)	

위의 예들은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어서 본모양대로 적은 것이다. ‘늘어나다’, ‘돌아가다’에는 ‘늘다’와 ‘돌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느러나다’, ‘도라가다’로 적지 않는다. 다만 원래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넘어지다’, ‘접어들다’는 ‘넘다’와 ‘접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둘을 연관 지어 온 전통에 따라 ‘넘어지다’, ‘접어들다’로 적는다.

이와 달리 앞말이 본뜻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본모양대로 적지 않는다. 예를 들어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는 ‘들다’, ‘살다’, ‘쓸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쓸다’는 ‘(빛자루가) 잘 쓸어지다’와는 관련이 있지만 ‘(나무가) 쓰러지다’와는 의미상 거리가 멀다. 이처럼 본뜻에서 떨어진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나타나다	바라지다[峽]	배라먹다[乞食]	부서지다[碎]
불거지다[凸]	부러지다[折]	자빠지다[漚]	

[붙임 2, 3]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의 ‘이오’, ‘이요’는 모두 [이오]로 소리 나더라도 종결 어미로 쓰일 때는 ‘오’, 연결 어미로 쓰일 때는 ‘요’로 적는다. “이것은 책이오.”는 “같이 가오.”, “꽃이 예쁘오.”, “앉으시오.”처럼 어간에 ‘-오’가 공통적으로 결합한 것이므로 ‘이-’ 뒤에 쓰여 ‘요’로 소리가 난다고 해도 ‘요’로 적지 않고 ‘오’로 적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의 ‘이요’는

역사적으로 ‘이고’에서 ‘ㄱ’이 약화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오’가 분리되어 쓰이는 다른 경우가 없이 이미 ‘요’로 변화했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요’로 적는다.

### 더 알아보기

#### • 연결형의 ‘이요’

한글 맞춤법에서는 연결형에 나타나는 [이요]를 ‘이요’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이를 근거로 ‘이요’를 연결 어미로 기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 ‘이요’를 연결 어미로 기술하면 ‘책+이요’처럼 체언에 바로 어미가 연결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요’는 ‘이다’의 어간 ‘이-’와 연결 어미 ‘-요’를 분리해서 기술해야 한다. ‘-요’는 ‘이다, 아니다’의 어간과만 결합하는 특성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요 「어미」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 ¶ 이것은 말이요, 그것은 소요, 저것은 돼지이다./우리는 친구가 아니요, 형제랍니다.

####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ㄴ, ㄱ’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 1. ‘-아’로 적는 경우

나아	나아도	나아서
막아	막아도	막아서
얹아	얹아도	얹아서
돌아	돌아도	돌아서
보아	보아도	보아서



###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	읽어요
참으리	참으리요
좋지	좋지요

‘요’는 주로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 뒤에 붙어서 청자에게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가-요      가리-요      가지-요      같까-요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등 뒤에 결합하여 청자에게 높임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다.

날씨는요 더없이 좋아요.      어서요 조금만 드셔 보세요.

‘참으리요’는 ‘참으리’에 ‘요’가 결합한 말이다. ‘-으리’는 주로 혼잣말로 자신의 의향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그런데 여기에 ‘요’가 결합하면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리요.      우리는 이곳을 지키리요.

한편 ‘참으리요’는 ‘참-’에 ‘-으리요’가 결합한 말이다. ‘-으리요’는 주로 혼잣말에 쓰이며, 미루어 판단하건대 어찌 그러할 것이냐고 반문하는 뜻을 나타낸다.

가는 세월을 어찌 막으리요.      모두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으리요.



##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놀다:	노니	논	놀니다	노시다	노오
불다:	부니	분	부니다	부시다	부오
등글다:	등그니	등근	등급니다	등그시다	등그오
어질다:	어지니	어진	어집니다	어지시다	어지오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다마다      (하)자마자  
(하)지 마라      (하)지 마(아)

###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낫다:	나아	나으니	나았다
잇다:	이어	이으니	이었다
짓다:	지어	지으니	지었다

###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그렇다: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러오
까맣다:	까마니	까말	까마면	까마오
동그랗다:	동그라니	동그랄	동그라면	동그라오
퍼렇다:	퍼러니	퍼럴	퍼러면	퍼러오
하얗다:	하야니	하얗	하야면	하야오

4. 어간의 끝 ‘ㄴ, ㄹ’가 줄어들 적

푸다:	퍼	폄다	뜨다:	떠	뒸다
끄다:	꺼	꼰다	크다:	커	꼰다
담그다:	담가	담궂다	고프다:	고파	고궂다
따르다:	따라	따랴다	바쁘다:	바빠	바뻤다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걷다[步]:	걸어	걸으니	걸었다
듣다[聽]:	들어	들으니	들었다
묻다[問]:	물어	물으니	물었다
싣다[載]:	실어	실으니	실었다

6. 어간의 끝 ‘ㅂ’이 ‘ㄴ’로 바뀔 적

깎다:	기워	기우니	기웠다
굽다[炙]:	구워	구우니	구웠다
가깝다: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웠다
괴롭다:	괴로워	괴로우니	괴로웠다
맵다:	매워	매우니	매웠다
무겁다:	무거워	무거우니	무거웠다
밉다:	미워	미우니	미웠다
쉽다:	쉬워	쉬우니	쉬웠다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돕다[助]:	도와	도와서	도와도	도왔다
곱다[麗]: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왔다

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하다:        하여        하여서        하여도        하여라        하였다

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이르다[至]:        이르러        이르렀다

노르다:        노르러        노르렀다

누르다: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ㄹ'이 'ㄹ'이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가르다:    갈라    갈랐다	부르다:    불러    불렀다
거르다:    걸러    걸렀다	오르다:    올라    올렀다
구르다:    굴러    굴렀다	이르다:    일러    일렀다
벼르다:    별러    별렀다	지르다:    질러    질렀다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어간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경우와 바뀌는 경우 두 가지로 나타난다.

- ① 먹-다, 먹-어, 먹-으니
- ② 듣-다, 듣-어, 듣-으니

'먹다'는 '-다, -어, -으니'와 결합할 때 어간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데 비해 '듣다'는 '-다'와 결합할 때는 '듣-'으로, '-어, -으니'와 결합할 때는 '들-'로 어간의 모양이 바뀐다. 그런데 'ㄷ' 받침을 가진 모든 용언이 '듣다'와 같은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믿-다, 믿-어, 믿-으니) 이러한 교체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어간과 마찬가지로, 어미도 그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경우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 모양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 ①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신다[신-는, 실-어(← 신--+어)]
- ② 어미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하다[하-고, 하-연(← 하--+아)]
- ③ 어간과 어미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파랗-다[파랗-지, 파랗(← 파랗--+아)]

1. 어간 끝 받침 ‘ㄹ’이 ‘ㄴ, ㅂ,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어미 ‘-오, -ㄹ’ 등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살다’의 어간 ‘살-’에 어미 ‘-네, -세, -오’가 결합하면 ‘ㄹ’이 탈락하여 ‘사네, 사세, 사오’가 된다. 이를 도식화 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어간		어미		결합형
살-	+	-네	➡	사네
		-세		사세
		-오		사오
		-ㄹ수록		살수록
		-ㅂ시다		삽시다
		-ㄹ뿐더러		살뿐더러

‘갈다, 날다, 말다, 물다, 벌다, 불다, 알다, 울다, 즐다, 팔다’ 등 어간 끝 받침이 ‘ㄹ’인 용언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환경에서는 ‘ㄹ’이 예외 없이 탈락하므로 다른 불규칙 활용과 차이가 있다.

**[붙임]** 어간 끝의 받침 ‘ㄹ’은 ‘ㄷ, ㅈ’ 앞에서 탈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ㄹ’이 탈락한 형태가 굳어져 쓰이는 것은 탈락한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말--+지+못하다) ㉠ 사정하는 바람에 마지못해서 들어주었다.  
 마지않다(←말--+지+않다) ㉡ 참석해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마다(←-다+말--+다) ㉢ 암, 네 말이 맞다마다.  
 -자마자(←-자+말--+자) ㉣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2. 어간 끝 받침 ‘스’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 ① 어간이 바뀌는 경우: 굶다, 낫다, 붓다, 잇다, 잦다, 젖다, 짓다
- ② 어간이 바뀌지 않는 경우: 벗다, 빗다, 빼앗다, 솟다, 찢다, 웃다

짓다            짓--+어 → 지어  
                   짓--+은 → 지은  
                   짓--+어도 → 지어도

웃다            웃--+어 → 웃어  
                   웃--+은 → 웃은  
                   웃--+어도 → 웃어도

3. 형용사의 어간 끝 받침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대로 적는다. 이에 따라 ‘노랑-’에 ‘-아’가 결합하면 ‘노래’와 같이 활용하고, ‘누렇-’에 ‘-어’가 결합하면 ‘누레’와 같이 활용한다. 또한 어간 끝 받침이 ‘ㅎ’인 형용사 어간에 ‘-네’가 결합하면 ‘노라네’와 ‘노랑네’로 활용한다.

노랗다          노랑--+은 → 노란  
                   노랑--+으니 → 노라니  
                   노랑--+아 → 노래  
                   노랑--+아지다 → 노래지다

노랗-+-네 → 노라네/노랗네

누렇다      누렇-+-은 → 누런  
              누렇-+-으니 → 누러니  
              누렇-+-어 → 누레  
              누렇-+-어지다 → 누레지다  
              누렇-+-네 → 누러네/누렇네

그런데 ‘노랗다, 누렇다’와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는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 차이가 있다. ‘노랗다, 누렇다’는 어간 끝음절 모음에 따라 ‘노래, 누레’로 활용하지만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는 ‘그래, 이래, 저래’로 일관되게 활용한다.

그렇다      그렇-+-어 → 그래  
              그렇-+-어지다 → 그래지다

저렇다      저렇-+-어 → 저래  
              저렇-+-어지다 → 저래지다

다만, 어간 끝 받침이 ‘ㅎ’인 형용사 중 ‘좋다’는 활용할 때 ‘ㅎ’이 탈락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좋다      좋-+-네 → 좋네  
              좋-+-은 → 좋은  
              좋-+-으니 → 좋으니  
              좋-+-아 → 좋아  
              좋-+-아지다 → 좋아지다

4. 어간이 모음 ‘ㅏ’로 끝나는 동사 ‘푸다’와 어간이 모음 ‘ㅡ’로 끝나는 일부 용언은, 뒤에 어미 ‘-아/-어’가 결합하면 ‘ㅏ, ㅡ’가 나타나지 않는다.

푸다            푸-+-어 → 퍼  
                  푸-+-어서 → 퍼서  
                  푸-+-었다 → 폼다

아프다        아프-+-아 → 아파  
                  아프-+-아도 → 아파도  
                  아프-+-았다 → 아팠다

‘ㅏ’가 나타나지 않는 단어는 ‘푸다’ 하나이며 ‘ㅡ’가 나타나지 않는 단어로는 ‘가쁘다, 고프다, 기쁘다, 꼬다, 나쁘다, 담그다, 따르다, 뜨다, 미쁘다, 바쁘다, 슬프다, 아프다, 예쁘다, 잠그다, 치르다, 크다, 트다’ 등이 있다. ‘ㅡ’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ㄹ’ 탈락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환경에서 예외 없이 ‘ㅡ’가 탈락한다는 점에서 다른 불규칙 활용과 차이가 있다.

5. 어간 끝 받침 ‘ㄷ’이 모음 앞에서 ‘ㄹ’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 ① 어간이 바뀌는 경우: (걸음을) 걷다, 긴다, 깨닫다, 높다, 달다(빨리 뛰다), 듣다, (물음을) 묻다, 분다, 신다, 일컫다
- ② 어간이 바뀌지 않는 경우: (빨래를) 걷다, 곧다, 굳다, (문을) 닫다, 돌다, 뜯다, (땅에) 묻다, 민다, 받다, 벌다, 뺏다

(안부를) 묻다            묻-+-어 → 물어  
                               묻-+-으니 → 물으니  
                               묻-+-은 → 물은

(땅에) 묻다            묻-+-어 → 묻어  
                           묻-+-으니 → 묻으니  
                           묻-+-은 → 묻은

6. 어간 끝 받침 ‘ㅂ’이 모음 앞에서 ‘우’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 ① 어간이 바뀌는 경우: 가깝다, 가볍다, 간지럽다, 괴롭다, (고기를) 굽다, 김다, 노엽다, 늙다, 더럽다, 덤다, 맵다, 메스껍다, 무겁다, 미덥다, 밉다, 사납다, 서럽다, 쉽다, 아니꼽다, 어둡다, 역겹다, 즐겁다, 지겹다, 차갑다, 춥다 ‘꽃답다, 슬기롭다, 자연스럽다’ 유형 등
- ② 어간이 바뀌지 않는 경우: (추위에 손이) 곱다, (허리가) 곱다, 꼬집다, (손을) 꼬다, 다잡다, 비집다, 뿔다, 수줍다, 씹다, 업다, 잡다, 접다, 좁다, 집다, 헤집다

늡다            늡-+-어 → 누워  
                   늡-+-으니 → 누우니  
                   늡-+-었다 → 누웠다

잡다            잡-+-아 → 잡아  
                   잡-+-으니 → 잡으니  
                   잡-+-았다 → 잡았다

한편 ‘돕다’와 ‘곹다’의 어간이 ‘-아’와 결합하여 ‘도와, 곹와’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뀐 대로 적는다.

돕다            도와, 도와서, 도와도, 도와야, 도왔다  
 곹다            곹와, 곹와서, 곹와도, 곹와야, 곹왔다



7. 어간 ‘하-’ 뒤에 어미 ‘-아’가 결합하여 ‘하여’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하여’는 ‘해’로 줄어들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34항 붙임 2 참조)

하다            하--+아→하여→해  
                  하--+아라→하여라→해라  
                  하--+아도→하여도→해도  
                  하--+았다→하였다→했다

8. ‘이르-, 푸르-’ 등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이르러, 푸르러’ 등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푸르다          푸르--+어→푸르러  
                  푸르--+어서→푸르러서  
                  푸르--+었다→푸르렀다  
                  푸르--+어지다→푸르러지다

어간 끝음절이 ‘르’인 용언 가운데, ‘노르다, (빛깔이) 누르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9.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미 ‘-아/-어’가 결합하여 ‘-’가 탈락하고 ‘르’이 덧붙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모르다          모르--+아→몰라  
                  모르--+아서→몰라서  
                  모르--+았다→몰랐다

부르다          부르--+어→불러  
                  부르--+어도→불러도  
                  부르--+었다→불렀다

‘빛깔이 누르다, 목적지에 이르다’의 ‘누르다, 이르다’는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이지만 ‘르’이 덧붙지 않고 ‘누르러, 이르러’로 활용한다.

**더 알아보기**

• ‘-거라/-너라 불규칙’의 소멸

‘가다’와 ‘오다’에는 일반적인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대신에 ‘-거라’와 ‘-너라’가 결합한다고 본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아라/-어라’와 ‘-거라’, ‘-너라’가 의미와 어감이 다르다고 보아 ‘가라(←가-+-아라), 가거라’와 ‘와라(←오-+-아라), 오너라’를 모두 표준형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전에 ‘-거라/-너라 불규칙’이라고 하였던 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거라’, ‘-너라’는 ‘-아라/-어라’에 비해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차이가 있다.

• ‘말다’의 활용형

‘말다’의 어간 ‘말-’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하면 ‘마라’와 ‘말아라’ 두 가지로 활용하고, ‘-야’가 결합할 때에도 ‘마’와 ‘말아’ 두 가지로 활용한다. 또한 ‘말-’에 명령형 어미 ‘-라’가 결합한 ‘말라’는 구체적으로 청자가 정해지지 않은 명령문이나 간접 인용문에서 사용된다.

- 너무 걱정하지 마라/말아라.
- 너무 걱정하지 마/말아.
- 너무 걱정하지 마요/말아요.
- 나의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 실내에서는 떠들지 말라고 하셨다.

• 피·사동 접미사 결합형

어간 끝음절 ‘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 모음 ‘ㄹ’이 탈락하면서 ‘르’이 덧붙는 현상이 있다. 이 현상은 ‘르’로 끝나는 어간에 파·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 가르다    가르-+-이-+-다 → 갈리다
- 부르다    부르-+-이-+-다 → 불리다
- 구르다    구르-+-이-+-다 → 굴리다
- 오르다    오르-+-이-+-다 → 올리다

###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달이	별이	벼훅이	살림살이	쇠붙이

#####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얹		

#####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곳이				

#####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	----	----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다리[髀]	목거리(목병)	무녀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가미	주검			

(2) 부사로 바뀐 것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나마	부터	조차
----	----	----

용언의 어간에 ‘-이’, ‘-음/-ㅁ’이 결합하여 명사가 되거나 ‘-이’, ‘-히’가 결합하여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명사를 만드는 ‘-이’나 ‘-음/-ㅁ’은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여러 어간에 결합할 수 있으므로, 어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굽이(굽다)	귀걸이(걸다)	귀밭이(밭다)
넓이(넓다)	놀음놀이(놀다)	더듬이(더듬다)
대뿔이(뿔다)	물받이(받다)	물뿔이(뿔다)
배앞이(앞다)	벧놀이(놀다)	손님맞이(맞다)
손잡이(잡다)	액막이(막다)	여달이(달다)
옷걸이(걸다)	점박이(박다)	하루살이(살다)
해돋이(돋다)	호미씻이(씻다)	휘묻이(묻다)

같음(갈다)	계걸음(걷다)	고기볶음(볶다)
그을음(그을다)	모질음(모질다)	삶(살다)
쑤음(쑤다)	수줍음(수줍다)	양값음(값다)
쥘음(쥘다)	용솟음(솟다)	판막음(막다)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히’도 어간의 본뜻을 유지하면서 여러 어간에 결합하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곧이(곧다)	끝없이(없다)	옳이(옳다)	적이(적다)
밝히(밝다)	익히(익다)	작히(작다)	

그렇지만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음’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경우라도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고 멀어졌으면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굽도리’에는 ‘돌다’의 의미가, ‘무너리’에는 ‘열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굽돌이, 문열이’로 적지 않는다. 다음의 예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너비	도리깨	빈털터리
----	-----	------

즉 본뜻이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만 본뜻에서 멀어졌을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본뜻이 유지됨	본뜻에서 멀어짐
걸다	목걸이(목에 거는 물건)	목거리(목이 아픈 병)
놀다	놀음(놀이)	노름(돈내기)

다만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에 ‘-이, -음’이 결합하여 소리가 변한 경우에는 변한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쉽-’에 ‘-이’가 결합한 말은 [쉬이]로 발음되고, ‘서럽-’에

‘-음’이 결합한 말은 [서:리움]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이것을 원형을 밝혀 ‘쉬이, 서럽음’으로 적으면 [쉬비, 서:리븜]으로 읽혀서 표준어와는 달리 발음된다. 따라서 이러한 말은 소리대로 ‘쉬이, 서리움’으로 적는다.

**[붙임]** ‘-이’, ‘-음’이 아닌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접미사는 결합하는 어간이 제약되어 있고 더 이상 새로운 말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① 명사로 된 것

너머(← 넘--+어)	뜨더귀(← 뜯--+어귀)	마감(← 막--+암)
마개(← 막--+애)	무덤(← 묻--+엄)	쓰레기(← 쓸--+에기)
얼개(← 엮--+애)	우스개(← 웃--+으개)	주검(← 죽--+엄)

② 부사로 된 것

도로(← 돌--+오)	마주(← 맞--+우)	모람모람(← 몰--+암)
미처(← 밋--+어)	바투(← 발--+우)	차마(← 참--+아)

③ 조사로 된 것

나마(← 남--+아)	부터(← 붙--+어)	조차(← 좇--+아)
-------------	-------------	-------------

‘너머’는 ‘넘다’에서 온 말이지만 명사로 굳어진 것으로 ‘넘다’의 활용형 ‘넘어’와는 구별된다. ‘저 산 너머 고향이 있다’, ‘산을 넘어 고향에 간다’와 같이 쓰인다. ‘차마(부끄럽거나 안타까워서 감히)’ 또한 ‘참다’에서 온 말이지만 부사로 굳어진 말로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와 달리 ‘참다’의 활용형 ‘참아’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조사 ‘나마, 부터, 조차’는 ‘남-아, 붙-어, 좇-아’가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 조사가 된 것이다.

##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날날이    뭇뭇이    살살이    앞앞이    집집이

### 2. 명사로 된 것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꼬락서니    끄트머리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명사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나 명사가 되는 경우 명사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가 결합하여 품사나 의미가 바뀌더라도 명사의 원래 의미와 ‘-이’의 의미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비교적 다양한 명사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명사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 아래는 명사 뒤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예이다.

간간이	겹겹이	길길이	눈눈이
땀땀이	번번이	사람사람이	옆옆이
줄줄이	참참이	철철이	첩첩이
틈틈이	나날이	다달이	
골골살살이	구구절절이	사사건건이	

‘겹겹이’는 명사 ‘겹’이 반복된 말에 ‘-이’가 결합되어 부사가 되었다. 이 경우 명사 ‘겹’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며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기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겹겹이’와 같이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아래는 명사에 ‘-이’가 결합하여 다시 명사가 된 것으로, 이 경우에도 원래 명사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고 결합도 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고리눈이	맹문이	안달이	얌전이
억척이	점잔이	통방울이	우걱뿔이

[붙임] 그렇지만 명사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된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러한 접미사는 결합하는 어근이 제약되어 있고 더 이상 새로운 말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고랑(←골+-앙)	터럭(←털+-억)	끄트러기(←끝+-으러기)
모가지(←목+-아지)	소가지(←속+-아지)	오라기(←올+-아기)

‘모가지’와 ‘값어치’, ‘벼슬아치’, ‘반빛아치’는 명사에 ‘-아치’, ‘-어치’가 결합한 비슷한 구성이지만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다. ‘모가지(뿔으로 돌아오는 물건)’는 ‘뿔’과 ‘-아치’로 분석하면 ‘목사치’로 적을 가능성이 있지만 발음이 [모가치]인 것을 보면 ‘뿔’의 옛말인 ‘목’에 ‘-아치’가 결합된 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발음 [모가치]에 따라 표기도 ‘모가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모가지’와는 달리 ‘값어치’, ‘벼슬아치’, ‘반빛아치’는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이다. ‘값어치[가버치]’는 명사 ‘값’에 ‘-어치’가 결합한 말이므로 이 항의 규정에 따르면 ‘갑서치’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명사 ‘값’이 독립적으로 쓰이고 ‘-어치’도 ‘백 원어치’, ‘천 원어치’, ‘천 달러어치’, ‘얼마어치’ 등의 형태로 비교적 널리 쓰여 왔다는 점에서 ‘값어치’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벼슬아치’ 또한 ‘벼슬라치’가 되어야겠지만 ‘-아치’가 비교적 여러 말에 붙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벼슬아치’로 적는다. ‘반빛아치’



도 ‘반빚(예전에 반찬 만드는 일을 하던 직책)’에 ‘-아치’가 붙어서 된 단어이지만, 발음이 [반비다치]로 굳어져 있는 것과 ‘-아치’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반빚아치’로 적는다.

###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흘지다      낮두리      빗갈      옆덩이      앞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낚시	늪정어	덧개	뜯게질
값작값작하다	값작거리다	뜯적거리다	뜯적뜯적하다
굽다랴다	굽직하다	깊숙하다	넓적하다
높다랴다	높수그레하다	엷죽엷죽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짝거리다	널따랴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쪽하다	실큼하다
알따랴다	알팍하다	짤따랴다	짤막하다
실컷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	----	------	------

명사와 용언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예를 들어 ‘값지다’는 명사 ‘값’에 접미사 ‘-지다’가 결합한 말이고 ‘덧개’는 어간 ‘덧-’에 접미사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이들은 명사와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값) 값지다	(꽃) 꽃답다	(끝) 끝내
(멋) 멋지다	(별) 별뉘	(부엌) 부엌데기
(빛) 빛쟁이	(빛) 빛갈	(숫) 숫쟁이
(숲) 숲정이	(앞) 앞장	(옆) 옆구리
(옷) 옷매	(입) 입사귀	(흙) 흙질
(높-) 높다랗다	(늪-) 늪다리	(웁-) 웁조리다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용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첫째,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겹받침에서 앞에 있는 받침만 소리가 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핥다’에서 ‘할짜거리다’가 될 때에는 앞의 ‘ㄹ’만 발음되므로 원형을 밝히지 않고 ‘할짜거리다’로 적는다. 이에 비해 ‘굽다’에서 ‘굽다랗다’가 될 때에는 뒤에 있는 받침인 ‘ㄱ’이 발음이 되므로 원형을 밝혀 ‘굽다랗다 [꺽따라타]’로 적는다. 즉 겹받침에서 앞의 소리가 발음이 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뒤의 소리가 발음이 되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넓다’에서 ‘널따랗다’와 ‘넓적하다’가 될 때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래’에서 앞의 받침이 발음되는 [널따라타]는 ‘널따랗다’로 적고, 뒤의 받침이 발음되는 [넙쩌가다]는 ‘넙적하다’로 적는다.

둘째,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광어(廣魚)’에 해당하는 ‘넙치’는 의미상으로는 ‘넓다’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어원적 형태가 분명히 인식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넙치’로 적는다. ‘올무(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올가미)’도 의미상으로는 ‘웁다’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다. ‘골막하다(담긴 것이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모자란 듯하다)’ 또한 ‘꿨다(담긴 것이

그릇에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비다)’와 어원적으로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 ‘납작하다(판판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는 어원적으로 연관되는 말이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납작하다’로 적는다.

**더 알아보기**

• ‘넓다, ‘넙죽, ‘납작 등의 표기

‘넓다’의 어간 ‘넓-’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 본뜻이 유지되면서 결합침 끝 소리인 ‘ㅂ’이 소리 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본뜻이 유지되더라도 앞의 ‘ㄹ’이 소리 날 때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ㅂ’이 소리 나는 경우	넓적이, 넓적하다, 넓적넓적, 넓적다리 넙죽하다, 넙죽넙죽, 넙죽스름하다, 넙죽이
‘ㄹ’이 소리 나는 경우	넙따랗다, 넙찍하다

다만 ‘넓-’에 접미사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는 항상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음은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경우이다.

넓둥글다, 넓뻘죽하다

‘넙죽 앞드리다’의 ‘넙죽’은 ‘넓-’의 의미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넙죽’으로 적는다. 이러한 부류의 말 중 ‘납작’은 좀 더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먼저 ‘넙죽 앞드리다’에 대응하는 ‘납작 앞드리다’의 ‘납작’은 넓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납작’으로 적는다. 그런데 ‘판판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라는 의미의 ‘납작하다’는 넓이와 관련이 있지만 ‘넙작하다’로 적지 않는다. 이는 ‘넙다’와 같은 말이 없기 때문이다. ‘넙죽’도 마찬가지로여서 의미와 상관없이 항상 소리 나는 대로 ‘넙죽’이라고 적는다.

납작	납작하다, 납작납작, 납작납작하다, 납작납작이, 납작스름하다, 납작이
넙죽	넙죽하다, 넙죽넙죽, 넙죽넙죽하다, 넙죽넙죽이, 넙죽스름하다, 넙죽이

##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 1. ‘-기-, -리-, -이-, -하-,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는 것

말기다	웁기다	웃기다	쫓기다	똥리다
울리다	늑이다	쌓이다	핥이다	굳히다
굽히다	넓히다	앉히다	엮히다	잡히다
돋구다	솟구다	돋우다	갓추다	곧추다
맞추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없애다	

다만, ‘-이-, -하-,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도리대(칼로 ~)	드리대(용돈을 ~)	고치다
바치대(세금을 ~)	부치대(편지를 ~)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 2. ‘-차-, -뜨리-, -트리-’가 붙는 것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받치다
부딪치다	뺨치다	엮치다	부딪뜨리다/부딪트리다	
쏟뜨리다/쏟트리다		젓뜨리다/젓트리다		
찢뜨리다/찢트리다		흠뜨리다/흠트리다		

**[붙임]** ‘-업-, -읍-,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미덥다	우습다	미쁘다
-----	-----	-----

1. 국어에서 어간에 접미사가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때, 형성된 단어의 의미는 어간과 접미사의 의미가 합해진 결과물인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먹다’에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들 때 사동사의 의미

는 어간의 의미와 접미사의 의미로 예측할 수 있다.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히-’가 결합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먹다’의 의미가 ‘먹이다’, ‘먹히다’에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먹다      먹--+이-(사동 파생 접미사)+-다 → 먹이다  
           먹--+히-(피동 파생 접미사)+-다 → 먹히다

만약 ‘먹이다’를 ‘머기다’로, ‘먹히다’를 ‘머키다’로 적으면 ‘먹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과 사동 접미사와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와 피동사라는 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사동과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사동사나 피동사가 형성된 경우 어간과 접미사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다.

‘없애다’를 ‘없-’과 ‘-애-’로 분석할 경우, ‘-애-’가 일반적인 접미사와는 달리 다른 어간과는 결합하는 일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렇지만 어간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며 독립성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업새다’보다는 ‘없애다’로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다만, 이러한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라도 어간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본뜻에서 멀어졌다면 어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리다’, ‘드리다’, ‘고치다’, ‘바치다’, ‘미루다’와 같은 말들은 어원적으로는 ‘돌다, 들다, 곧다, 받다, 밀다’에 접미사 ‘-이-, -히-, -우-’가 결합한 ‘돌이다, 들이다, 곧히다, 받히다, 밀우다’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는 원래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2. ‘-치-’, ‘-프리-/트리-’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어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고 한글 맞춤법 제21항에서 규정한 바 있다.

‘-프리-/트리-’는 의미가 동일한 복수 표준어로, 둘 다 다양한 어간에 결합하여 널리 쓰인다는 특성이 있다.(표준어 규정 제26항) 이에 따라 ‘깨뜨리다/깨트리다’, ‘떨어뜨리다/떨어트리다’처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부딪치다’는 ‘부딪다’를 강조하는 말로 기술할 수 있지만 언어 현실에서 ‘부딪다’는

잘 쓰이지 않고 ‘부딪치다’가 주로 쓰인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부서졌다.

선수들은 손바닥을 부딪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붙임]** 역사적으로 ‘미덥다’, ‘미쁘다’는 ‘민다’에 접미사 ‘-업-’과 ‘-브-’가 결합한 말이고 ‘우습다’는 ‘웃다’에 ‘-음-’이 결합한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분석이 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기쁘다, 슬프다’도 ‘미쁘다’와 마찬가지로 접미사 ‘-브-’가 결합한 말이지만 현재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쓰인다.

###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갈쪽이	갈쭈기	살살이	살사리
꿀꿀이	꿀꾸리	씩씩이	씩새기
눈깜짝이	눈깜짜기	오뚝이	오뚜기
더떨이	더퍼리	코납작이	코납자기
배불뚝이	배불뚜기	푸석이	푸서기
삐죽이	삐쭈기	흠죽이	흠쭈기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깍두기	팽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	벼꾸기	얼루기	칼썩두기

어근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은 ‘-이’와 결합하여 명사를 형성하는 경우 본뜻이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홀쭉하다’의 어근 ‘홀쭉’에서 ‘홀쭉이’가 형성되더라도 ‘홀쭉’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홀쭉	홀쭉-하다(몸이 가냘프고 야위다)
	홀쭉-이(몸이 가냘프거나 야윈 사람)
삐죽	삐죽-거리다(입을 내밀고 실룩거리다)
	삐죽-이(쉽게 토라지는 사람)

또한 이러한 어근은 ‘-하다’, ‘-거리다’, ‘-이’ 등이 모두 결합할 수 있을 만큼 꽤 널리 분포되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깜짝’은 ‘깜짝이’, ‘깜짝하다’, ‘깜짝이다’, ‘깜짝거리다’, ‘깜짝대다’, ‘깜짝깜짝하다’ 등 관련된 말들에 다양하게 쓰인다. 따라서 ‘깜짝’이라는 형태를 밝혀서 적어야 이러한 관련성을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하기가 더 쉽다. 이처럼 원래 어근의 의미가 유지되고 어근이 결합하는 말도 비교적 다양하기 때문에,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은 경우는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이러한 기준에서 ‘더떨이’, ‘삐죽이’, ‘살살이’, ‘깔쭉이’는 ‘더떨거리다’, ‘삐죽거리다’, ‘살살거리다’, ‘깔쭉거리다’가 있으므로 ‘더퍼리’, ‘삐주기’, ‘살사리’, ‘깔쭉기’로 적지 않는다.

깔쭉	깔쭉-거리다(거칠고 깔끄럽게 따끔거리다)
	깔쭉-이(가장자리를 툇니처럼 깔쭉깔쭉하게 만든 동전)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결합하지 않는 어근에서 명사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러기’는 ‘기력기력(기러기가 우는 소리)’을 보면 ‘기력’이라고 하는 어근을 가정할 수 있지만 ‘기력하다’, ‘기력거리다’가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력’이 다른 단어를 형성하거나 독립적으로 쓰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력이’로 어근을 밝혀 적을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씩씩거리다’와 관련이 없는 ‘여칫과의 곤충’은 ‘씩씩기’로 적지만 관련이 있는 ‘제트기’는 ‘씩씩이’로 적는다.

씩씩기(여칫과의 곤충)

씩씩      씩씩-거리다(숨을 거칠게 쉬는 소리를 잇따라 내다)

씩씩-이(제트기)

여기서 주의할 단어는 ‘개구리’와 ‘뼈꾸기’이다. ‘개구리, 뼈꾸기’는 의성어 ‘개굴개굴, 뼈꼭’과 관련이 있으므로 ‘개굴이, 뼈꼭이’로 적어야 할 것 같지만 국어사전에 ‘개굴하다, 개굴거리다’와 ‘뼈꼭하다, 뼈꼭거리다’는 실려 있지 않다. ‘귀뚜라미, 매미’ 등도 ‘귀똥하다, 귀똥거리다’, ‘맴하다, 맴거리다’ 등이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이와 비슷하게 ‘얼룩’ 또한 ‘얼룩하다, 얼룩거리다’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얼룩얼룩한 점’, ‘얼룩얼룩한 점이 있는 동물’의 의미를 지닌 말을 ‘얼룩이’가 아닌 ‘얼루기’로 적는다.

###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깜짝이다	깜짜기다	속삭이다	속사기다
꾸벅이다	꾸버기다	속덕이다	속더기다
끄덕이다	끄더기다	울먹이다	울머기다
뒤척이다	뒤쳐기다	움직이다	움지기다
들먹이다	들머기다	지껄이다	지꺼리다
망설이다	망서리다	퍼덕이다	퍼더기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허덕이다	허더기다
번쩍이다	번쩌기다	헐떡이다	헐더기다



국어에서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는 ‘-이다’가 붙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의태어 어근 ‘반짝’은 ‘반짝하다’, ‘반짝거리다’, ‘반짝대다’, ‘반짝이다’, ‘반짝반짝하다’와 같은 단어를 형성한다. 이런 경우는 어근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고 어근이 다양한 접사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거리다’가 결합하는 어근은 ‘-이다’가 결합할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

간질거리다, 간질대다	간질이다
간족거리다, 간족대다	간족이다
덜렁거리다, 덜렁대다	덜렁이다
뒤적거리다, 뒤적대다	뒤적이다
들썩거리다, 들썩대다	들썩이다
펼럭거리다, 펼럭대다	펼럭이다

###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듯이      깨끗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이 조항에서는 부사를 형성하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부사에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 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히’가 붙어 부사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하다’가 붙는 어근이란 ‘급하다, 꾸준하다, 깨끗하다’에서 ‘-하다’와 결합하는 ‘급, 꾸준, 깨끗’을 말한다. 이처럼 ‘-하다’와 결합하는 어근은 부사 파생 접미사 ‘-이/-히’와 결합하여 부사를 형성할 때 어근의 본뜻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또한 이러한 ‘-이’나 ‘-히’는 매우 다양한 어근과 결합하여 부사를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근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합리적이다.

꾸준      꾸준-하다(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다)  
             꾸준-히(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는 태도로)

버젓      버젓-하다(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다)  
             버젓-이(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

다만, ‘-하다’가 붙지 않아서 어근과 접미사를 분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어근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반드시]는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의 본뜻이 유지될 때와 유지되지 않을 때를 구별할 수 있다.

반듯      반듯-하다(생김새가 아담하고 말끔하다)  
             반듯-이(생김새가 아담하고 말끔히) ㉠ 소나무가 반듯이 서 있다.  
 반드시(틀림없이 꼭) ㉡ 오늘 안에 반드시(꼭) 일을 끝내자.

지긋      지긋-하다(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다)  
             지긋-이(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게) ㉢ 나이가 지긋이 든 반백의 신사  
             지그시(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 ㉣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는 ‘높이, 많이, 밝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높-, 많-, 밝-’ 등의 어근이 분명히 드러나므로, ‘높이, 많이, 밝히’와 같이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둘째, 부사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되는 경우이다. ‘-이’가 결합해도 원래의 부사와 의미와 기능이 다르지 않으므로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원형을 밝혀 적는다.

곰곰           곰곰-이(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  
 생긱           생긱-이(눈과 입을 살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가볍게 웃는 모양)

셋째, 반복적인 명사 어근에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되는 경우에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20항)

곳곳           곳곳-이(곳곳마다)  
 집집           집집-이(모든 집마다)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혀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술하다          착하다          텅텅하다          푹하다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하다’와 ‘없다’가 결합하는 어근은 자립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하다’의 경우 ‘노래하다’, ‘운동하다’ 등은 ‘노래’, ‘운동’이 자립적이므로 ‘-하다’와 나눌 수

있지만 ‘딱하다’, ‘착하다’ 등은 ‘딱’과 ‘착’이 자립적이지 않아서 쉽게 분리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없다’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두말없다’, ‘버릇없다’의 ‘두말’, ‘버릇’과 ‘느닷없다’, ‘부질없다’의 ‘느닷’, ‘부질’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자립적이지 않은 어근과 ‘-하다’, ‘없다’가 결합한 경우라도 자립적인 어근이 분석되는 것처럼 둘을 나눌 수 있다. 비자립적인 어근이라 하더라도, 독립성이 분명하고 여러 어근과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하다’, ‘없다’와 결합하므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의미를 알기 쉽다. ‘딱하다, 착하다’를 ‘따카다, 차카다’로 적지 않는 것과 전통적으로 “우리 아기 착도 하지?”와 같은 쓰임이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어근이 자립적이지는 않지만 형태를 밝혀 적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다    거북하다, 깨끗하다, 눅눅하다, 답답하다, 섭섭하다, 솔깃하다  
 없다    상없다

####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국말이	꺾꽂이	꽃잎	끝장	물난리
밑천	부엌일	싫증	옷안	웃웃
젓몸살	첫아들	칼날	팔알	헛웃음
홀아비	홀몸	흙내		
값없다	겉늬다	굽주리다	낮잡다	맛먹다
반내다	번놓다	빗나가다	빗나다	새파랗다
셋노랗다	시꺼멓다	싯누렇다	엇나가다	엷누르다
엷들다	웃오르다	짓이기다	헛되다	

**[붙임 1]**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붙임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병            골탕            끝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붙임 3]** ‘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젓니            톱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이 조항에서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원형을 밝혀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룰 때에는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를 들어 ‘꽃’과 ‘잎’이 합성어를 이룰 때 [꼐닙]으로 소리가 나지만 단어의 원형을 밝혀 ‘꽃잎’으로 적는다. ‘눈’과 ‘살’이 합성어를 이룰 때도 [눈쌀]로 소리 나지만 ‘눈’과 ‘살’이 자립적으로 쓰이므로 ‘눈살’로 형태소를 밝혀 적는다.

꽃+잎 → 꽃잎

눈+살 → 눈살

빛+나다 → 빛나다

한편 제시한 말 가운데 ‘끝장’, ‘밑천’, ‘싫증’은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실질 형태소로 분명하게 분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끝장’은 ‘끝’에 비해서 ‘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질 형태소인 ‘끝’과 함께 쓰여 ‘끝장’의 전체 의미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장’을 실질 형태소로 분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밧천 [밧천], 싹증[싹쫙]’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접두사가 자립적인 어근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형성될 때, 어근의 본뜻이 유지되고 파생어의 의미를 접두사와 어근의 의미로 예측할 수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헛-+웃음 → 헛웃음

쌩-+노랗다 → 쌩노랗다

짓-+이기다 → 짓이기다

한편 접두사 ‘새-/시-, 쌩-/싹-’은 뒤에 오는 말에 따라 구별된다. 된소리, 거센소리, ‘ㅎ’ 앞에는 ‘새-/시-’가, 유성음 앞에는 ‘쌩-/싹-’이 결합한다. 이 중 ‘새-, 쌩-’은 뒷말이 양성 모음일 때, ‘시-, 싹-’은 뒷말이 음성 모음일 때 결합한다.

새까맣다/시꺼맣다

새빨강다/시빨강다

새파랗다/시퍼렇다

새하얗다/시허옇다

쌩노랗다/싹누렇다

**[붙임 1]** 어원이 분명하더라도 이미 소리가 바뀐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할아버지, 할아범’은 ‘한아버지, 한아범’에서 온 말이지만 [하라버지]와 [하라범]으로 발음이 바뀌었으므로 바뀐 대로 적는다.

**[붙임 2]** 어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며칠’은 ‘몇 년 몇 월 몇 일’처럼 ‘몇’이 공통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몇 일’로 쓰는 일이 많다. 그러나 ‘몇 일’이라고 하면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한다. 이러한 점은 ‘몇 월’이 [며뉘]로 발음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발음은 [며칠]이라서 ‘몇일’로 적으면 표준어 [며칠]을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몇’과 ‘일’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는다.

‘아재비’는 옛말 ‘아자비’에서 온 말이다. 그렇지만 ‘아자비’가 ‘앗+아비’로 분석된다고 해서 형태가 변한 ‘아재비’를 ‘앗애비’로 적을 수는 없는 일이다. ‘오라비’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비’를 분석해서 ‘올아비’와 같이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리나케(서둘러서 아주 급하게)’는 어원적으로 ‘불이 나게’와 관련이 있지만 의미가 멀어졌으므로 ‘불이나케’와 같이 적을 이유는 없다. 이와는 달리, ‘선부르다(숨씨가 설고 어설프다)’는 ‘설다(익숙하지 못하고 서투르다)’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선부르다(← 설부르다)’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29항)

**[붙임 3]** 합성어에서 실질 형태소가 의미를 유지하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齒, 虱]’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간이’, ‘덧이’, ‘송곳이’로 적어도 ‘ㄴ’ 소리가 덧나서 [니]로 발음된다고(표준 발음법 제29항) 설명할 수 있는데도 ‘간니’, ‘덧니’, ‘송곳니’로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기의 전통이 지속된 것은 ‘간이’, ‘덧이’, ‘송곳이’와 같이 적으면 [가니], [더시], [송:고시]와 같이 발음하여 [간니], [던니], [송:곤니]의 발음이 제대로 구사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이다. 그런 까닭에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로 적지만 합성어나 이에 준한 말에서는 ‘간니, 덧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등과 같이 적는다.

## 더 알아보기

### • ‘일’과 결합한 말의 발음

‘몇 일’로 적으면 [면닐]로 소리가 난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일(日)’이 결합하는 경우 [닐]로 소리 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닐]로 소리가 나는 것은 ‘일[事]’이 결합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칠 일(七日)’은 [치릴]로 소리가 나지만 ‘칠일(칠을 바르는 일)’은 [칠닐]을 거쳐 [칠릴]로 소리가 난다.

###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다달이(달-달-이)	따님(딸-님)	마되(말-되)
마소(말-소)	무자위(물-자위)	바느질(바늘-질)
부삽(불-삽)	부손(불-손)	싸전(쌀-전)
여달이(열-달이)	우짚다(울-짚다)	화살(활-살)

‘ㄹ’ 받침을 가진 말이 합성어나 파생어를 형성할 때 ‘ㄹ’ 받침이 발음되지 않게 바뀐 경우에는 바뀐 대로 적는다. 역사적으로 ‘ㄹ’은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아래 단어도 그러한 예이다.

나날이(← 날+날+-이)	무논(← 물+논)	무쇠(← 물+쇠)
부넙기(← 불+넙+-기)	아드님(← 아들+-님)	차돌(← 찰+-돌)

또한, 한자 ‘불(不)’이 첫소리 ‘ㄷ, ㅈ’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바뀐 대로 적는다. 이러한 경우도 사전에서 구체적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부당(不當), 부동(不同, 不凍, 不動), 부득이(不得已), 부등(不等), 부정(不正, 不貞, 不定), 부조리(不條理), 부주의(不注意) ……

###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반진고리(바느질~)	사흘날(사흘~)	삼진날(삼질~)
선달(설~)	순가락(술~)	이틀날(이틀~)
잠주름(잠~)	푼소(풀~)	섬부르다(설~)
잠다듬다(잠~)	잠다랗다(잠~)	

이 조항은 역사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튿날’은 ‘이틀’과 ‘날’이 결합한 것인데, 이때 ‘이튿날’이 아니라 ‘이툷날’로 적는다는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이틀’과 ‘날’의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쓴 ‘이툷날’이다. 이와 함께 ‘ㄹ’이 탈락한 ‘이툷날’도 나타난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튿날’은 바로 ‘이툷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틀+날 → 이툷날 → 이툷날 → 이툷날

‘나흘날’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나흘+날 → 나흘날 → 나흘날 → 나흘날

이 외에 다음과 같은 말도 끝소리 ‘ㄹ’이 ‘ㄷ’ 소리로 변한 것을 반영하여 ‘ㄷ’으로 적는다.

잔갈다(← 잘갈다)      잔갈리다(← 잘갈리다)  
 잔널다(← 잘널다)      잔타다(← 잘타다)

###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긋밥	나룻배	나뭇가지	넋가
덧가지	뒷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뱃길	뱃가리	부싷돌
선짓국	씻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챗더미	조갯살	찻집	첻바퀴	킷값
핏대	헛별	헛바늘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넛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깻묵	넛물	빗물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깻열	뒷웃	두렛일	뒷일	뒷입맛
베깻잎	웃잎	깻잎	나뭇잎	땃잎

####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긋병	머릿방	뱃병	붓둑	사짓밥
샛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춧국	긋병	땃줄	땃세
핏기	헛수	헛가루	헛배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겻날            제삿날            훗날            툇마루            양칫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툇간(退間)      횡수(回數)

이 조항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합성어가 아닌 단일어나 파생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님’은 명사 ‘해’에 접미사 ‘-님’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헛님’이 아닌 ‘해님’이 된다. 이와는 달리 합성어 ‘햇빛’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둘째, 합성어이면서 다음과 같은 음운론적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바다+가→[바다까]→바닷가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코+날→[콘날]→콧날

비+물→[빈물]→빗물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예사+일→[예:산닐]→예삿일

예를 들어 ‘위’는 ‘길, 물’과 결합할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윗길, 윗물’이 되지만 ‘턱, 쪽’과 결합할 때는 ‘위턱, 위쪽’으로 쓴다.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넷줄[그네쫄/그넌쫄]’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데 비해 ‘가로줄[가로쫄]’, ‘세로줄[세:로쫄]’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셋째, 이 두 가지 요건과 더불어 합성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이어야 하고 구성 요소 중에 외래어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덧붙는다. 예를 들어 ‘개수(個數)’, ‘초점(焦點)’,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은 ‘갯수’, ‘촛점’, ‘기차간’, ‘전세방’으로 잘못 쓰는 일이 많지만 여기에는 고유어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오렌지빛, 피자집’과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피자’라는 외래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아래의 예들은 조항에 따라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예들이다.

- 값: 절댓값[절때값/절뻔값], 덩치값[덩치값/덩친값], 짓값[좌:값/췌:값]
- 길: 등굣길[등교꺄/등곶꺄], 혼삿길[혼사꺄/혼산꺄], 고갯길[고개꺄/고꺄꺄]
- 집: 맥줏집[맥쫄집/맥쫄집], 횃집[화:집/췌:집], 부잣집[부:자집/부:자집]
- 빛: 장밋빛[장미뻔/장민뻔], 보랏빛[보라뻔/보란뻔] 햇빛[해뻔/햐뻔]
- 말: 혼잣말[혼잔말], 시쳇말[시첸말], 노랫말[노랜말]
- 국: 만둣국[만두꺄/만둔꺄], 고깃국[고기꺄/고꺄꺄], 북엇국[부거꺄/부꺄꺄]

한자어에는 규정에서 제시한 두 음절 단어 6개에만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그 외의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외과(外科)    이비인후과(耳鼻咽喉科)    국어과(國語科)    장미과(薔薇科)

‘장미과’와 마찬가지로 생물 분류학상의 단위인 ‘과(科)’가 결합한 말이라도, 앞에

고유어가 오는 ‘고양잇과’, ‘소나무과’와 같은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고유어 ‘고양이, 소나무’와 한자어 ‘과’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는 것이다.

고양잇과[고양이과/고양인과]	멸치과[멸치과/멸친과]
소나무과[소나무과/소나무과]	가짓과[가지과/가진과]

**더 알아보기**

• ‘차’의 사이시옷 표기

‘차’가 한자어이면 ‘차잔, 차종, 차주전자’는 ‘茶盞, 茶鍾, 茶酒煎子’와 같은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차’를 고유어라고 하면 ‘고유어+한자어’ 구성이므로 사이시옷을 넣어야 한다. 현재는 ‘차’를 고유어로 보고 있으므로 ‘차잔, 차종, 차주전자’와 같이 적는다.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덥싸리(대ㅂ싸리)	몹쌀(메ㅂ쌀)	볍씨(벼ㅂ씨)
입때(이ㅂ때)	입쌀(이ㅂ쌀)	접때(저ㅂ때)
좁쌀(조ㅂ쌀)	햅쌀(해ㅂ쌀)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코기(살ㅎ고기)	수캐(수ㅎ개)
수컷(수ㅎ컷)	수탉(수ㅎ닭)	안팍(안ㅎ팍)
암캐(암ㅎ개)	암컷(암ㅎ컷)	암탉(암ㅎ닭)

단어가 형성될 때 ‘ㅂ’이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벼’와 ‘씨’가 결합하면 [벼씨]가 아니라 [볍씨]가 된다. 이런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볍씨’로 적는다. 또한 ‘살’과 ‘고기’가 결합할 때 [살고기]가 아니라 [살코기]가 되는데 이때도 소리 나는 대로 ‘살코기’로 적는다.

이처럼 ‘ㅂ’이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앞말에 ‘ㅂ’ 소리가 덧나게 하는 ‘짜리, 쌀, 씨, 때’ 등은 옛말에서 ‘ㅂ리, ㅂ, ㅂ, ㅂ’와 같이 단어 첫머리에 ‘ㅂ’을 가지고 있었던 말이었다. 이들은 후에 단일어에서 모두 ‘ㅂ’이 탈락되었는데 합성어에서는 ‘ㅂ’이 탈락되지 않고 남게 된 것이다. 즉 ‘볍씨’는 현대에 ‘벼+씨’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씨’가 ‘ㅂ’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형성된 합성어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ㅎ’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살’, ‘수’ 등은 본래 ‘살ㅎ’, ‘수ㅎ’와 같이 ‘ㅎ’을 지닌 말이었고, 이 ‘ㅎ’이 단일어에서는 탈락하였지만 복합어에서는 일부 남게 된 것이다. 즉 ‘살코기’는 현대에 ‘살+고기’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살’이 ‘ㅎ’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형성된 합성어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아래의 예들도 ‘ㅂ’과 ‘ㅎ’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들이다.

넙뜨다, 부릅뜨다, 칩떠보다, 힙싸다, 힙쓸다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다만, ‘수[雉]-’가 붙은 말이 모두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아니다. 표준어 규정 제7항에는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없는 ‘수고양이’ 등은 ‘수코양이’로 적지 않는다. ‘암[雉]-’이 붙은 말 중에서도 ‘ㅎ’ 소리가 덧나는 ‘암강아지, 암캐, 암컷’ 등은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암고양이’ 등은 ‘암코양이’로 적지 않는다.

## 제5절 준말

###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본말)

기러기야

어제그저께

어제저녁

가지고, 가지지

디디고, 디디지

(준말)

기력아

엇그저께

엇저녁

갖고, 갖지

덜고, 덜지

음절 수가 많은 ‘본말’에서 음절 수가 적은 ‘준말’이 형성될 때 어근이나 어간에서 끝음절의 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은 경우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어제저녁’이 줄어들어 [얼쩌녁]이 될 때 둘째 음절 ‘제’에서 남은 ‘ㄷ’을 첫째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는 뜻이다.

어제-저녁 → [얼쩌녁] → 엇저녁

디디-고 → [덜꼬] → 덜고

‘어제저녁’의 준말 [얼쩌녁]을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얼저녁’ 또는 ‘엇저녁’이 되지만 ‘어제저녁’과의 형태적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엇저녁’으로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디디고’의 준말을 ‘덜고’로, ‘가지고’의 준말을 ‘갖고’로, ‘가지가지’의 준말을 ‘갖가지’로 적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어제그저께/엇그저께’, ‘디디고/덜고’처럼 줄어드는 음절의 첫소리 자음이 받침으로 남는 것과는 달리 줄어드는 음절의 받침소리가 받침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

어긋-매끼다 → 엇매끼다

바깥-벽 → 발벽

바깥-사돈 → 발사돈

###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그것은	그건
그것이	그게
그것으로	그걸로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무엇을	뭇을/무얼/뭇
무엇이	뭇이/무에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음절의 수가 줄어들면 준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구어에서 ‘사과는’과 ‘사과를’이 ‘사관’과 ‘사괘’로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또한 ‘그것’, ‘이것’, ‘저것’에 조사 ‘으로’가 붙어서 줄어들 때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줄어든다.

그것으로 → 그걸로                      이것으로 → 이걸로

저것으로 → 저걸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외에 부사에 조사가 결합할 때에도 말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에도 줄어들면 준 대로 적는다.



그리로 → 글로

이리로 → 일로

저리로 → 절로

조리로 → 줄로

### 제34항

모음 ‘ㅈ, ㅊ’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아	가	가았다	갔다
나아	나	나았다	났다
타아	타	타았다	탸다
서어	서	서었다	섰다
켜어	켜	켜었다	켰다
펴어	펴	펴었다	폸다

[붙임 1] ‘ㄱ, ㅋ’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개어	개	개었다	갸다
내어	내	내었다	노다
베어	베	베었다	뵸다
세어	세	세었다	셸다

[붙임 2] ‘하어’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하어	해	하였다	혔다
더하어	더해	더하였다	더혔다
흔하어	흔해	흔하였다	흔혔다

국어에서는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한 모음으로 줄어드는 일이 있다.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은 필수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먼저, 모음 ‘ㅏ, ㅑ’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 ‘-았-/-었-’이 결합할 때는 ‘ㅏ/ㅑ’가 줄어든다.

따--ㅏ→따	따--ㅑ→따	따--ㅏ-ㅑ→따	따--ㅑ-ㅑ→따
건너--ㅏ-ㅑ→건너도	건너--ㅑ-ㅑ→건너도	건너--ㅏ-ㅑ-ㅑ→건너	건너--ㅑ-ㅑ-ㅑ→건너

이 경우에는 두 모음이 반드시 하나로 줄어든다. 따라서 조항에서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한 것은 항상 줄어든 형태로 적는다는 뜻이다. 즉 ‘따아, 따아서, 따아도, 따았다’나 ‘건너어, 건너어서, 건너어도, 건너었다’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ㅏ’ 불규칙 용언의 어간에서 ‘ㅏ’이 줄어든 경우에는 원래 자음이 있었으므로 ‘ㅏ/ㅑ’가 줄어들지 않는다.

낫다: 나아, 나아서, 나아도, 나아야, 나았다  
 져다: 저어, 저어서, 저어도, 저어야, 저었다

**[붙임 1]** 어간 끝모음 ‘ㅏ, ㅑ’ 뒤에 ‘-어, -었-’이 결합할 때도 모음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조항에서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한 것은 줄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며, 따라서 줄어든 경우에만 준 대로 적는다. 즉, ‘가아→가’에서 ‘가’만을 인정한 것과 달리 ‘매어→매’에서는 ‘매어/매’를 모두 쓸 수 있다.

매어→매	매어라→매라
매었다→맸다	매어 두다→매 두다
떼어→떼	떼어라→떼라
떼었다→뺐다	떼어 놓다→떼 놓다

한편 모음이 줄어들어서 ‘ㅈ’가 된 경우에는 ‘-어’가 결합하더라도 다시 줄어들지는 않는다.

옷감이 빈틈없이 짜어(○)/짜(×)(← 짜이어) 있다.

도로가 이곳저곳 패어(○)/패(×)(← 파이어) 있다.

[붙임 2] ‘하다’의 활용형 ‘하여’가 ‘해’로 줄어들 경우 준 대로 적는다. 이때도 ‘하여’와 ‘해’ 모두 쓸 수 있다.

하여 → 해

하여라 → 해라

하여서 → 해서

하였다 → 했다

### 제35항

모음 ‘ㄱ, ㄴ’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ㅅ/ㅆ, ㅅ/ㅆ’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꼬아	꽂	꼬았다	꿨다
보아	봌	보았다	봬다
쏘아	쑈	쏘았다	쑤다
두어	뒌	두었다	뒸다
쑤어	쑤	쑤었다	쑤다
주어	쑤	주었다	쑤다

[붙임 1] ‘놓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ㅅ’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ㅅ, ㅆ’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괴어	괘	괴었다	괘다
되어	돼	되었다	됐다
뵈어	뵘	뵈었다	뵘다
쇠어	쇄	쇠었다	췌다
씩어	씩	씩었다	췌다

모음 ‘ㄱ, ㄷ’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어’, ‘-았-/-었-’이 붙어서 ‘과/거’, ‘났/졌’으로 주는 것은 ‘과/거’, ‘났/졌’으로 적는다.

보아→봐      보아도→봐도      보아서→봐서      보았다→봤다  
 추어→취      추어서→취서      추어야→취야      추었다→췌다

이때에도 줄어든 형태와 줄어들지 않은 형태를 모두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밖을 보아라.”와 “밖을 봐라.”는 둘 다 옳은 표현이다. 다만 ‘오다’는 ‘-아’ 계열 어미가 결합하여 ‘오아, 오아라, 오았다’ 등과 같이 줄어들지 않은 형태로 쓰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와, 와라, 왔다’처럼 줄어든 형태만 인정한다.

[붙임 1] ‘놓다’는 ‘-아’와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줄어들 수 있다.

놓아(→노아)→놉  
 놓아라(→노아라)→놉라  
 놓았다(→노았다)→놉다

‘놓아→놉’가 되는 것은 ‘놓아→좌’가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붙임 2] 어간 모음 ‘ㅁ’ 뒤에 ‘-어’가 결합하여 ‘ㅁ’로 줄어드는 경우, ‘ㅁ’로 적는다.  
예를 들어 ‘되다’와 ‘뵈다’는 다음과 같이 쓰인다.

- 되다      모든 게 생각대로 돼(← 되어) 간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되어서) 반갑다.  
             어느덧 가을이 됐다(← 되었다).
- 뵈다      오랜만에 선생님을 뵈서(← 뵈어서) 기뻐다.  
             그럼 내일 함께 선생님을 뵈요(← 뵈어요).  
             어제 부모님을 뵈다(← 뵈었다).

이 밖에 ‘피다, 외다, 죄다, 쪼다’와 ‘되뇌다, 사뵈다, 선뵈다, 아뢰다, 앓되다, 참되다’ 등도 여기에 해당해서, ‘-어/-었-’이 결합하면 ‘꽤/췌다, 췌/췌다, 되네/되냈다, 사뵈/사뵈다’ 등과 같이 줄여서 쓸 수 있다.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ㅁ’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지어	가져	가지었다	가졌다
견디어	견더	견디었다	견뎠다
다니어	다녀	다니었다	다녔다
막히어	막혀	막히었다	막혔다
버티어	버터	버티었다	버텼다
치이어	치여	치이었다	치였다

‘ㅣ’로 끝나는 어간에 ‘-어’가 붙어서 ‘ㅁ’로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녹이어 → 녹여	먹이어서 → 먹여서	숙이었다 → 숙였다
업히어 → 업혀	입히어서 → 입혀서	잡히었다 → 잡혔다
굽기어 → 굽겨	남기어야 → 남겨야	옮기었다 → 옮겼다
굴리어 → 굴려	날리어야 → 날려야	돌리었다 → 돌렸다
일으키어 → 일으켜	돌이키어 → 돌이켜	

‘가지어 → 가져’, ‘(짐을) 지어 → 져’의 ‘져’는 [저]로 소리가 나지만 ‘가지-어’, ‘지-어’와의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가져’, ‘져’로 적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치어 → 다쳐’, ‘(손뺌을) 치어 → 쳐’의 ‘쳐’도 [저]로 소리 나지만 ‘다치-어’, ‘치-어’와의 연관성이 나타나도록 ‘다쳐’, ‘쳐’로 적는다.

### 제37항

‘ㅏ, ㅑ, ㅓ, ㅕ,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ㅘ, ㅙ, ㅚ, ㅜ, ㅡ’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다	싸다	누이다	늬다
펼이다	펼다	뜨이다	띄다
보이다	봘다	쓰이다	씌다

어간 끝모음 ‘ㅏ, ㅑ, ㅓ, ㅕ, ㅡ’ 뒤에 ‘-이-’가 결합하여 ‘ㅘ, ㅙ, ㅚ, ㅜ, ㅡ’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ㅘ, ㅙ, ㅚ, ㅜ, ㅡ’로 적는다. 이때 줄어든 형태와 줄어들지 않은 형태 모두 옳은 표기이다.

까이다 → 깨다	차이다 → 채다	모이다 → 뫼다
쏘이다 → 쐈다	꾸이다 → 꺼다	트이다 → 띄다

한편 ‘-스럽다’로 끝나는 형용사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붙어서 ‘-스레’가 되는 경우에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

새삼스레(← 새삼스럽--+이)

천연스레(← 천연스럽--+이)

### 제38항

‘ㅏ, ㅑ, ㅓ, ㅕ’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어	싸어 싸여	뜨이어	뜨어
보이어	뵤어 보여	쓰이어	쓰어 쓰여
쏘이어	썩어 쏘여	트이어	터어 트여
누이어	늪어 누여		

‘ㅏ, ㅑ, ㅓ, ㅕ’로 끝난 어간 뒤에 ‘-이어’가 결합하여 모음이 줄어든 때는 준 대로 적는다. 이때에는 ‘ㅏ, ㅑ, ㅓ, ㅕ’와 ‘-이어’의 ‘이’가 하나의 음절로 줄어 ‘ㅐ, ㅑ, ㅓ, ㅕ’가 될 수도 있고, ‘-이어’가 하나의 음절로 줄어 ‘-여’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짜다’의 어간에 ‘-이어’가 결합한 ‘싸이어’는 ‘싸어’가 되기도 하고 ‘싸여’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 속하는 예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까이어 → 깨어/까여	꼬이어 → 꺾어/꼬여
누이어 → 늪어/누여	뜨이어 → 띄어/뜨여
쓰이어 → 씩어/쓰여	트이어 → 터어/트여

• ‘띄어쓰기’ 표기

‘띄다’는 본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뜨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띄우다’이다. ‘뜨이다’는 ‘뜨다’의 피동사로, ‘눈이 뜨이다’, ‘귀가 뜨이다’와 같이 사용된다. 그리고 ‘뜨이다’는 ‘뜨여’로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다. 반면 ‘띄우다’는 ‘뜨다’의 사동사로, 공간이 생기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책상 사이를 띄우다’, ‘단어 사이를 띄우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차이로 볼 때, ‘띄어쓰기’에 나타난 ‘띄다’는 ‘띄우다’의 준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띄우다’는 ‘뜨여’로 줄여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뜨여쓰기, 뜨여 쓰다, 뜨여 놓다’로는 쓸 수 없다.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적지 않은	적잖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가지어’와 ‘그치어’의 준말을 ‘가져’와 ‘그쳐’로 적는 방식(한글 맞춤법 제36항)에 따르면 ‘-지 않-’과 ‘-치 않-’이 줄어든 말은 ‘잖’과 ‘찮’으로 적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한 단어로 굳어져 원형을 밝혀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잖’, ‘찮’으로 적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래의 예들은 국어사전에서 한 단어로 다루는 것들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

달갑잖다(← 달갑지 않다)	마뜩잖다(← 마뜩하지 않다)
시답잖다(← 시답지 않다)	오죽잖다(← 오죽하지 않다)
울곧잖다(← 울곧지 않다)	당찮다(← 당하지 않다)
편찮다(← 편하지 않다)	



그런데 ‘-지 않-’과 ‘-치 않-’이 줄어든 말이 한 단어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한 단어가 아니라고 해서 ‘잖, 찹’으로 달리 적으면 표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단어와 단어가 아닌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잖, 찹’으로 적도록 한다.

- 그렇잖다(← 그렇지 않다)
- 두렵잖다(← 두렵지 않다)
- 편안찮다(← 편안하지 않다)
- 허술찮다(← 허술하지 않다)

위의 예들은 한 단어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잖’, ‘찮’으로 적는다.

####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다정하다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	정결타
가하다	가타	흔하다	흔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아무렇다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렇든지
어떻다	어떻고	어떻지	어떻든지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이렇든지
저렇다	저렇고	저렇지	저렇든지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간편하게’가 [간편케]가 되면 ‘간편케’로 적는다. 그런데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드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하’가 통째로 줄지 않고 ‘ㅎ’이 남아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는 경우다. 이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무능하다 → 무능타	부지런하다 → 부지런타
아니하다 → 아니타	감탄하게 → 감탄케
달성하게 → 달성케	실망하게 → 실망케
당하지 → 당치	무심하지 → 무심치
허송하지 → 허송치	분발하도록 → 분발토록
실천하도록 → 실천토록	추진하도록 → 추진토록

결근하고자 → 결근코자                      달성하고자 → 달성코자  
 사임하고자 → 사임코자                      청하건대 → 청컨대  
 회상하건대 → 회상컨대

둘째, ‘하’가 통째로 줄어드는 경우다. 이때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생각하다 못해 → 생각다 못해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익숙하지 못하다 → 익숙지 못하다  
 갑갑하지 않다 → 갑갑지 않다 → 갑갑잖다  
 깨끗하지 않다 → 깨끗지 않다 → 깨끗잖다  
 넉넉하지 않다 → 넉넉지 않다 → 넉넉잖다

‘하’가 줄어드는 기준은 ‘하’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이다. ‘하’ 앞의 받침의 소리가 [ㄱ, ㄷ, ㅂ]이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경우에는 ‘ㅎ’이 남는다.

[ㄱ] 넉넉하지 않다 → 넉넉지 않다 → 넉넉잖다  
 [ㄷ] 깨끗하지 않다 → 깨끗지 않다 → 깨끗잖다  
 [ㅂ] 답답하지 않다 → 답답지 않다 → 답답잖다

[ㄴ] 결근하고자 → 결근코자  
 [ㄹ] 분발하도록 → 분발토록  
 [ㅁ] 무심하지 → 무심치  
 [ㅇ] 회상하건대 → 회상컨대  
 [모음] 개의하지 → 개의치

**[붙임 1]** 그런데 준말에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전통에 따라 받침으로 적는다.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및 ‘아니하다’

등이 줄어든 형태가 여기에 속한다.

아니하다 → 았다

그러하다 → 그렇다

아무리하다 → 아무렇다

어떠하다 → 어떻다

이러하다 → 이렇다

저러하다 → 저렇다

준말이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ㅎ’을 받침으로 적는다.

았다: 았게, 았고, 았지, 았든지, 았도록

이렇다: 이렇게, 이렇고, 이렇지, 이렇거나

[붙임 3] 어원적으로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온 것이라도 현재 부사로 굳어졌으면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사 ‘아무튼, 하여튼’은 ‘아뭇든, 하영든’으로 적지 않는다. 반대로 용언의 활용형 ‘이렇든, 저렇든, 그렇든’을 ‘이러튼, 저러튼, 그러튼’으로 적지 않는다. 한편 부사 ‘어떻든(어떻든 함께 가자)’은 형용사 ‘어떻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떠튼’으로 적지 않는다.

## 제1절 조사

##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제41항은 제2항의 예외 규정이다. 보통 조사는 단어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말은 조사가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붙을 때뿐만 아니라 조사가 둘 이상 연속되거나 어미 뒤에 붙을 때에도 그 앞말에 붙여 씀을 뜻한다.

조사의 연속:	학교에서처럼	나에게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이까지도
어미 뒤 조사:	말하면서까지도	사과하기는커녕
	먹을게요	놀라기보다는
	맑군그래	오는군요

##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의존 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자립 명사와 같은 명사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된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다.

먹을 음식이 없다. / 먹을 것이 없다.

좋은 사람이 많다. / 좋은 이가 많다.

그런데 의존 명사가 조사, 어미의 일부, 접미사 등과 형태가 같아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① ‘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지만, ‘쌀, 보리, 콩, 조, 기장 등을 오곡(五穀)이라 한다’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이때의 ‘들’은 의존 명사 ‘등(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뿐’이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를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하세요’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④ ‘만큼’이 ‘중학생이 고등학생만큼 잘 안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세 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⑥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의 ‘지’는 어미 ‘-(으)ㄴ지, -르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쓰지만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이와 비슷한 예로 ‘뭇’은 용언의 어간 뒤에 쓰일 때에는 어미이므로 ‘구름에 달이 흘러가듯’과 같이 앞말에 붙여 쓰지만,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일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그가 먹은 뭇’과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⑦ ‘차(次)’가 ‘인사차 들렀다, 사업차 외국에 나갔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 ‘목적’의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마침 가려던 차였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⑧ ‘판’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어를 이루므로 붙여 쓰지만 ‘바둑 두 판,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와 같이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복어 한 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① 의존 명사

나무 한 그루	고기 두 근	자동차 네 대
금 서 돈	토끼 두 마리	논 두 마지기
쌀 서 말	물 한 모금	밥 두어 술
종이 석 장	집 세 채	배 열세 척
밤 한 톨	김 네 톳	전화 한 통

② 자립 명사

국수 한 그릇	맥주 세 병	학생 한 사람
꽃 한 송이	흙 한 줌	풀 한 포기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

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

제7 항(원칙) / 제7항(허용)

제10 조(원칙) / 제10조(허용)



위의 예에서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이십칠 대(원칙) / 이십칠대(허용)      (제)오십팔 회(원칙) / 오십팔회(허용)  
(제)육십칠 번(원칙) / 육십칠번(허용)      (제)구십삼 차(원칙) / 구십삼차(허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구 사단(원칙) / 구사단(허용)      (제)1 연구실(원칙) / 1연구실(허용)  
(제)칠 연대(원칙) / 칠연대(허용)      (제)삼 층(원칙) / 삼층(허용)  
(제)16 통(원칙) / 16통(허용)      (제)274 번지(원칙) / 274번지(허용)

또 연월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는데, 이들은 ‘제-’가 붙지는 않지만 차례나 순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천십팔 년 오 월 이십 일(원칙) / 이천십팔년 오월 이십일(허용)  
여덟 시 오십구 분(원칙) / 여덟시 오십구분(허용)

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을 때에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의 명사는 자립 명사든 의존 명사든 상관없다. 이것은 붙여 쓰는 것이 가독성이 높아서 실제로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시간(원칙) / 2시간(허용)      2 음절(원칙) / 2음절(허용)  
20 병(원칙) / 20병(허용)      30 킬로미터(원칙) / 30킬로미터(허용)  
10 명(원칙) / 10명(허용)      2 학년(원칙) / 2학년(허용)

####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수의 한글 표기를 십진법 단위로 띄어 쓰도록 했다. 그러나 십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띄어 쓰게 되어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수를 읽을 때의 단위 구획과도 맞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백 단위, 천 단위의 띄어쓰기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 이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것이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정한 이 규정이다. 즉 읽을 때 만 단위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 ① 이백 삼십 육만 칠천 이백 구십 오(십 단위)
- ② 이백 삼십육만칠천 이백구십오(천 단위)
- ③ 이백삼십육만 칠천이백구십오(만 단위)

이는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적을 때도 마찬가지다.

- ④ 칠경 삼천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칠억 팔천구백이십칠만 육천삼백오십사  
7경 3243조 7867억 8927만 6354  
7경 3천2백4십3조 7천8백6십7억 8천9백2십7만 6천3백5십4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變造)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⑤ 일금: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

돈: 일백칠십육만오천원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b>겸</b> 과장	열 <b>내지</b> 스물	청군 <b>대</b> 백군
책상, 결상 <b>등</b> 이 있다	이사장 <b>및</b> 이사들	사과, 배, 귤 <b>등등</b>
사과, 배 <b>등속</b>	부산, 광주 <b>등지</b>	

① ‘겸(兼)’은 한 가지 일 밖에 또 다른 일을 아울러 함을 뜻하는 한자어로, ‘국장 겸 과장’과 같이 명사 사이에도 쓰이지만 ‘뽕도 따고 임도 볼 겸’처럼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구조로도 사용되므로 의존 명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아침 **겸** 점심                      강당 **겸** 체육관                      장관 **겸** 부총리

‘겸’은 관형사형 어미 ‘-(으)르’ 뒤에 쓰여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구경도 할 **겸** 물건도 살 **겸**

② ‘내지(乃至)’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쓰일 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 외에는 ‘또는’의 뜻으로도 쓰인다.

열 명 **내지** 스무 명                      천 원 **내지** 이천 원  
비가 올 확률은 50% **내지** 60%이다.  
산 **내지** 들에서만 자라는 식물

③ 아래와 같이 쓰이는 ‘대(對)’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한국 대 일본

남자 대 여자

5 대 3

반면 ‘같이 대를 이루다’나 ‘너희 둘은 좋은 대가 되는구나’와 같이 쓰이는 ‘대’는 자립 명사로 쓰인 것이다. 또한 ‘대-’가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대다수 명사 앞에 붙어서 ‘그것을 상대로 한’, ‘그것에 대항하는’의 뜻을 더할 경우에는 접두사로 쓰인 것이라 뒤에 오는 말에 붙여 쓴다.

대일(對日) 무역

대국민 담화

대중국 정책

④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이다.

원서 교부 및 접수

사과, 배 및 복숭아

이 밖에도 두 말을 이어 주는 말로서 둘 이상의 것 중 하나임을 나타내는 ‘또는, 혹은’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박 또는 참외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⑤ 사물을 열거할 때 쓰는 ‘등(等), 등등(等等), 등속(等屬), 등지(等地)’는 의존 명사로서 앞말과 띄어 쓴다.

ㄱ, ㄷ, ㅂ 등은 파열음에 속한다.

과자, 과일, 식혜 등등 먹을 것이 많다.

충주, 청주, 대전 등지로 돌아다녔다.

여러 개를 열거하지 않고 하나만 제시한 뒤에 ‘등’을 쓸 때에도 앞말과 띄어 쓴다.  
표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제시한 것 외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낸다.

지나친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킨다.

‘따위’도 앞말과 띄어 쓴다.

배추, 상추, 무 따위            너 따위가 감히…….

####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띄어쓰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을 읽는 이가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셋 이상)이 연속해서 나올 때 단어별로 띄어 쓰면 오히려 의미를 바르고 빠르게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붙여 쓸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좀 더 큰 이 새 차(원칙) / 좀더 큰 이 새차(허용)

내 것 네 것(원칙) / 내것 네것(허용)

물 한 병(원칙) / 물 한병(허용)

그 옛 차(원칙) / 그 옛차(허용)

그러나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원칙이 있기에 과도하게 붙여 쓰기는 어렵다. 두 개의 음절은 붙일 수 있지만, 세 개 이상의 음절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좀더 큰 이 새차(○) / 좀더큰 이새차(×)

내것 네것(○) / 내것네것(×)

물 한병(○) / 물한병(×)

또한 연속되는 단음절어를 붙여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단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붙여야 한다. 가령, ‘물 한 병’을 ‘물 한병’이라고는 쓸 수 있어도 ‘물한 병’이라고 쓸 수는 없다. ‘물’과 ‘한’이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질 때에만 붙여 쓸 수 있다.

더 못 가.(○) / 더못 가.(×)

잘 안 와.(○) / 잘안 와.(×)

늘 더 자.(○) / 늘더 자.(×)

위의 예에서 ‘못, 안, 더’는 각각 뒷말 ‘가, 와, 자’를 먼저 꾸미는 것이어서 앞말과 묶이기 어렵다. ‘좀 더 봐’를 ‘좀더 봐’로 쓸 수 있는 것과 달리 위의 ‘늘 더 자’는 ‘늘더 자’로 붙여 쓸 수 없다. 이는 ‘좀’이 ‘더’를 먼저 꾸미는 것과는 달리 ‘늘’은 하나로 묶인 ‘더 자’를 꾸미기 때문이다.

### 제3절 보조 용언

####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내!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보조 용언도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고 아예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조항에서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실례를 들어 보여 주고 있다.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 (1)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구성  
 (사과를) 먹어 보았다. / 먹어보았다.
- (2) ‘관형사형+보조 용언(의존 명사+-하다/싶다)’ 구성  
 아는 체하다. / 아는체하다.

규정에서 제시한 예가 모두 이 두 가지 구성 중 하나이고 이러한 구성의 합성어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구성은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였다.

이 외에 특이한 형태로 ‘명사형+보조 용언’ 구성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보조 용언은 ‘직하다’ 한 가지이며, ‘먹었음 직하다’와 같이 쓰인다. 이것은 위의 두 유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먹었음직하다’와 같이 붙여 쓴 형태가 매우 자연스러우므로 역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조 용언은 앞말과 띄어 쓰고 붙여 쓰지 않는다. 보조 용언 앞에 ‘-(으)ㄴ가, -나, -는가, -(으)르까, -지’ 등의 종결 어미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 용언을 그 앞말에 붙여 쓸 수 없다.

- (3) ㄱ. 책상이 작은가 싶다.  
 ㄴ. 그가 밥을 먹나 보다.  
 ㄷ. 집에 갈까 보다.  
 ㄹ. 아무래도 힘들겠지 싶었다.

규정의 용례에 ‘드리다’가 결합한 예로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가 제시되어 있다. ‘도와 드린다’가 원칙, ‘도와드리다’가 허용으로 되어 있는데, ‘도와주다’가 사전에 올라 있으므로 ‘도와드리다’도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도와드리다’는 항상 붙여 쓰면 된다.

반대로 아래와 같이 ‘-아/-어 지다’와 ‘-아/-어 하다’가 붙는 경우는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쓴다. ‘지다’와 ‘하다’ 둘 다 보조 용언으로 다루어지기는 하나, ‘-아/-어 지다’가 붙어서 타동사나 형용사가 자동사처럼 쓰이고 ‘-아/-어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타동사처럼 쓰인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붙여 쓴다.



(4) ㄱ. 낙서를 지운다. → 낙서가 지워진다.

ㄴ. 아기가 예쁘다. → 아기를 예뻐한다.

‘낙서가 지워진다’나 ‘아기를 예뻐 한다’와 같이 띄어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고, ‘낙서가 지워진다’와 ‘아기를 예뻐한다’로 붙여 써야 한다.

다만, ‘-아/-어 하다’가 구(句)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띄어 쓴다. 아래에 보인 ‘-아/-어 하다’는 ‘먹고 싶다’, ‘마음에 들다’, ‘내키지 않다’라는 구에 결합한 것이다. 이런 경우 ‘-아/-어 하다’를 뒷말에 붙여 쓰면, 구 전체에 ‘-아/-어 하다’가 결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 따라서 이처럼 구에 결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띄어서 쓴다.

먹고 싶어 하다.(○) / 먹고 싶어하다.(×)

마음에 들어 하다.(○) / 마음에 들어하다.(×)

내키지 않아 하다.(○) / 내키지 않아하다.(×)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 단어가 합성 용언인 경우는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또한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을 때에도 붙여 쓰지 않는다.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에는 ‘덤벼들어보아라, 떠내려가버렸다’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는 보조 용언 구성이 아니라 의존 명사와 용언의 구성이므로 붙여 쓸 수 없다.

직접 먹어도 보았다.(○) / 직접 먹어도보았다.(×)

읽어는 보았다.(○) / 읽어는보았다.(×)

쫓아내 버렸다.(○) / 쫓아내버렸다.(×)

매달아 놓는다.(○) / 매달아놓는다.(×)

집어넣어 둔다.(○) / 집어넣어둔다.(×)

파고들어 본다.(○) / 파고들어본다.(×)

공부해 보아라.(○) / 공부해보아라.(×)

입은 체를 한다.(○) / 입은체를한다.(×)

비가 올 듯도 하다.(○) / 비가 올듯도하다.(×)

겨를 만든 하다.(○) / 겨를만은하다.(×)

다만,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에는 붙여 쓴 말이 너무 긴 것은 아니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

나가 버렸다. / 나가버렸다.

빛내 준다. / 빛내준다.

구해 본다. / 구해본다.

더해 줬다. / 더해줬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보조 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적어 둘 만하다. / 적어둘 만하다.

읽어 볼 만하다. / 읽어볼 만하다.

되어 가는 듯하다. / 되어가는 듯하다.

##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총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역/남궁 역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우리나라의 성(姓)과 이름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이름을 띄어 써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과 이름은 개별적인 단어이면서 하나의 고유 명사이기도 해서,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은 거의 한 음절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한 것이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형식도 이에 준한다.

홍길동

전시내(全--)

정송강

이충무공

이퇴계

김매월당

그러나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는 띄어 쓸 수 있다. 예컨대 ‘남궁수, 황보영’ 같은 성명은 ‘남-궁수, 황-보영’인지 ‘남궁-수, 황보-영’인지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정의 예에서는 ‘남궁, 독고, 황보’와 같이 두 글자 성만을 보였으나, 성과 이름의 경계가 혼동될 여지가 있으면 한 글자 성도 띄어 쓸 수 있다.

선우진 / 선우 진(‘선우’씨인 ‘진’) / 선 우진(‘선’씨인 ‘우진’)

한편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 등은 고유 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홍길동 씨	홍 씨	길동 씨
김철수 군	김 군	철수 군
박선영 양	박 양	선영 양
김선숙 옹	김 옹	
민수철 교수	민 교수	
총장 정영수 박사	울곡 이이	백범 김구
사 사장(史社長)	여 여사(呂女史)	황희 정승

우리 한자음으로 적는 중국 인명에도 이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조맹부(趙孟頫)	소식(蘇軾)	왕희지(王羲之)
----------	--------	----------

####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예를 들어 띄어쓰기의 원칙에 따라 ‘국립 중앙 박물관’을 단어별로 띄어 쓰면 ‘국립’, ‘중앙’, ‘박물관’의 세 단어가 각각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고유 명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의 구조적인 묶음을 뜻한다. 단위별로 띄어 쓰는 것이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단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성 요소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단어별로 띄어 쓴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보다는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각각의 단위로 파악하여 띄어 쓴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단위’의 설정은 직관상 자연스러운 띄어쓰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국어의 의미 해석에 어긋나는 띄어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 국립 국어원 기획 연수부 기획 운영과

(허용)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 기획운영과

(불가) 국립 국어원기획 연수부기획 운영과 등

(원칙) 한국 방송 공사 경영 기획 본부 경영 평가실 경영 평가 분석부

(허용)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경영평가분석부

(불가) 한국방송공사경영 기획본부 경영평가실경영평가분석부 등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혹은 ‘명사+조사+명사’ 형식으로 된 고유 명사도 붙여 쓸 수 있다.

즐거운 노래방 / 즐거운노래방

부부의 날 / 부부의날

‘부설(附設), 부속(附屬), 직속(直屬), 산하(傘下)’ 따위는 고유 명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앞뒤의 말과 띄어 쓴다.

(원칙) 한국 해양 과학 기술원 부설 극지 연구소

(허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다만, ‘부속 학교, 부속 초등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학교, 부속 병원’과 같이 교육 기관 등에 딸린 학교나 병원은 하나의 단위로 다루어 붙여 쓸 수 있다.

(원칙) 한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허용)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한편 고유 명사 가운데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졌어도 띄어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산 이름, 강 이름, 산맥 이름, 평야 이름, 고원 이름 등은 굳어진 지명이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이들은 합성어로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북한산, 에베레스트산

영산강, 미시시피강

소백산맥, 알프스산맥

나주평야, 화베이평야

개마고원, 티베트고원

###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ㄴ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탄도유도탄

전문 용어란 학술 용어나 기술 용어와 같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쓰이는 용어를 말한다. 이러한 전문 용어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졌더라도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붙여 쓸 만하다. 그렇지만 전문 용어는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의미 파악이 쉽도록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상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의 예들은 모두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전문 용어이다.

원칙	허용
무역 수지	무역수지
음운 변화	음운변화
상대성 이론	상대성이론
국제 음성 기호	국제음성기호
긴급 재정 처분	긴급재정처분
무한 책임 사원	무한책임사원
배당 준비 적립금	배당준비적립금
후천 면역 결핍증	후천면역결핍증
지구 중심설	지구중심설
탄소 동화 작용	탄소동화작용
해양성 기후	해양성기후
무릎 대어 돌리기	무릎대어돌리기

전문 용어를 확인하려면 국어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어사전에 모든 전문 용어를 실을 수는 없으므로, 국어사전에 실린 전문 용어와 유사한 전문 용어는 등재된 말에 준해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릎 구부려 서기’는 국어사전에 실려 있지 않지만,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무릎 대어 돌리기’와 유사한 체육의 동작이므로 ‘무릎구부려서기’와 같이 붙여 쓸 수 있다.

한편 전문 용어 가운데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띄어 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자로 된 고전 책명은 띄어 쓰지 않는다. 이들은 합성어로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거나, 구(句)라고 하더라도 띄어 쓰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의 고전 또는 현대 책명이나 작품명은 구와 문장 형식인 경우 단어별로 띄어 쓴다.

분류두공부시언해, 동국신속삼강행실도, 번역소학(한문 고전 책명)  
베니스의 상인(서양의 고전 작품명)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현대의 책명)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서양의 현대 작품명)

관형사형이 체언을 꾸며 주는 구조,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의 전문 용어도 붙여 쓸 수 있다.

따뜻한 구름 / 따뜻한구름  
강조의 허위 / 강조의허위

한편 두 개 이상의 전문 용어가 접속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문 용어 단위로 붙여 쓸 수 있다.

자음 동화와 모음 동화 / 자음동화와 모음동화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1. ‘이’로만 나는 것

가뵃이	깨끗이	나뵃이	느긋이	등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적이	헛되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 3.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이 조항은 부사의 끝음절 발음에 따라서 ‘-이’나 ‘-히’로 표기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사 중에는 끝음절이 [이]로 소리 나기도 하고 [히]로 소리 나기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부사는 끝음절을 ‘히’로 적기로 하였다.

부사의 끝음절이 [이]로 나는지 [히]로 나는지를 직관적으로 명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참조하여 구별할 수는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어마다 국어사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이’로 적는 것

① 겹쳐 쓰인 명사 뒤

겹겹이	골골살살이	곳곳이	길길이
나날이	날날이	다달이	땀땀이
뭉뭉이	번번이	살살이	알알이
앞앞이	줄줄이	짹짹이	철철이

② ‘ㅅ’ 받침 뒤

기웃이	나긋나긋이	남짓이	뜨뜻이
버젓이	번듯이	빠듯이	지긋이

③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가벼이	괴로이	기꺼이	너그러이
부드러이	새로이	쉬이	외로이
즐거이			

④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같이	굳이	깊이	깊이
높이	많이	실없이	헛되이

⑤ 부사 뒤(한글 맞춤법 제25항 2 참조)

꼼꼼이	더욱이	생긱이	오뚝이
일찍이	히죽이		

(2) ‘히’로 적는 것

① ‘-하다’가 붙는 어근 뒤(단, ‘ㅅ’ 받침 제외)

간편히	고요히	공평히	과감히
극히	급히	급급히	꼼꼼히
나른히	능히	답답히	딱히
속히	엄격히	정확히	족히

②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결합하여 된 부사에서 온 말

익히(←익숙히)                      특히(←특별히)

③ 어원적으로는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 부사화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 되더라도, 그 어근 형태소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단어의 경우는 익어진 발음 형태대로 ‘히’로 적는다.

작히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본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만난(萬難)

안녕(安寧)

분노(忿怒)

**(속음으로 나는 것)**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곤란(困難), 논란(論難)

의령(宜寧), 회령(會寧)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	의논(議論)
오륙십(五六十)	오뉴월,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속음’은 원래의 음(본음)이 변하여 널리 퍼진 음을 말한다. 이러한 소리는 현실적으로 널리 쓰이는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하나의 한자가 단어에 따라 본음과 속음으로 달리 소리 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제공(提供), 제기(提起) / 보리(菩提), 보리수(菩提樹)
- 도장(道場)(무예를 닦는 곳) / 도량(道場)(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
- 공포(公布) / 보시(布施), 보싯돈(布施-)
- 자택(自宅) / 본택(本宅), 시택(媳宅), 택내(宅內)
- 단심(丹心), 단풍(丹楓) / 모란(牧丹)
- 동굴(洞窟), 동네(洞-) / 통찰(洞察), 통촉(洞燭)
- 당분(糖分), 혈당(血糖) / 사탕(砂糖), 설탕(雪糖), 탕수육(糖水肉)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으)르거나	-(으)르꺼나
-(으)르걸	-(으)르꼴

-(으)르게	-(으)르게
-(으)르세	-(으)르세
-(으)르세라	-(으)르세라
-(으)르수록	-(으)르수록
-(으)르시	-(으)르씨
-(으)르지	-(으)르찌
-(으)르지니라	-(으)르찌니라
-(으)르지라도	-(으)르찌라도
-(으)르지어다	-(으)르찌어다
-(으)르지언정	-(으)르찌언정
-(으)르진대	-(으)르찐대
-(으)르진저	-(으)르찐저
-올시다	-올씨다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으)르까?	-(으)르꼬?	-(스)버니까?
-(으)리까?	-(으)르쏘냐?	

‘르’로 시작하는 어미는 된소리로 소리가 나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

-르지	-르수록	-르사
-르세라	-르시고	-르진대

‘르’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르까                      오늘 어디 갈까?

-르갑쇼	점심상 보아 올릴갑쇼?
-르꼬	집도 없이 나는 어디로 갈꼬?
-르쏘냐	내가 너에게 질쏘냐?
-르쏜가	내 마음 아실 이 누구일쏜가?

이 밖에 ‘-르거나, -르걸, -르계’ 등은 ‘-르꺼나, -르꼴, -르께’ 등으로 적지 않는다.

###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심부름꾼	심부름꾼	귀때기	꿇대기
익살꾼	익살꾼	볼때기	볼대기
일꾼	일꾼	판자때기	판잣대기
장꾼	장꾼	뒤꿈치	뒗꿈치
장난꾼	장난꾼	팔꿈치	팔꿈치
지게꾼	지겟꾼	이마뼈기	이맛배기
때갈	땃갈	코뼈기	콧배기
빛갈	빛갈	객쩍다	객적다
성갈	성갈	겸연쩍다	겸연적다

(1) ‘-꾼/-균’은 ‘꾼’으로 통일하여 적는다.

구경꾼	나무꾼	낚시꾼	난봉꾼
노름꾼	농사꾼	누리꾼	도굴꾼
도망꾼	도박꾼	막노동꾼	말썰꾼
머슴꾼	밀렵꾼	밀수꾼	방해꾼

배달꾼	사기꾼	사냥꾼	살림꾼
소리꾼	술꾼	이야기꾼	잔소리꾼
장사꾼	재주꾼	짐꾼	춤꾼
투기꾼	파수꾼	훼방꾼	힘꾼

(2) ‘-갈/-갈’은 ‘깎’로 통일하여 적는다.

맛갈                      태갈(態-)

(3) ‘-때기/-대기’는 ‘때기’로 적는다.

거적때기	나무때기	널판때기	등때기
배때기	송판때기	판때기	팔때기

(4) ‘-꿈치/-굽치’는 ‘꿈치’로 적는다.

발꿈치                      발뒤꿈치

(5) ‘-배기/-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첫째, [배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고

귀통배기	나이배기	대짜배기	육자배기(六字--)
주정배기(酒酊--)	진짜배기	포배기	

둘째, 한 형태소 안에서 ‘ㄱ, ㄴ’ 받침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로 적으며(한글 맞춤법 제5항 다만 참조)

독배기                      학배기

셋째,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것은 ‘빼기’로 적는다.

고들빼기	곱빼기	과녁빼기	그루빼기
대갈빼기	머리빼기	밥빼기	악착빼기

얹둑빼기          얹작빼기          억척빼기          얹둑빼기  
 얹빼기          얹적빼기          재빼기

단, ‘언덕배기’는 한 형태소 내부가 아니지만 ‘언덕바지’와의 형태적 연관성을 보이기 위해 ‘언덕배기’로 적는다.

(6) ‘-적다/-적다’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첫째, [적따]로 발음되는 경우는 ‘적다’로 적고

괘다리적다          괘달머리적다          판기적다          열통적다

둘째, ‘적다[少]’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합성어의 경우는 ‘적다’로 적으며  
 맞적다(재미나 흥미가 거의 없어 싱겁다)

셋째, ‘적다[少]’의 뜻이 없이 [적따]로 발음되는 경우는 ‘적다’로 적는다.

맥적다          멋적다          해망적다          행망적다

###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맞추다(입을 맞춘다. 양복을 맞춘다.)	마추다
뽀치다(다리를 뽀친다. 멀리 뽀친다.)	벼치다

‘제자리에 맞게 붙이다, 주문하다, 똑바르게 하다, 비교하다’ 등의 뜻이 있는 말은 ‘마추다’가 아닌 ‘맞추다’로 적는다.



피즐을 맞추다

구두를 맞추다

줄을 맞추다

기분을 맞추다

시간을 맞추다

(친구와) 답을 맞추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가다, 어떤 것에 미치게 길게 내밀다’의 뜻이 있는 말은 ‘빼치다’가 아닌 ‘뺨치다’로 적는다.

태백산맥은 남북으로 길게 뺨쳐 있다.

아이는 팔을 뺨쳐 엄마를 잡으려 했다.

###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지난겨울은 몹시 춥더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던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ㄴ

지난겨울은 몹시 춥드라.

깊든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든가?

그 사람 말 잘하든데!

얼마나 놀랐든지 몰라.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ㄴ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1. ‘-더-’와 ‘-던’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로 옮겨 그대로 전달할 때 쓰인다. 이때의 ‘-더-’와 ‘-던’을 ‘-드-, -든’으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오랜만에 만났더니 반갑더라.  
선생님도 이젠 늙으셨더구나.  
그림을 잘 그렸던데 여기에 걸자.  
선생님은 교실에 계시던걸.

2. 선택의 의미를 지닌 ‘-든지’, ‘-든’을 과거 경험과 관계된 ‘-던지’, ‘-던’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과를 먹든지 감을 먹든지 하렴.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가름	둘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혼동이 되는 말을 구별해서 쓰도록 한 조항이다. 실제 생활에서 잘못 쓰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름’은 ‘가르다’의 ‘가르-’에 ‘-口’이 붙은 말이고, ‘갈음’은 ‘갈다’의 ‘갈-’에 ‘-음’이 붙은 말로 의미가 다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한다.

가름	☞ 잣나무와 소나무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가름이 되지 않는다.
갈음	☞ 가족 모임으로 돌잔치를 갈음한다.

거름	풀을 썬 거름.
걸음	빠른 걸음.

‘거름’은 ‘(땅이) 걸다’의 ‘걸-’에 ‘-음’이 붙은 형태이지만, 본뜻에서 떨어져 ‘비료’의 의미로 쓰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거름’으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19항 다만 참조)  
 ‘걸음’은 ‘걷다’의 ‘걷-’에 ‘-음’이 붙은 형태이다.

- 거름           예) 농부들은 배추밭에 거름을 주었다.  
 걸음           예)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걸음을 재촉했다.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견히다	외상값이 잘 견힌다.

‘거치다’는 ‘무엇에 걸리거나 막히다’,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의 뜻으로 쓰이는 동사이고, ‘견히다’는 ‘견다’의 피동사이다.

- 거치다       예) 더 이상 마음에 거칠 것이 없다.  
               예) 수원을 거쳐 대전으로 갔다.  
 견히다       예) 해가 뜨자 안개가 견히기 시작했다.  
               예) 그물이 견히자 팔뚝만 한 고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견잡다	견잡을 수 없는 상태.
걸잡다	걸잡아서 이틀 걸릴 일.

‘걸잡다’는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마음을 진정하거나 억제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걸잡다’는 ‘걸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걸잡다      ㉠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걸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걸잡다      ㉡ 오늘 경기장에는 걸잡아서 천 명이 넘게 온 듯하다.

그러므로(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럼으로(씨)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씨) 은혜에 보답한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인다. 이에 비해 ‘그럼으로(씨)’는 ‘그러다’의 명사형 ‘그럼’에 ‘으로(씨)’가 결합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씨)’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에는 ‘씨’가 결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럼으로(씨)’와 차이가 있다.

- 그러므로      ㉠ 그는 봉사하는 삶을 산다. 그러므로 존경을 받는다.  
 그럼으로(씨) ㉡ 그는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선다. 그럼으로씨 삶의 보람을 느낀다.

노름	노름판이 벌어졌다.
놀음(놀이)	즐거운 놀음.

‘노름’은 어원적으로 ‘놀-’에 ‘-음’이 붙어서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다만 참조) 이에 비해 ‘놀음’은 ‘놀다’의 ‘놀-’에 ‘-음’이 붙은 것으로,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므로 그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2 참조)

노름           예) 그는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다.

놀음           예) 놀음놀이, 놀음판(=놀음놀이판).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느리다’는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아래로 길게 처지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또한 ‘늘리다’는 ‘물체의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커지게 하다’, ‘수나 분량 따위를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느리다           예) 나무늘보는 행동이 느리다.

늘이다           예) 치마 길이를 늘여서 입었다.

늘리다           예) 우리 가족은 평수를 늘려 새집으로 이사했다.

예) 실력을 늘려서 다음에 다시 도전해 보자.

다리다           옷을 다리다.

달이다           약을 달인다.

‘다리다’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기 위해 다리미로 문지르다’라는 뜻을, ‘달이다’는 ‘액체를 끓여서 진하게 하다’, ‘약재에 물을 부어 우려나도록 끓이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다리다           예) 구겨진 바지를 매끈하게 다렸다.

달이다           예) 보약을 달이는지 한약 냄새가 가득했다.

다치다           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달히다           문이 저절로 달혔다.

달치다           문을 힘껏 달쳤다.

‘다치다’는 ‘신체에 상처가 생기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달히다’는 ‘닫다(문짝 따위를 제자리로 가게 하여 막다)’의 피동사이다. 또한 ‘달치다’는 ‘문짝 따위를 세게 닫다’, ‘입을 굳게 다물다’의 뜻을 나타낸다.

다치다           예)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

달히다           예) 열어 놓은 문이 바람에 달혔다.

달치다           예) 동생은 화가 났는지 문을 탁 달치고 나갔다.

마치다           벌써 일을 마쳤다.

맞히다           여러 문제를 더 맞혔다.

‘마치다’는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라는 뜻을, ‘맞히다’는 ‘표적에 적중하다’, ‘맞는 답을 내놓다’, ‘침이나 매 따위를 맞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마치다           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맞히다           예) 화살을 과녁에 정확하게 맞혔다.

예) 문제의 정답을 맞혔다.

예) 꼬마들에게는 주사를 맞히기가 힘들다.

목거리	목거리가 덧났다.
목걸이	금목걸이, 은목걸이.

‘목거리’는 ‘목이 붓고 아픈 병’을, ‘목걸이’는 ‘목에 거는 장신구’를 뜻하는 말이다.

- 목거리      예) 약을 먹어도 목거리가 잘 낫지 않는다.  
 목걸이      예) 새로 산 목걸이가 옷과 잘 어울린다.

바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받치다	우산을 받치고 간다. 책받침을 받친다.
받히다	쇠뿔에 받혔다.
받치다	술을 체에 받친다.

‘바치다’는 ‘신이나 웃어른께 드리다’,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라는 뜻을, ‘받치다’는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받히다’는 ‘받다(머리나 뺨 따위로 세차게 부딪치다)’의 피동사이며, ‘받치다’는 ‘받다(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체 따위에 따라서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 바치다      예) 하늘에 제물을 바친다.  
               예) 그 과학자는 평생을 신약 개발에 몸을 바쳤다.  
 받치다      예) 쟁반에 찻잔을 받쳐 가져왔다.  
               예) 이 영화는 배경 음악이 장면을 잘 받쳐 주어서 더욱 감동적이다.  
 받히다      예) 소에게 받히었다.

받치다      ㉮ 삶은 국수를 찬물에 행군 후 체에 받쳐 놓았다.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반듯이	고개를 반듯이 들어라.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을, ‘반듯이’는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을 나타낸다.

반드시      ㉮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

반듯이      ㉮ 우리는 반듯이 몸을 누이고 잠을 청했다.

부딪치다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부딪히다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혔다.

‘부딪치다’는 ‘부딪다(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닿거나 마주 대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고, ‘부딪히다’는 ‘부딪다’의 피동사이다.

부치다	힘이 부치는 일이다.	붙이다	우표를 붙인다.
	편지를 부친다.		책상을 벽에 붙였다.
	논발을 부친다.		흥정을 붙인다.
	빈대떡을 부친다.		불을 붙인다.
	식목일에 부치는 글.		감시원을 붙인다.
	회의에 부치는 안건.		조건을 붙인다.
	인쇄에 부치는 원고.		취미를 붙인다.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친다.		별명을 붙인다.



‘붙이다’에는 ‘붙게 하다’의 의미가 있는 반면, ‘부치다’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

‘부치다’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 ①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
- ② 편지나 물건 따위를 상대에게 보내다.
- ③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
- ④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따위의 음식을 만들다.
- ⑤ 어떤 행사나 특별한 날에 즈음하여 어떤 의견을 나타내다.
- ⑥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
- ⑦ 원고를 인쇄에 넘기다.
- ⑧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

‘붙이다’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 ①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다.
- ② 물체와 물체 따위를 서로 바짝 가깝게 놓다.
- ③ 겨루는 일 따위가 서로 어울려 시작되게 하다.
- ④ 불을 옮겨 타게 하다.
- ⑤ 사람 등을 달려 붙게 하다.
- ⑥ 조건, 이유, 구실 따위를 달다.
- ⑦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생겨나게 하다.
- ⑧ 이름 따위를 만들어 주다.

시키다	일을 시킨다.
식히다	끓인 물을 식힌다.

‘시키다’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식히다’는 ‘식다(더운기가 없어지다, 어떤 일에 대한 열의나 생각 따위가 줄거나 가라앉다)’의 사동사이다.

시키다      ㉠ 인부들에게 일을 시켰다.

식히다      ㉠ 국이 뜨거우니 식혀 드세요.

아름      세 아름 되는 둘레.

알음      전부터 알음이 있는 사이.

얹      얹어 힘이다.

‘아름’은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 또는 그러한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를 뜻하며, ‘알음’은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 ‘지식이나 지혜가 있음’과 같은 뜻을 나타낸다. 한편 ‘얹’은 ‘아는 일’이라는 뜻의 말이다.

아름      ㉠ 둘레가 두 아름이나 되는 나무

알음      ㉠ 우리는 서로 알음이 있는 사이다.

얹      ㉠ 얹은 삶의 힘이다.

안치다      밥을 안친다.

얹히다      윗자리에 얹힌다.

‘안치다’는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리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얹히다’는 ‘얹다’의 사동사로 쓰이거나, ‘문서에 줄거리를 따로 적어 놓다’, ‘버릇을 가르치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안치다      ㉠ 시루에 떡을 안쳤다.

㉠ 솥에 고구마를 얹쳐서 찐다.

- 앉히다      ㉠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 그는 책을 읽다가 중요한 것을 여백에 앉히는 습관이 있다.  
 ㉢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버릇을 앉혀 주셨다.

어름	두 물건의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음	얼음이 얼었다.

‘어름’은 ‘두 사물의 끝이 맞닿은 자리’를 뜻하며, ‘얼음’은 ‘물이 얼어서 굳어진 물질’을 뜻한다. ‘얼음’은 ‘얼다’의 어간 ‘얼-’에 ‘-음’이 붙은 형태이므로, 어간의 본모양을 밝히어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19항 2 참조)

- 어름      ㉠ 어부들은 바닷물과 민물이 맞물린 어름에 그물을 내렸다.  
 얼음      ㉡ 강에 얼음이 얼었다.

이따가	이따가 오너라.
있다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고, ‘있다가’는 ‘있다’의 ‘있-’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끝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옮겨지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다가’가 붙은 형태이다. ‘이따가’도 어원적인 형태는 ‘있-+-다가’로 분석되는 것이지만, 그 어간의 본뜻에서 떨어진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 이따가      ㉠ 이따가 만나자.  
 있다가      ㉡ 여기에 며칠 더 있다가 갈게.

저리다	다친 다리가 저린다.
절이다	김장 배추를 절인다.

‘저리다’는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찌시듯이 아프다’, ‘몸의 일부가 오래 눌러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해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라는 뜻이고, ‘절이다’는 ‘푸성귀나 생선 따위에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를 배어들게 하다’라는 뜻이다.

저리다	예 움직이지 않고 있었더니 발이 저리기 시작했다.
절이다	예 배추를 소금물에 절인다.

조리다	생선을 조리다. 통조림, 병조림.
졸이다	마음을 졸인다.

‘조리다’는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국물에 넣고 바짝 끓여서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졸이다’는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조리다	예 고등어와 무를 넣고 맛있게 조렸다.
졸이다	예 너무 가슴 졸이지 말고 결과를 기다려 보자.

주리다	여러 날을 주렸다.
줄이다	비용을 줄인다.

‘주리다’는 ‘제대로 먹지 못하여 배를 곯다’라는 의미이고, ‘줄이다’는 ‘줄다’의 사동사이다.

주리다      ㉠ 모두 여러 날 배를 주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줄이다      ㉠ 건강을 위해 체중을 조금 줄이려고 한다.

하노라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노라고’는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나타내고, ‘-느라고’는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노라고      ㉠ 모두 하노라고 했는데 만족스럽지는 않다.

             ㉠ 제 판에는 열심히 쓰노라고 쓴 게 이 모양이다.

-느라고      ㉠ 어제 소설을 읽느라고 밤을 새웠다.

             ㉠ 먼 길 오시느라고 힘드셨겠습니다.

-느니보다(어미)      나를 찾아오느니보다 집에 있거라.

-는 이보다(의존 명사)      오는 이가 가는 이보다 많다.

‘-느니보다’는 ‘-는 것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는 이보다’는 ‘-는 사람보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느니보다      ㉠ 억지로 하느니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는 이보다      ㉠ 동네에 아는 이보다 모르는 이가 더 많다.

-(-)리만큼(어미)          나를 미워하리만큼 그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  
 -(-)르 이만큼(의존 명사)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리만큼’은 ‘-(-)르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고, ‘-(-)르 이만큼’은 ‘-(-)르 사람만큼’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리만큼      예 친구 덕에 배가 터지리만큼 잘 먹었다.  
 -(-)르 이만큼    예 떠나는 이도 남겨질 이만큼 마음이 아프다.

-(-)러(목적)          공부하러 간다.  
 -(-)려(의도)          서울 가려 한다.

‘-(-)러’는 가거나 오거나 하는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고, ‘-(-)려(고)’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러                  예 무엇을 사러 가니?  
                                 책을 사러 서점에 간다.  
 -(-)려                  예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하니?  
                                 친구를 만나려(고) 한다.

(으)로서(자격)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으)로써(수단)          닭으로써 꺾을 대신했다.

‘(으)로서’는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며, ‘(으)로써’는 ‘재료, 수단, 도구’ 등을 나타낸다.

(으)로서           예) 그런 말은 친구로서 할 말이 아니다.

                      예) 나는 주민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하였다.

(으)로써           예) 쌀로써 떡을 빚는다.

                      예) 말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한편 ‘(으)로써’는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예) 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써 20년이 된다.

-(으)므로(어미)           그가 나를 믿으므로 나도 그를 믿는다.

-(으)므로(어미)           그는 믿음으로써 산 보람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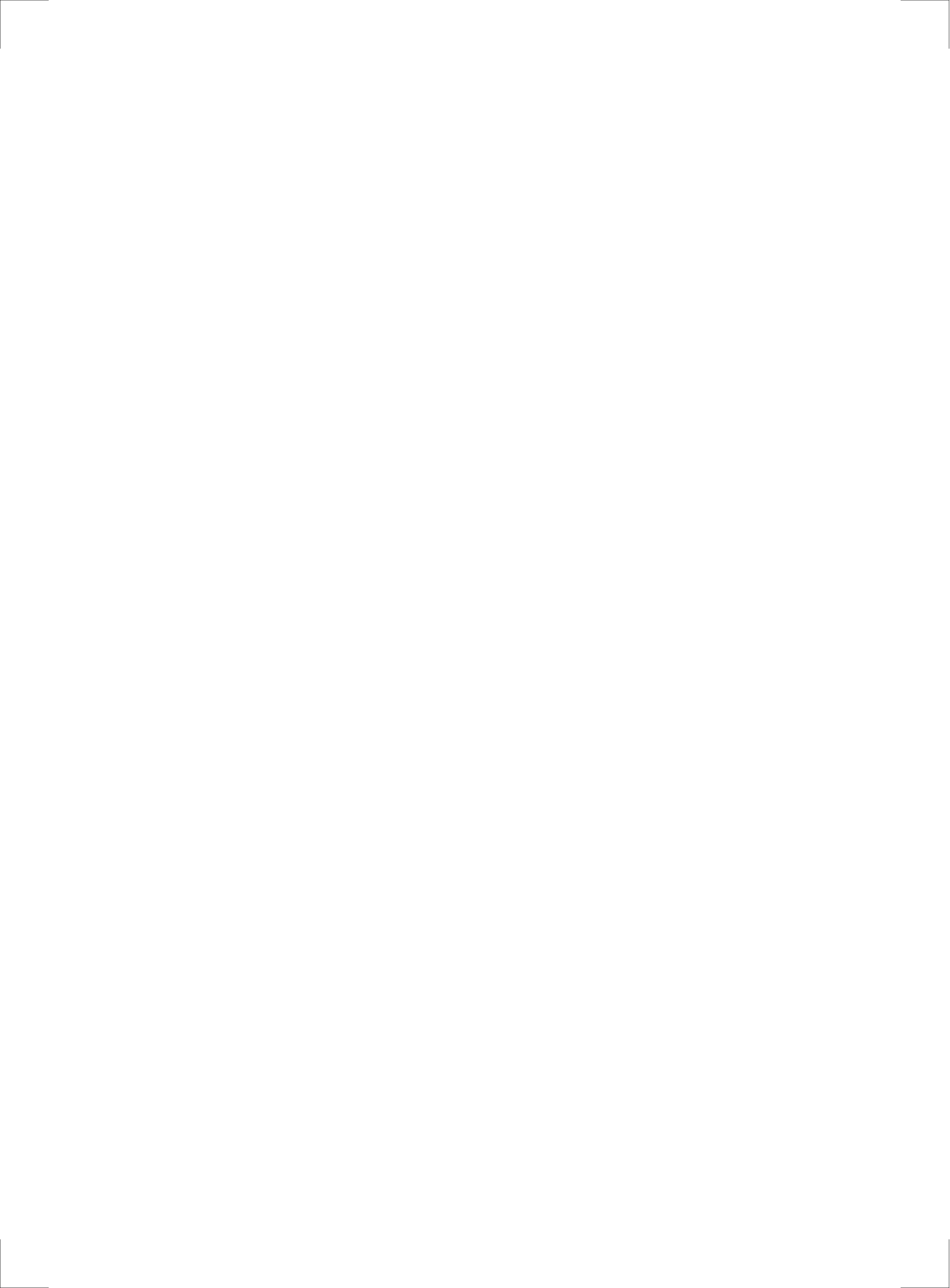
‘-(으)므로’는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이며, ‘-(으)므로(써)’는 ‘-(으)모’에 조사 ‘으(로/써)’가 결합한 형태이다. 어미 ‘-(으)므로’에는 ‘써’가 결합하지 않는다.

-(으)므로           예) 일교차가 크므로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예) 비가 왔으므로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으)므로(써)       예) 그는 늘 웃음으로써 친구를 맞이한다.

                      예) 평소에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지킨다.





# II

---

## 표준어 규정 해설

---



# 차 례

##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총칙 .....	149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153
제1절 자음 .....	153
제2절 모음 .....	161
제3절 준말 .....	173
제4절 단수 표준어 .....	178
제5절 복수 표준어 .....	182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185
제1절 고어 .....	185
제2절 한자어 .....	186
제3절 방언 .....	190
제4절 단수 표준어 .....	192
제5절 복수 표준어 .....	197
[붙임] 새로 추가된 표제어 목록 .....	208

## 제2부 표준 발음법

제1장 총칙 .....	215
제2장 자음과 모음 .....	218
제3장 음의 길이 .....	225
제4장 받침의 발음 .....	230
제5장 음의 동화 .....	243
제6장 경음화 .....	250
제7장 음의 첨가 .....	256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 나라 안에서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형태로 쓰이는 말을 단수 혹은 복수의 표준형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효율적이고 통일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국어 토박이 화자가 하는 말은 어휘의 형태나 음운의 발음에서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여러 형태나 발음 중 하나 혹은 둘을 표준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표준어 규정의 목적이다.

한글 맞춤법은 그러한 표준형을 문자로 적을 때 올바르게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표준어 규정은 한글 맞춤법의 전제가 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어 언증들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뚜렷이 구별하지 않고 한글 맞춤법으로 일원화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글 맞춤법에는 표준어 규정에 귀속되어야 할 만한 예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어 언증들에게 실용적인 성격의 어문 규정을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표준어 규정 제1항에는 표준어를 정하는 사회적, 시대적, 지역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1. 사회적 기준으로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여야 한다. 교양이란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를 뜻하므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사회적 품위를 갖춘 사람을 말한다. 물론 교양 있는 사람이라도 비어, 속어, 은어 등을 쓸 수는 있으므로 표준어의 사회적 기준은 상당히 느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어, 속어, 은어 등은 표준어이기는 하되 언어 예절에 어긋난 말들이므로,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는 말들이다.

2. 시대적 기준으로서, 표준어는 현대의 언어여야 한다. 여기서 ‘현대’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현재란 뜻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에서 현재와 같은 구획에 있는 시대를 말한다. 다른 사회적, 경제적 시대 구분과는 달리 언어 사용에서 현대를 구분하는 데에는 뚜렷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20세기 초의 구어가 현대의 말로 간주되곤 하나, 21세기가 상당히 진행된 현재로서는 20세기 초의 구어를 현대의 말로 간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 시대에 최대 4세대가 공존할 수 있으므로 세대 간 시간 차를 30년 남짓으로 잡으면 넉넉잡아 100년 정도의 시간 차가 있는 말들이 한 시대에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를 100년 전으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인식은 ‘현대’ 개념의 모호함 때문에 편의상 행할 수 있는 것일 뿐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현대’는 국어 언중들의 직관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 지역적 기준으로서, 표준어는 서울말이어야 한다. 이는 표준어의 공용어적 성격을 가장 크게 드러내 주는 기준이다. 가령, 많은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각자의 지역어를 사용한다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어의 조건으로 서울말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서울말이라도 비표준적인 요소가 있다. “나두 간다.”와 같은 말에서 ‘두’는 서울말이기는 하지만 표준어는 아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오랜 문자 언어의 관습적 쓰임에 영향을 받아 ‘도’라고 쓰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말은 서울 지역의 말을 바탕으로 하되 언중들의 교양 의식을 반영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말을 표준어의 조건으로 한다는 이러한 규정을 어떤 지역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표준어는 교육, 방송, 공식적 담화 등에서 써야 할 말이지 지역 사람들끼리 편하게 대화하는 경우에만 꼭 써야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지역어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지역 사람들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표준어 규정의 실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표준어로 규정하였던 형태가 그동안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에 의해 고행(古形)이 된 것
- (나) 1933년 당시 미처 사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표준어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 (다) 각 사전에서 달리 처리하여 정리가 필요한 것
- (라) 방언, 신조어 등이 세력을 얻어 표준어 자리를 굳혀 가던 것

그러나 수많은 어휘의 표준어형을 규정에서 다 예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국립국어원에서는 인터넷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판 “표준국어대사전”은 1999년에 초판이 발간된 종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현재에도 계속 수정·보완 중이다. 여기에서 방대한 어휘의 표준어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에는 비표준어였지만 현재에는 표준어로 인정될 만한 어휘를 꾸준히 추가하여 발표하고 있고, 이 또한 인터넷판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되어 있다.

##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세계 각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의 말은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국어의 일부로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표기 역시 결정해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외국의 말이 국어의 일부인 외래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정 작업을 표준어 규정과는 별도로 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표준어를 사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시대적, 지역적 기준을 적용하지만 외래어를 사정하는 데에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을 따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문체부 고시 제2017-14호)을 기준으로 별도로 사정한다. 다만 외래어 표기법의 ‘외래어’가 고유 명사를 포함해 우리말에 동화되지 않은 모든 외국어를 포함하는 반면, 이 조항의 ‘외래어’는 우리말에 편입된 말만을 이르는 좁은 개념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어휘는 자음과 모음의 발음이 달라지고 길이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를 입게 된다. 어문 규범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발음에 다소의 변화를 입어도 표준어를 곧바로 바꾸지는 않지만, 발음 변화의 정도가 심하거나 발음이 변한 지 오래되어 대부분의 교양 있는 서울 지역 사람들이 바뀐 발음으로 말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어를 새로이 정하게 된다. 발음 변화에 따라 새로이 표준어를 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발음이 바뀐 후의 말만 인정하는 방법과 바뀌기 전의 말과 바뀐 후의 말을 모두 인정하는 방법이다. 앞것에 따르면 단수 표준어, 뒤것에 따르면 복수 표준어가 된다. 원칙적으로는 언어가 변화하였으면 단수 표준어로 정해야 하겠으나, 언어의 변화에는 대부분 긴 시간의 과도기가 있으므로 복수 표준어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가 언어의 규범적 사용을 점차 유연하게 인식하게 됨에 따라 복수 표준어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을 시작으로 표준어 추가 목록을 발표하고 있고,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보완을 통해 표준어의 목록을 갱신하고 있다.

### 제1절 자음

####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끄나플	끄나불	

ㄱ	ㄴ	비 고
나팔-꽃	나발-꽃	동~, 들~, 새벽~, 동들 ~.
넙	넙	
부엌	부억	1. ~막이, 빈~, 방 한 ~. 2. '초가삼간, 뒷간'의 경우에는 '간'임.
살-괭이	삶-괭이	
칸	간	
털어-먹다	떨어-먹다	재물을 다 없애다.

제3항은 예사소리나 된소리가 거센소리로 변한 경우의 예이다. 사실 ‘나팔꽃’이나 ‘끄나풀’ 등은 이 표준어 규정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일반화되었던 형태들이다. 이 점에서 여기 예시한 어휘는 이미 뿌리를 내린 형태들을 인정하는 성격이 크다.

① ‘나발꽃’이 ‘나팔꽃’으로 바뀌었으나 모든 ‘나발’을 ‘나팔’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나팔’과 함께 늦쇠로 긴 대롱처럼 만든 전통 관악기의 하나인 ‘나발’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나팔바지, 나팔관, 나팔벌레’ 등과 ‘개나발, 병나발’ 등의 합성어에서도 각각 구별되어 쓰인다.

② 동물 ‘삶’과 ‘고양이’의 준말인 ‘괭이’가 결합한 ‘삶괭이’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살괭이]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발음은 [살괭이]이므로 ‘살괭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표준어 규정 제26항에서는 ‘살괭이’와 함께 ‘삶’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③ ‘칸’은 공간의 구획을 나타내며, ‘간(間)’은 이미 굳어진 한자어 속에서 쓰이거나 공간으로서의 장소를 가리키는 접미사로 쓰인다. 그러므로 ‘위 칸, 한 칸 벌리다, 비어 있는 칸’ 등에서는 ‘칸’을 쓰고 ‘초가삼간, 뒷간, 마구간, 방앗간, 외양간, 푸줏간, 헛간’ 등에서는 ‘간’을 쓴다.

④ ‘털다’는 달려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따위가 떨어지게 흔들거나 치거나 한다는 뜻으로, 주로 ‘옷, 이불’ 등과 같이 먼지 따위가 붙어 있는 대상을 목적으로 취한다.

반면 ‘떨다’는 달려 있거나 붙어 있는 것을 쳐서 떼어 낸다는 뜻으로, ‘먼지, 재’ 등과 같이 떨어져 나가는 대상을 목적어로 취한다. 따라서 ‘먼지를 떨기 위해 옷을 털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이러한 쓰임을 고려하면 ‘재떨이, 먼지떨이’가 올바른 표기가 된다. 그러나 ‘재물’이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유사한 의미로도 쓰인다. ‘털다’는 ‘남이 가진 재물을 몽땅 빼앗거나 그것이 보관된 장소를 모조리 뒤지어 훑치다’를, ‘떨다’는 ‘남에게서 재물을 모조리 훑치거나 빼앗다’를 뜻한다. 다만, ‘떡다’와 결합해 합성어로 쓸 때에는 ‘털어떡다’로 쓴다.

####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가을-같이	가을-카리	
거시기	거시키	
분침	푼침	

제3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한 말들이나, 제3항의 경우와는 달리 거센소리가 예사소리로 변화한 말들을 표준어로 삼은 경우이다.

① 표준어 규정이 공포된 1988년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거시키’보다는 ‘거시기’가 더 널리 쓰였고 이 조항에서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② ‘푼’은 한자 ‘分’의 고어 발음의 잔재이다. 현대 국어의 ‘할, 푼, 리’나 ‘땡전 한 푼’ 등에 ‘푼’이 남아 있으나 한자어로 읽을 때에는 ‘분’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시계의 ‘분침’은 ‘푼침’으로 쓰지 않는다.

###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강남-콩	강남-콩	
고삐	고삐	걸~, 속~.
사글-세	삭월-세	'월세'는 표준어임.
울력-성당	위력-성당	떼를 지어서 으르고 헐박하는 일.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갈비	가리	~구이, ~찜, 갈빗-대.
갓모	갈모	1. 사기 만드는 물레 밑 고리. 2. '갈모'는 갓 위에 쓰는, 유지로 만든 우비.
굴-젓	구-젓	
말-곶	말-곶	
물-수란	물-수란	
밀-뜨리다	미-뜨리다	
적-이	저으기	적이나, 적이나-하면.
휴지	수지	

학문적으로는 어원이 밝혀져 있더라도 언중의 어원 의식이 약해져서 어원으로부터 멀어진 형태가 널리 쓰이면 그 말을 표준어로 삼고, 어원에 충실한 형태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는 말은 표준어로 삼지 않겠다는 것을 다룬 조항이다.

① '강남콩'은 중국의 '강남(江南)' 지방에서 들여온 콩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강남’의 형태가 변하여 ‘강낭’이 되었다. 제9항의 ‘남비’가 ‘냄비’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중이 이미 어원을 인식하지 않고 변한 형태대로 발음하는 언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강낭콩’으로 쓰게 한 것이다.

② 예전에는 ‘지붕을 일 때에 쓰는 새끼’와 ‘좁은 골목이나 길’을 모두 ‘고삐’로 써 왔는데, 앞의 뜻의 말에 대해 어원 의식이 희박해져서 조사가 붙은 형태가 [고사시/고사슬] 등으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앞의 뜻의 말을 ‘고삐’로 정한 것이다. ‘속고삐’는 초가지붕을 일 때 이엉을 엮기 전에 지붕 위에 건너질러 잡아매는 새끼이고, ‘겉고삐’는 이엉을 엮은 위에 걸쳐 매는 새끼이다.

③ ‘월세(月費)’와 뜻이 같은 말로서 과거에는 ‘삭월세’와 ‘사글세’가 모두 쓰였다. 그러나 ‘삭월세’를 한자어 ‘朔月費’로 보는 것은 ‘사글세’의 음을 단순히 한자로 흉내 낸 것으로 보아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다만, 어원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 어원을 의식한 형태가 쓰이는 것들은 그 짝이 되는 비어원적인 형태보다 더 우선적으로 표준어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였다.

④ ‘갈비, 갓모, 휴지(休紙)’는 변화된 형태인 ‘가리, 갈모, 수지’ 등도 각각 쓰였으나, 본래의 형태가 더 널리 쓰이므로 ‘갈비, 갓모, 휴지’의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다만, ‘갓모’와는 별개로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고깔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뜻하는 ‘갈모(-帽)’는 표준어로 인정한다.

⑤ ‘밀-’에 ‘-뜨리다’가 붙은 ‘밀뜨리다’도 언중이 ‘밀다’의 뜻을 의식하고 있으므로 비록 ‘미뜨리다’가 쓰이고 있어도 ‘밀뜨리다’로 쓴다. 다만, ‘-뜨리다’와 ‘-트리다’가 같은 뜻의 복수 표준어 접미사로 인정되므로 ‘밀뜨리다’와 함께 ‘밀트리다’도 표준어로 인정된다.

⑥ ‘적이’는 의미적으로 ‘적다’와는 멀어지고 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때문에 한동안 ‘저으기’가 널리 보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대의 뜻이 되었더라도 원래의 어원 ‘적다’와의 관계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으기’가 아닌 ‘적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돌	똥	생일, 주기.
돌-째	두-째	'제2, 두 개째'의 뜻.
셋-째	세-째	'제3, 세 개째'의 뜻.
넷-째	네-째	'제4, 네 개째'의 뜻.
빌리다	빌다	1. 빌려주다, 빌려 오다. 2. '용서를 빌다'는 '빌다'임.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두째'로 한다.

ㄱ	ㄴ	비 고
열두-째		열두 개째의 뜻은 '열둘째'로.
스물두-째		스물두 개째의 뜻은 '스물둘째'로.

이 조항은 그동안 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온 것 중 현재에는 그 구별의 의미가 거의 사라진 항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① 과거에 '돌'은 생일, '똥'은 '한글 반포 500똥'처럼 '주년'의 의미로 세분해 써 왔다. 그러나 그러한 구별은 인위적이고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똥이, 똥을'의 발음인 [돌씨], [돌쓸]이 언어 현실에 있는 발음이 아니므로 '돌'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② 과거에 '두째, 세째'는 '첫째'와 함께 차례를, '둘째, 셋째'는 '하나째'와 함께 '사과를 벌써 셋째 먹는다'에서와 같이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별하여 써 왔다. 그러나 언어 현실에서 이와 같은 구별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어 '둘째, 셋째'로 통합한 것이다. 따라서 '두째, 세째, 네째'와 같은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두째'가 다른



수 뒤에 오는 ‘열두째, 스물두째, 서른두째’ 등은 인정하였는데, 이는 받침 ‘ㄹ’ 발음이 분명히 탈락하는 언어 현실을 근거로 한 것이다. 순서가 첫 번째나 두 번째쯤 되는 차례를 나타내는 ‘한두째’에서도 ‘두째’로 쓴다. 그러나 이에도 예외가 있는데, 드물게 쓰이기는 하지만 ‘열두 개째’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열둘째’가 인정된다.

③ ‘빌다’에는 원래 물건 따위를 구걸한다는 뜻(예 밥을 빌러 다니다)과 신이나 사람 따위에 간청한다는 뜻(예 하늘에 소원을 빌다), 그리고 나중에 값기로 하고 남의 물건이나 돈을 쓴다는 뜻(예 친구에게 돈을 빌다)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값기로 하고 남의 물건이나 돈을 쓴다는 뜻의 ‘빌다’는 ‘빌리다’로 형태가 바뀜에 따라 ‘빌다’를 버리고 ‘빌리다’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빌리다’는 원래 ‘빌다’의 피동형으로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남에게 물건이나 돈 따위를 내어 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뜻으로 쓰임에 따라 원래의 의미는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로는 ‘빌려주다’가 ‘빌리다’를 대신하여 쓰이게 되었다.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수-꿩	수-꿩/숫-꿩	‘장끼’도 표준어임.
수-나사	숫-나사	
수-놈	숫-놈	
수-사돈	숫-사돈	
수-소	숫-소	‘황소’도 표준어임.
수-은행나무	숫-은행나무	

다만 1.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수-강아지	숫-강아지	
수-개	숫-개	
수-컷	숫-컷	
수-키와	숫-키와	
수-닭	숫-닭	
수-탕나귀	숫-탕나귀	
수-톨쩌귀	숫-톨쩌귀	
수-돼지	숫-돼지	
수-평아리	숫-병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숫-양	수-양	
숫-염소	수-염소	
숫-쥐	수-쥐	

이 조항에서는 ‘암’과 ‘수’를 구별하여 쓸 때의 기본적 표준어는 ‘암’과 ‘수’임을 분명히 밝혔다. ‘암’과 ‘수’는 역사적으로 ‘암ᄃᆞ, 수ᄃᆞ’와 같이 ‘ᄃ’을 맨 마지막 음으로 가지고 있는 말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ᄃ’이 모두 떨어졌으므로 떨어진 형태를 기본적인 표준어로 규정하였다.

① ‘ᄃ’은 현대의 단어들에도 그 발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ᄃ’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일이 흔하여 이 조항에서 부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암ᄃ’에 ‘개,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암개, 암닭, 암평아리’가 되고 ‘수ᄃ’에 ‘개, 닭, 병아리’가 결합하면 각각 ‘수개, 수닭, 수평아리’가 되는 언어 현실을 존중하였다. 이러한 축약은 ‘다만 1’ 규정에서 언급한 예들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암ᄃ,

수ㅎ'에 '고양이'가 결합하더라도 '암고양이, 수고양이'와 같은 형태가 표준어가 된다. 발음도 [암고양이], [수고양이]가 표준 발음이다.

② '수'와 뒤의 말이 결합할 때, 발음상 [ㄴ(ㄴ)] 첨가가 일어나거나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 사이시옷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 판단하여 '수'에 'ㅅ'을 붙인 '숫'을 표준어형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만 2' 규정에서 언급한 예 들만 해당한다. '숫양, 숫염소'는 발음이 [순냥], [순념소]이지 [수양], [수염소]가 아니므로 '수양, 수염소'와 같은 형태를 비표준어로 규정하였다. 또 '숫쥐'는 발음이 [순쥐] 이지 [수쥐]가 아니므로 '수쥐'와 같은 형태를 비표준어로 규정하였다.

## 제2절 모음

###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강충-강충 -동이	강충-강충 -동이	큰말은 '깁충깁충'임. ← 童-이. 귀-, 막-, 선-, 쌍-, 검-, 바람-, 흰-.
발가-송이	발가-송이	센말은 '빨가송이', 큰말은 '벌거송이, 빨거 송이'임.
보통이	보통이	
봉죽	봉죽	← 奉足. ~꾼, ~들다.
뽕장-다리	뽕장-다리	
아셔, 아서라	앗아, 앓아라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말.
오뚝-이	오뚝-이	부사도 '오뚝-이'임.
주추	주초	← 柱礎. 주춧-돌.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부조(扶助)	부주	~금, 부죗-술.
사둔(査頓)	사둔	밭~, 안~.
삼촌(三寸)	삼촌	시~, 외~, 처~.

우리말에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母音調和) 현상이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세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근대를 거치면서 음성 모음의 세력이 급격히 커졌다. 예컨대 ‘막-아, 줍-아’, ‘접-어, 굽-어, 재-어, 세-어, 괴-어, 쥐-어’ 등의 어미 활용에서도 음성 모음의 우세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한 단어 내부에서도 양성 모음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섞여 나타나는 일이 많다. 이 조항은 그러한 음성 모음 우세 현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① 종래의 ‘깡충깡충’은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깡충깡충’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된 ‘강중강중, 깡쫙깡쫙’도 ‘강중강중, 깡쫙깡쫙’으로 쓰지 않는다. ‘깡충깡충, 강중강중, 깡쫙깡쫙’의 음성 모음 대응형은 각각 ‘경충경충, 경중경중, 쫙쫙쫙쫙’이다. 그러나 ‘경충하다’와 짝을 이루는 말은 ‘깡충하다’로서 ‘깡충하다’가 오히려 비표준어이다.

② ‘-동이’도 음성 모음화를 인정하여 ‘-동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동이’의 어원은 아이 ‘동(童)’을 쓴 ‘동이(童-)’이지만 현실 발음에서 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동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그에 따라 ‘귀동이, 막동이, 쌍동이, 바람동이, 흰동이’에서 모두 ‘-동이’를 쓴다. 다만, ‘쌍동이’와는 별개로 ‘쌍동밥’과 같은 단어에서는 한자어 ‘쌍동(雙童)’의 발음이 살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쌍동밥’으로 쓰지 않는다. 또 살이 올라 보드랍고 통통한 아이를 뜻하는 ‘옴포동이’는 ‘옴포동하다’의 어근 ‘옴포동’에 ‘-이’가 결합된 말로서 ‘-동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옴포동이’와 같이 쓰지 않는다.

③ ‘발가숭이’와 마찬가지로 ‘빨가숭이’도 양성 모음 뒤에 음성 모음이 결합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에 대응하는 짝은 ‘벌거숭이, 빨거숭이’이다. 그러나 ‘애숭이’는 ‘애숭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물건을 보에 싸서 꾸러 놓은 것을 뜻하는 ‘보통이’와 함께 눈두덩의 볼룩한 부분을 뜻하는 ‘눈통이’나 미련한 사람을 낮추어 가리키는 ‘미련통이’ 등에서도 ‘-통이’를 쓴다. 그러나 ‘고집통이, 골통이’에서는 ‘통이’를 쓰는데, 이는 ‘고집통이, 골통이’가 각각 ‘고집통’, ‘골통’에 ‘-이’가 붙은 말이기 때문이다.

⑤ ‘봉족(奉足), 주초(柱礎)’는 한자어로서의 형태를 인식하지 않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봉족, 주초’와 같이 음성 모음 형태를 인정했다.

⑥ ‘뺨장다리’를 취하지 않고 ‘뺨정다리’를 표준어로 삼은 것은 언어 현실을 수용한 것이다.

⑦ 금지(禁止)의 뜻을 나타내는 ‘앗아, 앓아라’는 빼앗는다는 원뜻과는 떨어져서 단지 하지 말라는 뜻이 되었는데, 현실 발음에 따라 음성 모음 형태를 취하여 ‘아서, 아서라’로 한 것이다. 어원 의식이 희박해졌으므로 어법에 따라 ‘앗어, 앓어라’와 같이 적지 않고 ‘아서, 아서라’와 같이 적는다.

⑧ ‘오뚝이’도 명사나 부사로 다 인정하지 않고 ‘오뚝이’만을 표준어로 정하였다. ‘오뚝하다’도 취하지 않고 ‘오뚝하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⑨ 다만, ‘부주, 사둔, 삼춘’은 널리 쓰이는 형태이나, 이들은 한자어 어원을 의식하는 경향이 커서 음성 모음화를 인정하지 않고 ‘부조(扶助), 사둔(查頓), 삼춘(三寸)’과 같이 한자어 발음을 그대로 쓴 것을 표준어로 삼았다.

## 제9항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내기 냄비 동댕이-치다	-나기 남비 동당아-치다	서울-, 시골-, 신출-, 풋-.

**[붙임 1]** 다음 단어는 ‘ㄴ’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아지랑이	아지랭이	

**[붙임 2]**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미장이	미쟁이	
유기장이	유기쟁이	
멋쟁이	멋장이	
소금쟁이	소금장이	
담쟁이-덩굴	담장이-덩굴	
골목쟁이	골목장이	
밭목쟁이	밭목장이	

‘ㄴ’ 역행 동화란 뒤에 오는 ‘ㄴ’ 모음 혹은 반모음 ‘ㄴ[j]’에 동화되어 앞에 있는 ‘ㄱ, ㅋ, ㆁ, ㄷ, ㅌ’가 각각 ‘ㄱ, ㅋ, ㄴ, ㄱ, ㄴ’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아버, 어미, 고기, 죽이다, 끓이다’는 자주 [애비], [에미], [괴기], [쥐기다], [끼리다]로 발음된다. ‘ㄴ’ 역행 동화는 전국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체언에 조사가 붙은 ‘밥이’를 [배비]와 같이 발음하는 경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나, 한 단어 안에서는

‘ㅣ’ 역행 동화가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대부분 주의해서 발음하면 피할 수 있는 발음 이므로 그 동화형을 표준어로 삼기 어렵다. 또한 이 동화 현상은 매우 광범위하여 그 동화형을 다 표준어로 인정하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그리하여 ‘ㅣ’ 역행 동화 현상을 인정하는 표준어는 최소화하였다.

① ‘-나기’는, 서울에서 났다는 뜻의 ‘서울나기’는 그대로 쓰임 직하지만 ‘신출나기, 쫓나기’는 어색하므로 일률적으로 ‘-내기’를 표준어로 삼았다. ‘여간내기, 보통내기, 새내기’ 등의 어휘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기’를 표준어로 삼는다.

② ‘남비’는 종래 일본어 ‘나베[鍋]’에서 온 말이라 하여 원형을 의식해서 처리했던 것이나, 현대에는 어원 의식이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제5항에서 ‘강남콩’을 ‘강낭콩’으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냄비’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붙임 1] ‘아지랑이’는 과거의 대사전들에서 ‘아지랭이’로 고쳐진 것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아지랭이’가 표준어로 쓰여 왔으나, 현대 언중의 직관이 ‘아지랑이’를 표준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아지랑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1936년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아지랑이’를 표준어로 정한 바 있었는데 그것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붙임 2] ‘-장이’는 기술자에 붙는 접미사이고 ‘-쟁이’는 기타 어휘에 붙는 접미사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기술자’는 ‘수공업적인 기술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칠장이, 유기장이’에서는 ‘-장이’를 표준어로 삼고 ‘멋쟁이, 소금쟁이, 골목쟁이’ 등에서는 ‘-쟁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또한 점을 치는 사람은 ‘점쟁이’가 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은 ‘환쟁이’가 된다. 이들은 수공업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미에 따라 ‘-장이’와 ‘-쟁이’를 구별해서 쓰기 때문에 갓을 만드는 기술자는 ‘갓장이’, 갓을 쓴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은 ‘갓쟁이’가 된다.

##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괴팍-하다 -구면	괴팍-하다/괴팩-하다 -구면	
미루-나무	미류-나무	←美柳~.
미룩	미력	←彌勒. ~보살, ~불, 돌~.
여느	여늬	
온-달	윈-달	만 한 달.
으레	으레	
케케-묵다	케케-묵다	
허우대	허위대	
허우적-허우적	허위적-허위적	허우적-거리다.

일부 방언에서는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가령 ‘벼’를 [베]라고 발음하는 일이 있다. 또한 ‘사과’를 [사가]로 발음하는 것과 같이 ‘기, 귀, 가, 거’ 등의 원순 모음을 평순 모음으로 발음하는 일은 더 흔히 일어난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다룬 단어들은 표준어 지역에서도 모음의 단순화 과정을 겪고, 애초의 형태는 들어 보기 어렵게 된 것들이다.

① 사용 빈도가 높은 ‘괴팍하다’는 ‘괴팍하다’로 발음이 바뀌었으므로 바뀐 발음 ‘팍’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용 빈도가 낮은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등에서의 ‘팍’은 ‘팍’으로 발음되지 않으므로 ‘팍’이 아직도 표준어형이다.

② ‘미류나무’는 버드나무의 한 종류이므로 ‘미류’는 어원적으로 분명히 버드나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미류(美柳)’인데 이제 ‘미류’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루나무’를 표준어로 삼았다.

③ ‘여느’도 원래 ‘여늬’였으나 이중 모음 ‘니’가 단모음 ‘ㅡ’로 변하였으므로 ‘여느’를



표준어로 삼았다. ‘니나노’의 ‘닉’도 언어 현실에서 [니]로 소리 나므로 ‘니나노’를 표준어로 삼는다.

④ ‘으레’ 역시 원래 ‘의례(依例)’에서 ‘으레’가 되었던 것인데 ‘례’의 발음이 ‘레’로 바뀌었으므로 ‘으레’를 표준어로 삼았다. 한편 부사 ‘으레’에 다시 ‘-이/-히’가 붙은 ‘으레이, 으레히’가 같은 뜻으로 쓰이는 일이 많은데, 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구려 걱쟁이	-구료 걱정이	1. 서울~, 알~, 찰~. 2. 도토리, 상수리 등의 받침은 ‘걱쟁이’임.
나무라다 미수 바라다 상추 시러베-아들 주책 지루-하다 튀기	나무래다 미시 바래다 상치 실업의-아들 주착 지리-하다 트기	미숫-가루. ‘바램[所望]’은 비표준어임. ~쌈. ← 主着. ~망나니, ~없다. ← 支離.
허드레 호루라기	허드래 호루루기	허드렛-물, 허드렛-일.

제11항은 제8항~제10항에서 제시한 모음 변화에 속하지 않는 예들을 보인 조항이다. 변화된 발음이 굳어진 경우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 ‘-구려’와 ‘-구료’는 미묘한 의미 차가 있는 듯도 하나 언중이 분명히 의식할 수 없으므로 ‘-구려’ 쪽만 살린 것이다.

② 원래 ‘깍쟁이’였던 말이 ‘ㅣ’ 역행 동화를 겪으면 ‘깍쟁이’가 되어야 하는데, 언어 현실에서 ‘ㅈ’와 ‘ㅊ’가 발음으로 뚜렷이 구별되지 않고 표기상 ‘ㅈ’를 선호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표준어를 ‘깍쟁이’로 정하였다. 그럼으로써 이는 ‘ㅣ’ 역행 동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진 표준어가 되어 제9항의 예외로 다루지 않고 여기에서 다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떡갈나무 따위의 열매를 싸고 있는 술잔 모양의 받침을 뜻하는 ‘깍쟁이’는 원래의 말을 그대로 두었다.

③ ‘나무래다, 바라다’는 방언으로 해석하여 ‘나무라다, 바라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그런데 근래 ‘바라다’에서 파생된 명사 ‘바람’을 ‘바람’으로 잘못 쓰는 경향이 있다. ‘바람[風]’과의 혼동을 피하려는 심리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동사가 ‘바라다’인 이상 그로부터 파생된 명사가 ‘바람’이 될 수는 없어 비고에서 이를 명기하였다. ‘바라다’의 활용형으로, ‘바랬다, 바래요’는 비표준형이고 ‘바랐다, 바라요’가 표준형이 된다. ‘나무랐다, 나무라요’도 ‘나무랬다, 나무래요’를 취하지 않는다.

④ ‘미시/미수, 상치/상추’ 역시 발음의 변화에 따라 ‘미수, 상추’가 현실 발음으로 더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미시, 상치’로 쓰지 않는다. 종(種)이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난 새끼를 말하는 ‘튀기’는 원래 ‘트기’였으나 발음이 변하여 ‘튀기’가 되었고 이 말이 널리 쓰이므로 표준어로 삼았다.

⑤ ‘주책(← 주착, 主着)’은 한자어 형태를 버리고 변한 형태를 취한 것이다. 그런데 ‘주착’이 원래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이라는 뜻이었으므로 ‘주책없다’가 표준어이고 ‘주책이다’는 비표준형이었으나, ‘주책’의 의미로서 ‘일정한 잣대가 없이 되는대로 하는 짓’을 인정함에 따라 2016년에는 ‘주책없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주책이다’를 표준형으로 인정하였다.

⑥ ‘지루하다(← 지리하다, 支離--)’ 역시 한자어 어원의 형태를 버리고 변한 형태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지리멸렬(支離滅裂)’에서는 ‘지리’가 유지되고 있다.

⑦ ‘시러베아들(← 실업의아들), 허드레(← 허드래), 호루라기(← 호루루기)’ 역시 변화된 후의 현실 발음을 반영한 표준어이다.

## 제12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웃-넓이	웃-넓이	
웃-눈썹	웃-눈썹	
웃-니	웃-니	
웃-당줄	웃-당줄	
웃-덧줄	웃-덧줄	
웃-도리	웃-도리	
웃-동아리	웃-동아리	준말은 ‘윗동’임.
웃-막이	웃-막이	
웃-머리	웃-머리	
웃-목	웃-목	
웃-몸	웃-몸	~ 운동.
웃-바람	웃-바람	
웃-배	웃-배	
웃-벌	웃-벌	
웃-변	웃-변	수학 용어.
웃-사랑	웃-사랑	
웃-세장	웃-세장	
웃-수염	웃-수염	
웃-입술	웃-입술	
웃-잇몸	웃-잇몸	
웃-자리	웃-자리	
웃-중방	웃-중방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위-짜	웃-짜	~구름[上層雲].
위-쪽	웃-쪽	
위-채	웃-채	
위-층	웃-층	
위-치마	웃-치마	
위-턱	웃-턱	
위-팔	웃-팔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웃-국	윗-국	~걷다.
웃-기	윗-기	
웃-돈	윗-돈	
웃-비	윗-비	
웃-어른	윗-어른	
웃-웃	윗-웃	

제12항은 언어 현실에서 자주 혼동되어 쓰이는 '웃-'과 '윗-'을 구별하여 쓰도록 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위, 아래'의 개념상 대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웃-'으로 쓰고, 그 외에는 '윗-'을 표준어로 삼았다. 예를 들어 '웃돈'과 '윗돈' 중에서는, 개념상 '아랫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웃돈'을 표준어로 삼은 반면, '윗목'은 이에 대립하는 '아랫목'이 가능하므로 '웃목'이 아닌 '윗목'을 표준어로 삼았다.

여기에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윗-'이 붙은 단어가 있으면 대체로 '아랫-'이 붙은 단어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랫-'이 붙은 말이 없더라도 '윗-'이 의미상 '아랫-'과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윗-'으로 쓸

수 있다. ‘윗넓이’가 그런 경우이다. ‘아랫넓이’라는 말은 없지만 ‘윗넓이’의 ‘윗-’이 의미상 ‘아랫-’과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윗넓이’라고 쓴다. 둘째, ‘윗-/아랫-’에는 사이시옷이 있는데,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만 쓰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령 벽에 사진을 위아래로 나란히 붙여 놓았을 때에 두 사진을 ‘위 사진[위사진], 아래 사진[아래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윗사진[위사진], 아랫사진[아래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① ‘다만 1’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한글 맞춤법 제30항 규정에 맞춘 것이다. 사이시옷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쓰는 것인데, 이미 된소리나 거센소리인 것은 이 경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② ‘다만 2’는 ‘위’와 ‘아래’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의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조항이다. ‘웃돈’의 짝으로 ‘아랫돈’은 없고 ‘웃어른’의 짝으로 ‘아랫어른’도 없다. 따라서 ‘윗돈, 윗어른’을 쓰지 않는다. 맨 곁에 입는 옷을 가리키는 ‘웃옷’도 이와 짝하는 ‘아랫옷’이 없으므로 ‘윗옷’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 입는 옷을 가리키는 ‘윗옷’은 표준어이다. 이때의 ‘윗-’은 ‘아래’와 대립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제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구법(句法)	귀법	
구절(句節)	귀절	
구점(句點)	귀점	
결구(結句)	결귀	

ㄱ	ㄴ	비 고
경구(警句)	경귀	
경인구(警人句)	경인귀	
난구(難句)	난귀	
단구(短句)	단귀	
단명구(短命句)	단명귀	
대구(對句)	대귀	~법(對句法).
문구(文句)	문귀	
성구(成句)	성귀	~어(成句語).
시구(詩句)	시귀	
어구(語句)	어귀	
연구(聯句)	연귀	
인용구(引用句)	인용귀	
절구(絶句)	절귀	

다만, 다음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귀-글	귀-글	
글-귀	글-귀	

종래 ‘구’와 ‘귀’로 혼동이 심했던 ‘句’의 음을 ‘구’로 통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귀절, 대구, 인용귀’ 등은 모두 ‘구절, 대구, 인용구’로 써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글의 구나 절을 가리킬 때에는 ‘글귀’라고 하고 한시(漢詩) 등에서 두 마디가 한 덩이씩 되게 지은 글을 가리킬 때에는 ‘귀글’이라고 한다.

### 제3절 준말

####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귀찮다	귀치 않다	
김	기음	~매다.
따리	또아리	
무	무우	~강즙, ~말랭이, ~생채, 가랑~, 갓~, 왜~, 총각~.
미다	무이다	1. 털이 빠져 살이 드러나다. 2. 찢어지다.
뱀	배암	
뱀-장어	배암-장어	
빔	비음	설~, 생일~.
샘	새암	~바르다, ~바리.
생-쥐	새앙-쥐	
솔개	소리개	
온-갓	온-가지	
장사-치	장사-아치	

이 조항은 본말이 줄어 준말이 된 경우, 본말이 이론적으로만 있거나 사전에만 남아 있고 현실 언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으면 본말이 아닌 준말을 표준어로 삼음을 말하고 있다.

① ‘귀치 않다’나 ‘온가지’는 현실 언어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므로 ‘귀찮다, 온갓’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때 ‘귀찮다’의 ‘찮’은 ‘찮’으로 적지 않는다.(한글 맞춤법 제39항 참조)

② ‘생쥐’의 본말인 ‘새앙쥐’는 비표준어이다. 그러나 맛젓과 동물인 ‘사향뒤쥐’를 달리 이르는 말인 ‘새앙쥐’는 표준어이다. 이 말은 ‘생쥐’로 줄여 발음하지 않기 때문이다.

준말 형태를 취한 이 말들 중 2음절이 1음절로 된 음절은 대개 긴소리로 발음된다. 가령 ‘무(← 무우)’, ‘김(← 기음)’, ‘뱀(← 배암)’, ‘쌈(← 새암)’이나 ‘생쥐(← 새앙쥐)’의 ‘생’은 긴소리이다. 그러나 ‘술개(← 소리개)’의 ‘술’은 짧은소리로 난다.

### 제15항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경황-없다	경-없다	모양이 제격에 어울린다.	
궁상-떨다	궁-떨다		
귀아-개	귀-개		
김새	김		
낙인-찍다	낙-하다/낙-치다		
내왕-꾼	냉-꾼		
돛-자리	돛		
뒤웅-박	똥-박		
뒷물-대야	뒷-대야		
마구-잡이	막-잡이		
맵자-하다	맵자다		
모이	모		
벽-돌	벽		
부스럼	부름		정월 보름에 쓰는 ‘부름’은 표준어임.
살얼음-판	살-판		
수두룩-하다	수둑-하다		



ㄱ	ㄴ	비 고
암-죽	암	
어음	엄	
일구다	일다	
죽-살이	죽-살	
퇴박-맞다	퇴-맞다	
한통-치다	통-치다	

**[붙임]** 다음과 같이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아래-로	알-로	

제15항은 본말이 훨씬 널리 쓰이고 있고 그에 대응되는 준말이 쓰인다 하여도 그 세력이 극히 미미한 경우 본말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한 조항이다. 준말들이 얼마간이라도 일반적으로 쓰인다면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였겠으나, 그 쓰임이 워낙 적을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형태도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준말 형태를 비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① ‘경없다’는 ‘경황없다’가 줄어든 말이나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사 ‘경황’만을 줄인 ‘경’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궁떨다’는 ‘궁상떨다’가 줄어든 말이나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사 ‘궁상’만을 줄인 ‘궁’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② ‘귀개’는 잘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가 단음으로 읽힐 염려도 있어 ‘귀이개’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귀이개’의 뜻으로 쓰이는 ‘귀지개, 귀후비개, 귀쑤시개, 귀파개’ 등은 모두 비표준어이다. ‘귀이개’로 파내는 것은 ‘귀지’인데, ‘귀지’의 비표준어로

는 ‘긷밥, 귀에지, 귀창’ 등이 있다.(표준어 규정 제17항 참조)

③ ‘낙인찍다’의 뜻으로는 ‘낙하다’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 따위의 표면을 불에 달군 쇠로 지져서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다’의 뜻으로는 ‘낙하다’를 표준어로 인정한다.

④ ‘뚫’은 거의 쓰이지 않고 ‘뚫자리’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쓰이므로 ‘뚫자리’만을 표준어로 삼았으나, 합성어 ‘뚫바늘, 뚫틀’과 같은 말에서는 ‘뚫’을 쓴다. 이때에는 ‘뚫자리바늘, 뚫자리틀’과 같이 쓰지 않는다.

⑤ ‘엄(←어음)’은 인정하지 않고 ‘맘(←마음), 답(←다음)’은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불균형한 처리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음’은 사무적인 용어인 만큼 ‘맘, 답’과 같은 생활 용어보다는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어 ‘엄’을 취하지 않은 것이다.

⑥ [붙임]에서 ‘알로’는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로’와는 달리 ‘이리로, 그리로, 저리로, 요리로, 고리로, 조리로’ 등은 모두 ‘일로, 글로, 절로, 읍로, 골로, 줄로’와 같은 준말 형태가 표준어로 인정된다.

###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ㄱ은 본말이며, ㄴ은 준말임.)

ㄱ	ㄴ	비 고
거짓-부리	거짓-불	작은말은 ‘가짓부리, 가짓불’임. 저녁~.
노을	놀	
막대기	막대	
망태기	망태	
머무르다	머물다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음.
서두르다	서둘다	
서투르다	서틀다	
석새-삼베	석새-베	

ㄱ	ㄴ	비 고
시-누이	시-누/시-누	외우며, 외워:외며, 외어.  '찌꺼지'는 비표준어임.
오-누이	오-누/오-누	
외우다	외다	
이기죽-거리다	이죽-거리다	
찌꺼기	찌끼	

제14항, 제15항과는 달리, 이 조항에서는 본말과 준말을 함께 표준어로 삼은 단어들을 보였다. 두 형태가 다 널리 쓰이는 것들이어서 어느 하나를 버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① 본말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와 준말 ‘머물다, 서둘다, 서툴다’의 비고란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단서를 붙였는데, 이는 ‘가지다’의 준말 ‘갖다’의 모음 어미 활용형 ‘갖아, 갖아라, 갖았다, 갖으오, 갖은’ 따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준말의 활용형을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머물어, 서둘어서, 서툴었다’는 ‘머물러, 서둘러서, 서툴렀다’로 쓰는 것이 옳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어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외우다’의 준말인 ‘외다’, ‘거두다’의 준말인 ‘걷다’는 각각 ‘외어’, ‘걷어’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② ‘외우다’와 ‘외다’의 관계는 좀 특이하다. 과거에는 ‘외다’만을 표준어로 삼았지만, 이 조항에서는 ‘외우다’를 함께 인정한 것이다. 준말에서 본말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특이한 것인데, 둘의 관계가 여타의 본말과 준말의 관계와 비슷하여 여기에서 함께 다루었다.

## 제4절 단수 표준어

###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거든-그리다	거둥-그리다	1. 거든하게 거두어 싸다. 2. 작은말은 '가든-그리다'임.
구어-박다	구워-박다	사람이 한 군데에서만 지내다.
귀-고리	귀엣-고리	
귀-뿔	귀-뿔	
귀-지	귀에-지	
까딱-하면	까땡-하면	
꼭두-각시	꼭둑-각시	
내색	나색	감정이 나타나는 얼굴빛.
내숭-스럽다	내흉-스럽다	
남남-거리다	암남-거리다	남남-하다.
남남-이	암남-이	
네[四]	네	~ 돈, ~ 말, ~ 발, ~ 푼.
넉[四]	너/네	~ 냥, ~ 되, ~ 섬, ~ 자.
다다르다	다달다	
답-싸리	대-싸리	
더부룩-하다	더뿌룩-하다/듬뿌룩-하다	
-던	-든	선택,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는 '-든'임.
-던가	-든가	가-든(지) 말-든(지), 보-든(가) 말-든(가).
-던걸	-든걸	
-던고	-든고	
-던데	-든데	

ㄱ	ㄴ	비 고
-던지	-든지	
-(으)려고	-(으)ㄹ려고/-(으)ㄹ라고	
-(으)려야	-(으)ㄹ려야/-(으)ㄹ래야	
망가-뜨리다	망그-뜨리다	
멸치	머루치/메리치	
반빳-아치	반비-아치	‘반빳’ 노릇을 하는 사람. 찬비(饑婢).
		‘반비’는 밥 짓는 일을 맡은 계집종.
보습	보십/보섭	
본새	본새	
봉숭아	봉숭화	‘봉선화’도 표준어임.
뺨-따귀	뺨-따귀/뺨-따구니	‘뺨’의 비속어임.
뼈개다[斫]	뼈기다	두 조각으로 가르다.
뼈기다[誇]	뼈개다	뿜내다.
사자-탈	사지-탈	
상-판대기	쌍-판대기	
세[三]	세/석	~ 돈, ~ 말, ~ 발, ~ 푼.
석[三]	세	~ 냥, ~ 되, ~ 섬, ~ 자.
설령(設令)	서령	
-습니다	-읍니다	먹습니다, 갔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음 뒤에는 ‘-읍니다’임.
시름-시름	시늴-시늴	
썸벅-썸벅	썸벅-썸벅	
아궁이	아궁지	
아내	안해	
어-중간	어지-중간	
오금-팽이	오금-탱이	

ㄱ	ㄴ	비 고
오래-오래 -올시다 옹골-차다 우두커니 잠-투정 재봉-틀 짓-무르다 짚-북데기 쪽	도래-도래 -올습니다 공골-차다 우두머니 잠-투세/잠-주정 자봉-틀 짓-물다 짚-북세기 짝	돼지 부르는 소리.  작은말은 ‘오도카니’임.  발~, 손~.  ‘짚북더기’도 비표준어임. 편(便). 이~, 그~, 저~. 다만, ‘아무-짝’은 ‘짝’임.  ‘천정부지(天井不知)’는 ‘천정’임.
천장(天障) 코-맹맹이 흥-엷다	천정 코-맹녕이 흥-헷다	

이 조항은 발음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둘 이상의 말 중에서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형태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았음을 보인 것이다.

① ‘사람이 한 군데에서만 지내다’의 뜻으로 쓰이는 ‘구어박다’는 ‘구워박다’에서 온 말이지만 본뜻과 떨어져 원형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② ‘귀엣고리’는 옛말 ‘귀엣골회’에서 온 말이지만, 현대에는 거의 쓰이지 않아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귀엣고리’와 유사한 형태인 ‘눈엣가시, 귀엣말, 앞엣짓, 뒤엣짓’ 등은 현대에 널리 쓰이므로 표준어로 인정한다.

③ ‘귀지’에 비해 ‘귀에지’는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귀지’를 표준어로 삼았다.

④ 과거에는 ‘감정이 나타나는 얼굴빛’과 ‘마음에 느낀 것이 얼굴에 드러나 보이는 꼴’을 구별하여 각각 ‘나색’과 ‘내색’으로 구별한 사전도 있었지만, 두 의미가 사실상 구별되지 않고 ‘나색’은 현대에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내색’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⑤ ‘다닫다’는 옛말 ‘다닫다’에서 온 말이지만, 현대에는 ‘다다르다’만 쓰게 되었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⑥ ‘대’와 ‘싸리’가 합쳐진 말로 언뜻 ‘대싸리’가 인정될 듯하나, 실제 언어 현실에서는 ‘땀싸리’가 널리 쓰이므로 ‘땀싸리’를 표준어로 삼았다. ‘땀싸리’의 ‘땀’은 옛말의 ‘대박리’에 있던 ‘땀’이 앞말의 받침으로 나타난 것이다.

⑦ ‘-던’을 ‘-든’으로 쓰거나 ‘-던가, -던지’를 ‘-든가, -든지’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먹던 밥’, ‘그이가 밥을 먹던가?’, ‘어찌나 출던지’와 같은 말에서는 ‘던’이 맞고 ‘든’은 틀린 표현이다. 그러나 선택,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데에는 ‘-든, -든가, -든지’가 쓰인다. 예컨대 ‘먹든(가) 말든(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가든(지) 말든(지)’ 따위와 같이 쓰는 것은 옳은 표현이다.

⑧ ‘본새, 사자탈, 상판대기, 설령, 재봉틀’은 한때 ‘뽀새, 사지탈, 쌍판대기, 서령, 자봉틀’과 같은 형태로도 쓰였으나 이들 중 ‘사지탈, 서령, 자봉틀’은 언어 현실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뽀새, 쌍판대기’는 비속어의 어감이 강하여 표준어로 삼지 않았다.

⑨ ‘서, 너’는 비고란에서 명시한 ‘돈, 말, 밭, 푼’ 따위의 앞에서 주로 쓰이고 ‘석, 녁’은 비고란에서 명시한 ‘냥, 되, 섬, 자’ 따위의 앞에서 쓰인다. 그러나 ‘서, 석’, ‘너, 녁’이 반드시 그러한 단위에만 붙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보리) 서/너 홉’, ‘(종이) 석/ 녁 장’과 같은 말도 표준어로 인정된다. 다만, ‘서, 너’가 쓰이는 곳에는 ‘석, 녁’이 쓰일 수 없고 ‘석, 녁’이 쓰이는 곳에는 ‘서, 너’가 쓰일 수 없다.

⑩ ‘-습니다’와 ‘-읍니다’는 종래에 ‘-습니다’와 ‘-읍니다’ 두 가지로 적던 것을 모두 ‘-습니다’로 쓰기로 하였다. 구어에서 ‘-습니다’가 훨씬 널리 쓰이기도 하거니와 동일한 형태를 둘로 나누어 쓸 이유가 없으므로 ‘-습니다’ 쪽으로 통일한 것이다. ‘-올습니다/-올시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올시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⑪ ‘썸벅썸벅’은 ‘쓱쓱쓱’의 뜻으로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으나 ‘잘 드는 칼에 쉽게 자꾸 베어지는 모양이나 그 소리’의 뜻으로는 표준어로 인정한다.

⑫ ‘짓무르다’는 준말 ‘짓물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았다. ‘무르다’가 ‘물다’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짓무르다’도 ‘짓물다’로 준 것을 비표준어로 본 것이다.

⑬ ‘천정(天井)’은 한동안 ‘천장(天障)’의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였으나, 현대에는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위의 한계가 없음을 뜻하는 ‘천정

부지(天井不知)’는 널리 사용하므로 표준어로 인정되는 말이다.

## 제5절 복수 표준어

### 제18항

다음 단어는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도 허용한다.

ㄱ	ㄴ	비 고
네	예	
쇠-	소-	-가족, -고기, -기름, -머리, -뼈.
괴다	고이다	물이 ~, 밑을 ~.
꾀다	꼬이다	어린애를 ~, 벌레가 ~.
씩다	쏘이다	바람을 ~.
죄다	조이다	나사를 ~.
찍다	쫓이다	별을 ~.

이 조항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형태가 모두 널리 쓰이거나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 현상에 따라 한쪽이 다른 한쪽의 발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두 형태 모두를 표준어로 삼았음을 보인 것이다. 복수 표준어는 이와 같이 발음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어휘에 관련된 것도 있다.(표준어 규정 제26항 참조)

① 대답하는 말로 쓰이는 ‘네’와 ‘예’는 두 형태가 비슷한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과거 ‘예’만을 표준어로 삼았던 것에서 ‘네’와 ‘예’의 복수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으로 바꾼 것이다.

② ‘쇠-/소-’에서 ‘쇠-’는 전통적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시장에 가서 쇠를 팔았다.”라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고 “시장에 가서 소를 팔았다.”라고 해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쇠-’는 단순히 ‘소’를 대치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소의’라는 뜻의 옛말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의’라는



뜻의 ‘쇠-’는 ‘쇠뺨’와 같은 곳에서 쓰이고 이때 ‘소뺨’와 같은 복수 표준어가 인정된다.

③ ‘고이다, 꼬이다, 쏘이다, 조이다, 쪼이다’ 등에 있는 두 개의 모음 ‘고’와 ‘ㅣ’는 단모음 ‘기’로 축약된다. 그런데 ‘괴이다, 꺾이다, 썩이다, 죄이다, 쪼이다’와 같은 말은 자주 쓰이기는 하나,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ㄱ, ㄴ을 모두 표준어로 삼음.)

ㄱ	ㄴ	비 고
거슴츠레-하다	계슴츠레-하다	~신, ~옷.
고까	꼬까	
고린-내	코린-내	교만한 태도.
교기(驕氣)	가기	
구린-내	쿠린-내	
꺼림-하다	껴름-하다	
나부랭이	너부랭이	

이 조항에서는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을 보였다. 어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엄밀히 별개의 단어라고 할 근거가 될 수도 있으나,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이면서 그 어감의 차이가 미미한 것이어서 복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① ‘고까/꼬까’는 알록달록하게 곱게 만든 아이의 옷이나 신발 등을 이르는 말이다. ‘고까’는 ‘때때’와 복수 표준어 관계에 있다. 따라서 ‘고까신/꼬까신/때때신’, ‘고까옷/꼬까옷/때때옷’이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다.

② ‘고린내/코린내’보다 다소 큰 느낌을 주는 ‘구린내/쿠린내’도 복수 표준어이다. ‘고리다/코리다’, ‘구리다/쿠리다’ 역시 모두 표준어이다.

③ ‘나부랭이’는 ‘나부랑이’에서 온 말이다. 표준어 규정 제9항에서 ‘ㅣ’ 역행 동화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경우에는 언어 현실에서 압도적으로 ‘ㅣ’ 역행 동화가 된 ‘나부랭이’를 많이 쓰므로 ‘나부랭이’가 표준어이다. 이와 비슷한 처리를 한 말로 ‘냄비, 새내기, 풋내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나부랭이/너부랭이’에서 ‘나부랭이’에 견주어 ‘너부랭이’를 표준어로 삼지 않은 것은 언어 현실이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제1절 고어

##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난봉	봉	
낭떠러지	낭	
설거지-하다	설꺄다	
애달프다	애닦다	
오동-나무	머귀-나무	
자두	오얏	

제3장에서는 발음상 변화를 겪은 어휘가 아니라 어휘적으로 형태를 달리한 어휘를 다루고 있다. 언어의 발음, 형태, 의미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과거에 쓰이던 단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이지 않게 되었을 때, 언어 현실에 따라 표준어 어휘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어문 규범은 다소 보수적이어서 과거의 어휘가 덜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쓰이는 용례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표준어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제20항은 현대에 쓰이지 않거나 매우 의고(擬古)적인 글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여 표준어에서 제외된 사어를 보인 것이다.

- ① ‘설꺄다’를 비표준어로 삼은 것은 ‘설꺄어라, 설꺄으니, 설꺄터니’와 같은 활용형

이 쓰이지 않아 어간 ‘설겅-’을 추출해 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명사 ‘설거지’를 ‘설겅-’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따라서 표기도 ‘설겅이’로 하지 않고) 원래부터의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이 명사에 ‘-하다’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했다.

② ‘애답다’는 노래 등에서 ‘애답다 어이하리’와 같이 쓰이기도 하나 이는 옛말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일 뿐이다. 이 용언 역시 ‘애답으니, 애답아서, 애답은’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현재는 비표준어로 처리하고, ‘애달프고, 애달프지, 애달파서, 애달픈’과 같이 활용에 제약이 없는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이와 달리 ‘섞다’는 ‘서럽다’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

③ ‘머귀나무’는 ‘오동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에서 제외하나, ‘운향과의 낙엽 활엽 소교목’의 뜻으로는 표준어로 인정한다.

④ ‘오얏’은 ‘오얏 이(李)’ 등에 남아 있으나 이 역시 옛말의 흔적일 뿐, 현대 국어의 어휘로는 쓰이지 않으므로 고어로 처리하였다.

## 제2절 한자어

###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가루-약	말-약	
구들-장	방-돌	
길품-삿	보행-삿	
끼막-눈	맹-눈	
꼭지-미역	총각-미역	
나뭇-갓	시장-갓	
늪-다리	노-닥다리	

ㄱ	ㄴ	비 고
두껍-달이	두껍-창	
떡-암죽	병-암죽	
마른-같이	건-같이	
마른-빨래	건-빨래	
메-찰떡	반-찰떡	
박달-나무	배달-나무	
밥-소라	식-소라	큰 낫그릇.
사래-논	사래-답	묘지거나 마름이 부쳐 먹는 땅.
사래-밭	사래-전	
삯-말	삯-마	
성냥	화-곽	
숫을-무늬	숫을-문(~紋)	
외-지다	벽-지다	
움-파	동-파	
앞-담배	앞-초	
잔-돈	잔-전	
조-당수	조-당죽	
죽데기	피-죽	‘죽더기’도 비표준어임.
지겟-다리	목-발	지게 동발의 양쪽 다리.
짐-꾼	부지-꾼(負持-)	
푼-돈	분-전/푼-전	
흰-말	백-말/부루-말	‘백마’는 표준어임.
흰-죽	백-죽	

단순히 한자어라는 이유로 표준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한자 혹은 한자가 들어 있는 어휘 중 현대에 쓰이지 않는 말이 표준어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그러한 말들을 별도로 보였다.

① ‘가루약(—藥)’과 ‘말약(末藥)’ 중에서 ‘말약’은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가루차/말차’, ‘계핏가루/계피말’ 등에서는 ‘말(末)’이 쓰인 말도 표준어이다.

② ‘잎담배’와 ‘잎초(-草)’ 중에서 ‘잎초’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엽초(葉草)’, ‘초담배(草--)’ 등에서는 ‘초(草)’가 쓰인 말도 표준어이다.

③ ‘흰말’과 ‘백말(白-)’, ‘흰죽’과 ‘백죽(白粥)’ 중에서 ‘백말, 백죽’은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백마(白馬)’, ‘백나비(白--)', ‘백모래(白--)’ 등에서는 ‘백(白)’이 쓰인 말도 표준어이다.

##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개다리-소반	개다리-밥상	馬房~.
겸-상	맛-상	
고봉-밥	높은-밥	
단-벌	흙-벌	
마방-집	마바리-집	
민망-스럽다/면구-스럽다	민주-스럽다	
방-고래	구들-고래	
부항-단지	뜸-단지	
산-누에	멧-누에	
산-줄기	멧-줄기/멧-밭	
수-삼	무-삼	
심-돋우개	불-돋우개	

ㄱ	ㄴ	비 고
양-파	등근-파	
어질-병	어질-머리	
윤-달	군-달	
장력-세다	장성-세다	
제석	젯-돛	
총각-무	알-무/알타리-무	
칫-솔	잇-솔	
포수	총-댕이	

앞의 제외항과 대립적인 규정이다. 제외항에서 단순히 한자어라서가 아니라 쓰임이 적어서 표준어로 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유어라고 하여도 쓰임이 없으면 표준어로 삼지 않은 것이다. 조항의 예들은 고유어라도 현실 언어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생명을 잃은 것이라 그에 짝이 되는 한자어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① 두 글자 모두 한자로 이루어진 ‘겸상(兼床)’과 한 글자가 고유어인 ‘맞상(-床)’ 중에서 ‘맞상’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② ‘단별(單-)’과 ‘홀별’ 중에서 ‘홀별’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홀별’이 ‘한 겹으로만 된 물건’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표준어이다. ‘홀별’이 비표준어인 것과는 달리 ‘단자음/홀자음’, ‘단탁자/홀탁자’, ‘단비례/홀비례’, ‘단수(單數)/홀수(-數)’에서는 ‘홀’이 쓰인 말도 표준어이다.

③ ‘총각무(總角-)’와 ‘알타리무’ 중에서 ‘알타리무’는 간혹 쓰이나 그 쓰임이 ‘총각무’에 비해서는 훨씬 적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총각김치’만을 표준어로 삼고 ‘알타리김치’는 표준어에서 제외한다.

### 제3절 방언

####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도 표준어로 남겨 둠.)

ㄱ	ㄴ	비 고
멍게	우렁챙이	
물-방개	선두리	
애-순	어린-순	

제23항은 방언이라도 매우 자주 쓰여 표준어만큼 혹은 표준어보다 훨씬 더 널리 쓰이게 된 말은 표준어로 새로이 인정한 것이다.

① ‘멍게’와 ‘우렁챙이’ 중에서 ‘우렁챙이’가 전통적 표준어였으나, ‘멍게’가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멍게’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이때 전통적 표준어인 ‘우렁챙이’도 학술 용어 등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어로 남겨 두었다. ‘물방개’와 ‘선두리’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② ‘애순’과 ‘어린순’ 중에서 ‘어린순’이 전통적 표준어였으나, ‘애순’이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애순’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애벌레’를 ‘어린벌레’라고 하는 것은 비표준어이다. 현실 언어에서 ‘어린벌레’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귀말-머리	귓-머리	준말은 '생-손'임.
까-몽개다	까-무느다	
막상	마기	
빈대-떡	빈자-떡	
생인-손	생안-손	
역-겹다	역-스럽다	
코-주부	코-보	

제24항은 제23항과 마찬가지로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은 규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애초의 표준어를 아예 버린 것이 다르다.

① 방언형이었던 '까몽개다'가 표준어였던 '까무느다'보다 널리 쓰이므로 '까몽개다'를 표준어로 삼고 '까무느다'를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표준어는 개별적으로 쓰임을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비표준어와 유사한 형태가 모두 비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까무느다'는 비표준어지만 '무느다'는 현실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므로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② 과거 표준어였던 '빈자떡'은 방언이었던 '빈대떡'에 완전히 밀려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빈대떡'만 표준어로 남긴 것이다. '떡'의 한자 '병(餅)'을 쓴 '빈자병'도 비표준어이다.

③ 방언이었던 '역겹다'가 표준어였던 '역스럽다'보다 널리 쓰이므로 '역겹다'를 표준어로 삼고 '역스럽다'를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고난겹다, 자랑겹다, 원망겹다' 등은 '겹다'가 결합한 형태가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비표준어로 처리하였고, '-스럽다'가 결합한 '고난스럽다, 자랑스럽다, 원망스럽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④ '생으로 얹게 된 손(가락)'이라는 뜻의 '생안손'은 그 방언형이었던 '생인손'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으므로 '생인손'을 표준어로 삼았다. 손가락의 모양이 새

양(생강)처럼 생긴 ‘새양손이’(제25항)와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

## 제4절 단수 표준어

###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게끔	-게시리	
겸사-겸사	겸지-겸지/겸두-겸두	
고구마	참-감자	
고치다	낫우다	병을 ~.
골목-쟁이	골목-자기	
광주리	광우리	
괴통	호구	자루를 박는 부분.
국-물	말-국/말-국	
군-표	군용-어음	
길-잡이	길-앞잡이	‘길라잡이’도 표준어임.
까치-발	까치-다리	선반 따위를 받치는 물건.
꼬창-모	말뚝-모	꼬챙이로 구멍을 뚫으면서 심는 모.
나룻-배	나루	‘나루[津]’는 표준어임.
납-도리	민-도리	
농-지거리	기롱-지거리	다른 의미의 ‘기롱지거리’는 표준어임.
다사-스럽다	다사-하다	간섭을 잘하다.
다오	다구	이리 ~.
담배-꽁초	담배-꼬투리/담배-꽁치 /담배-꽁추	

ㄱ	ㄴ	비 고
담배-설대	대-설대	
대장-일	성냥-일	
뒤져-내다	뒤어-내다	
뒤통수-치다	뒤꼭지-치다	
등-나무	등-철	
등-때기	등-떠리	‘등’의 낮은말.
등잔-걸이	등경-걸이	
떡-보	떡-총이	
똑딱-단추	딸꼭-단추	
매-만지다	우미다	
먼-발치	먼-발치기	
며느라-발톱	뒷-발톱	
명주-붙이	주-사니	
목-메다	목-맺히다	
밀짚-모자	보릿짚-모자	
바가지	열-바가지/열-박	
바람-꼭지	바람-고다리	튜브의 바람을 넣는 구멍에 붙은, 쇠로 만든 꼭지.
반-나절	나절-가웃	
반두	독대	그물의 한 가지.
버젓-이	늪연-히	
본-받다	법-받다	
부각	다시마-자반	
부끄러워-하다	부끄리다	
부스러기	부스러지	
부지깽이	부지팽이	
부항-단지	부항-항아리	부스럽에서 피고름을 빨아내기 위하여

ㄱ	ㄴ	비 고
붉으락-푸르락 비켜-덩이	푸르락-붉으락 옆-사리미	부항을 붙이는 데 쓰는, 자그마한 단지.  김멜 때에 흙덩이를 옆으로 빼내는 일, 또는 그 흙덩이.
빙충-이 빠-뜨리다 뽀뽀-하다 뽀-내다	빙충-맞이 빠-치다 왜긋다 느물다	작은말은 ‘뱅충이’. ‘빠트리다’도 표준어임.
사로-잠그다 살-풀이 상투-쟁이	사로-채우다 살-막이 상투-꼬부랑이	자물쇠나 빗장 따위를 반 정도만 걸어 놓다.  상투 튼 이를 놀리는 말.
새앙-손이 셋-별 선-머슴 섭섭-하다 속-말	생강-손이 새벽-별 풋-머슴 애운-하다 속-소리	국악 용어 ‘속소리’는 표준어임.
손목-시계 손-수레 쇠-고랑 수도-꼭지 숙성-하다	팔목-시계/팔뚝-시계 손-구루마 고랑-쇠 수도-고동 숙-지다	‘구루마’는 일본어임.
순대 술-고래 식은-땀	골-집 술-꾸러기/술-부대/ 술-보/술-푸대 찬-땀	
신기-롭다 쌍둥-밤	신기-스럽다 쪽-밤	‘신기-하다’도 표준어임.

ㄱ	ㄴ	비 고
쏟살-같이	쏟살-로	씨름 용어. 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게 넘기다.
아주	영판	
안-걸이	안-낙시	
안다미-씩우다	안다미-시키다	
안쓰럽다	안-슬프다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하다	
얇은뱅이-저울	얇은-저울	
알-사탕	구슬-사탕	
암-내	결땀-내	
앞-지르다	따라-먹다	
애-벌레	어린-벌레	
얇은-피	물탄-피	
언뜻	편뜻	
언제나	노다지	
열룩-말	워라-말	
열심-히	열심-으로	
입-담	말-담	
자배기	너벅지	
전봇-대	전선-대	
쥐락-펴락	펴락-쥐락	
-지만	-지만서도	← -지마는.
짓고-땡	지어-땡/짓고-땡이	
짧은-작	짜른-작	
참-쌀	이-참쌀	
청대-콩	푸른-콩	
참-범	갈-범	

제17항과 같은 취지로 단수 표준어를 규정한 것이다. 즉,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 국어를 풍부하게 하기보다는 혼란을 야기한다는 판단에서 어느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제17항이 발음 변화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 조항은 어휘의 기원형이 서로 다른 경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① ‘-계끔’과 ‘-게시리’ 중 ‘-게시리’는 꽤 많이 쓰이는 편이나, 방언형으로 보아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더구나 이들과 같은 의미의 어미로 ‘-도록’이 널리 쓰이고 있어 ‘-계끔’ 하나만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② ‘고구마’는 ‘감자’보다 맛이 달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참-’과 감자’를 합한 ‘참감자’를 ‘고구마’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으나, 굳이 ‘참감자’를 사용하여 현실 언어를 어지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③ ‘고치다’와 ‘낫우다’ 중 ‘낫우다’는 일부 방언에서만 쓰이고 서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다.

④ ‘나루’는 ‘강이나 내 등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이라는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그러나 ‘나룻배’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⑤ ‘등칫’은 ‘등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에서 제외하나, ‘쥐방울덩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덩굴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⑥ ‘나절가웃’은 ‘반나절’의 뜻으로는 표준어에서 제외하나, ‘하룻낮의 4분의 3쯤 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⑦ ‘부각’과 ‘다시마자반’ 중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각’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런데 ‘김’을 사용한 음식인 ‘김부각’과 ‘김자반’은 서로 다른 음식으로, 두 단어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다.

⑧ ‘붉으락푸르락/푸르락붉으락’은 두 개가 다 인정될 법도 하다. 그러나 ‘오락가락’이나 ‘들락날락’이 ‘가락오락’이나 ‘날락들락’이 되지 못하듯이 이 종류의 합성어에는 일정한 어순이 있기 때문에, 더 널리 쓰이는 ‘붉으락푸르락’만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쥐락펴락/펴락쥐락’에서 ‘쥐락펴락’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도 마찬가지다.

⑨ ‘빠뜨리다’와 ‘빠치다’ 중에서는 ‘빠뜨리다’를 표준어로 인정한다. 다만, 표준어 규정의 제26항에 따라 ‘-뜨리다’와 함께 ‘-트리다’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므로 ‘빠트

리다’도 표준어이다.

⑩ ‘신기롭다’와 ‘신기스럽다’ 중에서는 ‘신기롭다’만을 표준어로 인정한다. ‘지혜롭다’와 ‘지혜스럽다’ 중에서도 ‘지혜롭다’만이 표준어이다. 이와는 반대로 ‘바보롭다/바보스럽다’, ‘간사롭다/간사스럽다’ 중에서는 ‘-스럽다’ 형태가 표준어이다. 한편 ‘명예롭다/명예스럽다’, ‘자유롭다/자유스럽다’, ‘평화롭다/평화스럽다’는 모두 복수 표준어이다. ‘신기롭다’와 ‘신기하다’는 복수 표준어이다.

⑪ ‘안절부절못하다’와 ‘안절부절하다’에서, ‘안절부절하다’는 부정어를 빼고 쓰면서도 의미는 반대가 되지 않고 부정어가 있는 ‘안절부절못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특이한 용법인데, 오용(誤用)으로 판단되어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칠칠치 못하다/않다’의 경우에도, ‘칠칠하다’가 ‘칠칠치 못하다/않다’는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으므로 부정어가 쓰인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다만 ‘칠칠하다’는 ‘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와 같은 긍정적 의미로는 표준어이다.

⑫ ‘-지만’과 ‘-지만서도’ 중에서 ‘-지만서도’도 ‘-게시리’와 마찬가지로 꽤 널리 쓰이는 편이나, 방언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 제5절 복수 표준어

###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복수 표준어	비 고
가는-허리/잔-허리 가락-옛/가래-옛 가뭇/기뭇 가엎다/가엎다	가엎어/가엎어워, 가엎은/가엎은.

복수 표준어	비고
감감-무소식/감감-소식	
개수-통/설거지-통	'설것다'는 '설거지하다'로.
개숫-물/설거지-물	
갱-옛/검은-옛	
-거리다/-대다	가물-, 출렁-.
거위-배/훗-배	
것/해	내 ~, 네 ~, 뉘 ~.
게을러-빠지다/게을러-터지다	
고깃-간/푸줏-간	'고깃-관, 푸줏-관, 다림-방'은 비표준어임.
곰곰/곰곰-이	
관계-없다/상관-없다	
교정-보다/준-보다	
구들-재/구재	
귀통-머리/귀통-배기	'귀통이'의 비어임.
극성-떨다/극성-부리다	
기세-부리다/기세-피우다	
기승-떨다/기승-부리다	
깃-저고리/배내-옷/배넛-저고리	
꼬까/때때/고까	~신, ~옷.
꼬리-별/살-별	
꽃-도미/불-돔	
나귀/당-나귀	
날-걸/세-불	옷판의 짚발 다음의 셋째 발.
내리-글씨/세로-글씨	
녕쿨/덩쿨	'덩쿨'은 비표준어임.
녃/쪽	동~, 서~.
눈-대중/눈-어림/눈-짐작	





복수 표준어	비 고
<p>말-동무/말-벗  매-같이/매-조미  매-통/목-매  먹-새/먹음-새  멸찌감치/멸찌가니/멸찌-이  역-통/산-역/산-역통  면-치레/외면-치레  모-내다/모-심다  모썸룩/아무썸룩  목판-되/모-되  목화-씨/면화-씨  무심-결/무심-중  물-봉숭아/물-봉선화  물-부리/빨-부리  물-심부름/물-시중  물추리-나무/물추리-막대  물-타작/진-타작  민등-산/벌거숭이-산  밑-층/아래-층  바깥-벽/밭-벽  바른/오른[右]  밭-모가지/밭-목쟁이  버들-강아지/버들-개지  벌레/버러지  변덕-스럽다/변덕-맞다  보-조개/볼-우물  보통-내기/여간-내기/예사-내기</p>	<p>‘먹음-먹이’는 비표준어임.   모-내기, 모-심기.   ~손, ~쪽, ~편.  ‘밭목’의 비속어임.   ‘벌거지, 벌러지’는 비표준어임.   ‘행-내기’는 비표준어임.</p>

복수 표준어	비 고
불-따구니/불-통이/불-때기 부침개-질/부침-질/지짐-질 불뚱-앉다/등화-지다/등화-앉다 불-사르다/사르다 비발/비용(費用) 뽕두라지/뽕루지 살-랭이/삶 삼살-개/삼사리 상두-꾼/상여-꾼 상-씨름/소-걸이 생/새앙/생강 생-뿔/새앙-뿔/생강-뿔 생-철/양-철 서럽다/쉽다 서방-질/화냥-질 성글다/성기다 -(으)세요/-(으)셔요 송이/송이-버섯 수수-깡/수숫-대 술-안주/안주 -스레하다/-스름하다 시농-말/흉내-말 시새/세사(細沙) 신/신발 신주-보/독보(積褌) 심술-꾸러기/심술-쟁이	‘불’의 비속어임. ‘부치개-질’은 비표준어임. 삶-피. ‘상도-꾼, 향도-꾼’은 비표준어임. ‘쇠뿔’의 형용. 1. ‘서양철’은 비표준어임. 2. ‘生鐵’은 ‘무쇠’임. ‘설다’는 비표준어임. 거무-, 발그-.

복수 표준어	비고
스쓰레-하다/스쓰름-하다	
아귀-세다/아귀-차다	
아래-위/위-아래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앉음-새/앉음-앉음	
알은-척/알은-체	
애-같이/애벌-같이	
애꾸눈-이/외눈-박이	‘외대-박이, 외눈-통이’는 비표준어임.
양념-감/양념-거리	
어금버금-하다/어금지금-하다	
어기여차/어여차	
어림-잡다/어림-치다	
어이-없다/어처구니-없다	
어저께/어제	
언덕-바지/언덕-배기	
얼렁-뚱뚱/엄빙-땡	
여왕-벌/장수-벌	
여쭙다/여쭙다	
여태/입때	‘여직’은 비표준어임.
여태-껏/이제-껏/입때-껏	‘여직-껏’은 비표준어임.
역성-들다/역성-하다	‘편역-들다’는 비표준어임.
연-달다/잇-달다	
옛-가락/옛-가래	
옛-기름/옛-길금	
옛-반대기/옛-자박	
오사리-잡놈/오색-잡놈	‘오합-잡놈’은 비표준어임.
옥수수/강냉이	~떡, ~묵, ~밥, ~튀김.

복수 표준어	비 고
<p>왕골-기직/왕골-자리  외겹-실/외올-실/홀-실  외손-잡이/한손-잡이  욕심-꾸러기/욕심-쟁이  우레/천둥  우지/울-보  올라-대다/올라-메다  의심-스럽다/의심-찍다  -이에요/-이어요  이틀-거리/당-고금  일일-이/하나-하나  일찌감치/일찌거니  입찬-말/입찬-소리  자리-옷/잠-옷  자물-쇠/자물-통  장가-가다/장가-들다  재롱-떨다/재롱-부리다  제-가끔/제-각기  좀-처럼/좀-체  줄-꾼/줄-잡이  중신/중매  짚-단/짚-뭇  쪽/편  차차/차츰  책-씻이/책-거리  척/체  천연덕-스럽다/천연-스럽다</p>	<p>'홀겹-실, 올-실'은 비표준어임.   우렛-소리/천둥-소리.   학질의 일종임.   '서방-가다'는 비표준어임.   '좀-체로, 좀-해선, 좀-해'는 비표준어임.   오른~, 완~.   모르는 ~, 잘난 ~ .</p>

복수 표준어	비 고
철-따구니/철-딱서니/철-딱지 추어-올리다/추어-주다 축-가다/축-나다 침-놓다/침-주다 통-꼭지/통-젓 파자-쟁이/해자-쟁이 편지-투/편지-틀 한턱-내다/한턱-하다 해웃-값/해웃-돈 혼자-되다/홀로-되다 흙-가다/흙-나다/흙-지다	‘철-때기’는 비표준어임.  통에 붙은 손잡이. 점치는 이.  ‘해우-차’는 비표준어임.

제18항과 같은 취지로 복수 표준어를 규정한 것이다. 복수 표준어는 국어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표준어가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산물이라는 생각을 불식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복수 표준어는 어감의 차이나 의미 혹은 용법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 대치하였을 때 어색한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둘 이상의 어휘를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처럼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이 좀 더 편하게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에도 추가 사정을 거쳐 복수 표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① ‘가뭍/가물’ 중에서는 ‘가뭍’이 점점 더 큰 세력을 얻어 가고 있으나, “가물에 콩 나듯”이라는 속담에서 보듯 ‘가물’도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가뭍철/가물철’, ‘왕가뭍/왕가물’ 등도 모두 복수 표준어이다.

② ‘가엎다/가엎다’는 “아이, 가엎어라.”와 “아이, 가여워.”와 같은 문장에서 보듯이 두 가지 활용형이 다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서럽다/싫다’나 ‘여쭙다/여쭙다’가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 다 같은 이유에서이다. ‘서럽게 운다’와 ‘싫게

운다’, ‘여쭙워라’와 ‘여쭙어라(여쭙라)’가 다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활용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가엿다’는 ‘가엿어, 가엿으니’와 같이 활용하고 ‘가엿다’는 ‘가여워, 가여우니’와 같이 활용한다. 그리고 ‘서럽다’는 ‘서러워, 서러우니’와 같이 활용하고 ‘싫다’는 ‘설워, 설우니’와 같이 활용한다. ‘여쭙다’는 ‘여쭙워, 여쭙우니’와 같이 활용하고, ‘여쭙다’는 ‘여쭙어(여쭙), 여쭙니’와 같이 활용한다.

③ 종래에는 ‘-거리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던 것을 현실 언어에 따라 ‘-거리다/-대다’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현실 언어에서 그러한 어형이 나타날 때로 한정된다. 가령 ‘나대다’는 ‘나거리다’가 되지 않는데, 이는 ‘나거리다’라는 말이 아예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 ‘늦모/마냥모’의 ‘마냥모’는 종래 ‘만이양모(晩移秧-)’에서 온 말이라 하여 ‘만양모’로 적었던 것이나 현대에는 어원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므로 원형을 살리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⑤ ‘되우/되통/되게’의 ‘되우’는 이제 그 쓰임이 활발치 못한 형편이기는 하나 고어로 처리하기에는 이르다 하여 복수 표준어의 하나로 인정한 것이다.

⑥ ‘떨감/떨거리’는 불을 때는 데 필요한 재료를 말하는데, 이와 비슷한 예로 ‘바느질감/바느질거리’, ‘반찬감/반찬거리’, ‘양념감/양념거리’, ‘일감/일거리’가 더 있다. 그러나 모든 ‘거리’와 ‘감’이 대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거리’는 ‘국감’이라고 하지 않고 ‘장난감’은 ‘장난거리’라고 하지 않는다.

⑦ ‘-뜨리다/-트리다’는 ‘-거리다/-대다’와 마찬가지로 둘 다 널리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였다. 이들 사이에 어감의 차이가 있는 듯도 하나 그리 뚜렷하지 않다.

⑧ ‘만큼’과 ‘만치’는 복수 표준어이고 의존 명사와 조사 양쪽으로 쓰이는 점도 같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만치 보상을 받다’, ‘노력만큼/만치 보상을 받다’와 같이 쓴다.

⑨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는 복수 표준어이다. 이와 형태상으로 유사한 ‘일찌감치/일찌거니/일찍이’, ‘널찌감치/널찍이’, ‘느지감치/느지거니/느직이’ 등과 같은 말도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 중 ‘일찍이’는 ‘일찌감치/일찌거니’와 뜻이 다른 별개의 표준어이고, ‘느직이’도 ‘느지감치/느지거니’와 뜻이 다른 별개의 표준어이다.

⑩ ‘밭-’은 ‘바깥’의 준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바깥마당/밭마당, 바깥부모/밭부모, 바깥사돈/밭사돈, 바깥상제/밭상제, 바깥주인/밭주인’에서처럼 복합어 안에서만 ‘바

끝' 대신에 쓸 수 있다. 예컨대 '바깥에 나가다'를 '밭에 나가다'라고 할 수는 없다. 현실 언어에서 그렇게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⑪ '벌레/버리지'는 복수 표준어이나 '벌거지/벌러지'는 비표준어이다.

⑫ '-(으)세요/-(으)셔요, 이에요/이어요'에서 전통 어법은 '-(으)세요, 이에요'였는데, 광복 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으)셔요, 이어요'형을 쓴 이후로 보편화되었다. 그에 따라 두 가지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삼았다.

⑬ '신발'은 단음절인 '신'만으로는 전달이 모호할 때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고 만든 말로서, 매우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⑭ '알은척/알은체'의 '알은'은 '르' 불규칙 용언인 '알다'의 활용형이므로 '안'으로 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알은'으로 굳어 버린 관용을 존중해서 '알은'형을 그대로 둔 것이다.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임'이라는 뜻과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지음'이라는 뜻이 있는 '알은척/알은체'는,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아는 척/체'와는 구별된다.

⑮ '움직이는 물체가 다른 물체의 뒤를 이어 따르다' 혹은 '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 발생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달다', '잇달다', '잇따르다'는 모두 복수 표준어이다. 이때 이 말들은 자동사로 쓰인다. 그러나 '사물을 다른 사물에 이어서 달다'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잇달다'만 표준어이다. 이때 '잇달다'는 타동사로 쓰인다. 그러므로 '화물칸을 객차 뒤에 잇달았다'와 같은 예에서 '잇달다' 대신에 '연달다, 잇따르다'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⑯ '천둥'과 동의어인 '우레'는 본래 '우르다'의 어간 '우르-'에 접미사 '-에'가 붙어서 된 말이었는데, 현대에도 꽤 자주 쓰이고 있으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종래에는 '우레'를 한자어로 보아 '우뢰(雨雷)'라 쓰기도 했으나 이는 발음상의 혼동으로 보아 표준어로 취하지 않았다.

⑰ '이에요/이어요'는 복수 표준형이다. 예전에는 '이에요'를 많이 썼는데, '이어요'도 널리 쓰이므로 표준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요'와 '이어요'는 '이다'의 어간 뒤에 '-에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이에요'와 '이어요'는 체언 뒤에 붙는데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에요', '어요'로 줄어든다. '아니다'에는 '-에요', '-어요'가 연결되므로 '아니에요(아네요)', '아니어요(아녀요)'가 되며 '이어요'와 '이에요'가 붙어 줄



어든 ‘아니여요’, ‘아니예요’는 틀린 표기이다.

(1) 받침이 있는 인명

- ㄱ. 영숙이+이에요 → 영숙이이에요 → 영숙이예요
- ㄴ. 영숙이+이어요 → 영숙이이어요 → 영숙이여요
- ㄷ. 김영숙+이에요 → 김영숙이예요

(2) 받침이 없는 인명

- ㄱ. 철수+이에요 → 철수이에요 → 철수예요
- ㄴ. 철수+이어요 → 철수이어요 → 철수여요

(3) 받침이 있는 명사

- ㄱ. 장남+이에요 → 장남이예요
- ㄴ. 장남+이어요 → 장남이여요

(4) 받침이 없는 명사

- ㄱ. 손자+이에요 → 손자이에요 → 손자예요
- ㄴ. 손자+이어요 → 손자이어요 → 손자여요

(5) 아니다

- ㄱ. 아니-+-에요 → 아니예요(→아네요)
- ㄴ. 아니-+-어요 → 아니어요(→아녀요)

☞ ‘아니여요/아니예요’는 틀린 말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표준어’를 사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표준어가 발표되었으며 그 목록은 [붙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

2011년(39항목)			
기존 표준어	추가 표준어	추가 표준어 의미	구분
~기에	~길래	‘~기에’를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별도 표준어
간질이다	간지럽히다	살갓을 문지르거나 건드려 간지럽게 하다.	복수 표준어
괴발개발	개발새발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	별도 표준어
거치적거리다	걸리적거리다	거추장스럽게 자주 여기저기 걸리거나 달다.	별도 표준어
끼적거리다	꼬적거리다	글씨나 그림 따위를 아무렇게나 자주 막 쓰거나 그리다.	별도 표준어
날개	나래	흔히 문학 작품 따위에서, ‘날개’를 이르는 말. ‘날개’보다 부드러운 어감을 준다.	별도 표준어
남우세스럽다	남사스럽다	남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듯하다.	복수 표준어
냄새	내음	코로 맡을 수 있는 나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별도 표준어
눈초리	눈꼬리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	별도 표준어
두루몽술하다	두리몽실하다	특별히 모나거나 튀지 않고 둥그스름하다.	별도 표준어
목물	등물	상체를 굽혀 엎드린 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허리에서부터 목까지 물로 씻는 일.	복수 표준어
떨어뜨리다	떨구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	별도 표준어
뜰	뜨락	앞말이 가리키는 것이 존재하거나 깃들어 있는 추상적 공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별도 표준어
만날	맨날	매일같이 계속하여서.	복수 표준어
맨송맨송	맨송맨송/ 맹송맹송	몸에 털이 있어야 할 곳에 털이 없어 반반한 모양. / 몸에 털이 있어야 할 곳이 벗어져 반반한 모양.	별도 표준어
먹을거리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온갖 것.	별도 표준어
메우다	메꾸다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보내다.	별도 표준어
뒹자리	뒹자리	뒹을 쓸 자리. 또는 쓴 자리.	복수 표준어

바동바동	바동바동	덩치가 작은 것이 매달리거나 자빠지거나 주저앉아서 자꾸 팔다리를 내저으며 움직이는 모양. '바동바동'보다 큰 느낌을 준다.	별도 표준어
복사빠	복숭아빠	발목 부근에 안쪽으로 둥글게 나온 빠.	복수 표준어
새치름하다	새초롬하다	조금 쌀쌀맞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있다.	별도 표준어
세간	세간살이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	복수 표준어
손자(孫子)	손주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별도 표준어
쌈싸래하다	쌈싸름하다	조금 쓴 맛이 있는 듯하다.	복수 표준어
아웅다웅	아웅다웅	대수롭지 아니한 일로 서로 자꾸 다투는 모양. '아웅다웅'보다 큰 느낌을 준다.	별도 표준어
야멸차다	야멸차다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사정을 돌볼 마음이 거의 없다.	별도 표준어
어수룩하다	어리숙하다	걸모습이나 언행이 치밀하지 못하여 순진하고 어리석은 데가 있다.	별도 표준어
연방	연신	잇따라 자꾸.	별도 표준어
오손도손	오손도손	정답게 이야기하거나 의젓게 지내는 모양.	별도 표준어
자장면	짜장면	중국요리의 하나. 고기와 채소를 넣어 볶은 중국 된장에 국수를 비벼 먹는다.	복수 표기
찌뿌듯하다	찌뿌둥하다	몸살이나 감기 따위로 몸이 무겁고 거북하다.	별도 표준어
치근거리다	추근거리다	조금 성가실 정도로 은근히 자꾸 귀찮게 굴다.	별도 표준어
태권	택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 가운데 하나. 유연한 동작을 취하며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손질·발질을 하여 그 탄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한다. 2011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가 무형 문화재 제76호.	복수 표기
고운대	토란대	토란의 줄기. 주로 국거리로 쓴다.	복수 표준어
품세	품새	태권도에서, 공격과 방어의 기본 기술을 연결한 연속 동작.	복수 표기
허섭스레기	허접스레기	좋은 것이 빠지고 난 뒤에 남은 허름한 물건.	복수 표준어
횡허케	횡하니	중도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빠르게 가는 모양.	별도 표준어
토담	흙담	흙으로 쌓아 만든 담.	복수 표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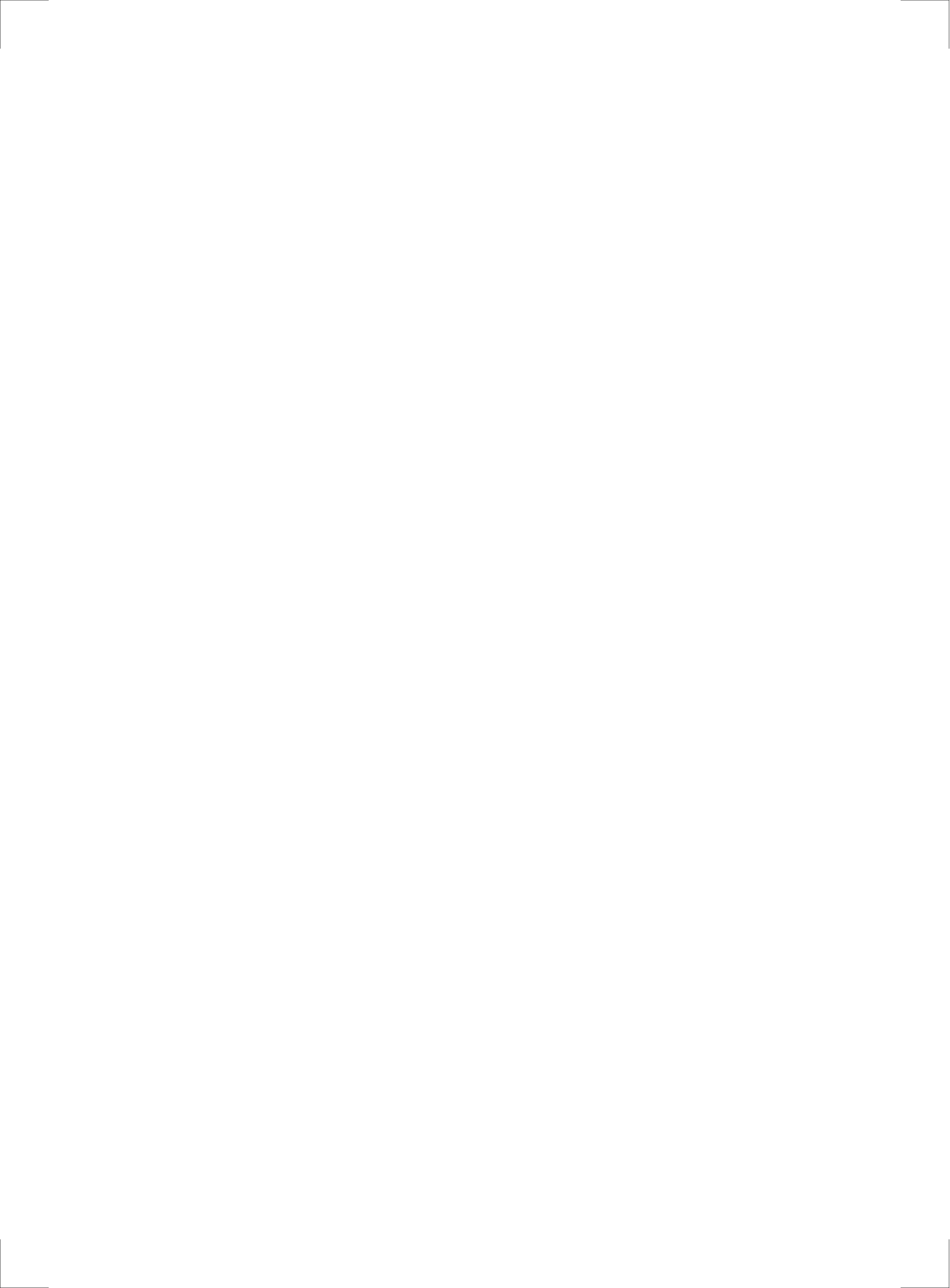
2014년(13항목)			
기존 표준어	추가 표준어	의미	구분
개개다	개기다	(속되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별도 표준어
구안괘사	구안와사	얼굴 신경 마비 증상. 입과 눈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병이다.	복수 표준어
굽실	굽신	고개나 허리를 가볍게 구부렸다 펴는 모양.	복수 표준어
피다	꼬시다	‘피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별도 표준어
장난감	놀잇감	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따위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	별도 표준어
눈두덩	눈두덩이	눈언저리의 두두룩한 곳.	복수 표준어
딴죽	딴지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	별도 표준어
빠치다	빠지다	성나거나 못마땅해서 마음이 토라지다.	복수 표준어
사그라지다	사그라들다	삭아서 없어져 가다.	별도 표준어
섬뜩	섬찝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별도 표준어
속병	속앓이	속이 아픈 병. 또는 속에 병이 생겨 아파하는 일.	별도 표준어
작장초	초장초	괘이밥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10~30cm이며, 앞은 어긋나고 세 갈래로 갈라지며, 작은 잎은 거꾸로 된 심장 모양이다. 7~8월에 노란 꽃이 산형(繖形) 화서로 꽃줄기 끝에 피고 열매는 삭과(蒴果)를 맺는다. 어린잎과 줄기는 식용한다. 논밭이나 길가에 나는데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한다.	복수 표준어
허접스럽다	허접하다	허름하고 잡스럽다.	별도 표준어
2015년(11항목)			
기존 표준어	추가 표준어	의미	구분
~고 싶다	~고프다	‘~고 싶다’가 줄어든 말.	복수 표준어
가오리연	꼬리연	긴 꼬리를 단 연.	별도 표준어
노라네 동그라네 조그마네 ...	노랄네 동그랄네 조그말네 ...	‘ㅎ’ 불규칙 용언어 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ㅎ’을 탈락시키지 않아도 됨.	복수 표준형

마을	마실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	복수 표준어
마 마라 마요	말아 말아라 말아요	‘말다’에 명령형 어미 ‘-아’, ‘-아라’, ‘-아요’ 등이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ㄹ’을 탈락시키지 않아도 됨.	복수 표준형
의논	의론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의견.	별도 표준어
예쁘다	이쁘다	생긴 모양이 아름다워 눈으로 보기에 좋다.	복수 표준어
이키	이크	당황하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 ‘이키’보다 큰 느낌을 준다.	별도 표준어
잎사귀	잎새	나무의 잎사귀.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별도 표준어
차지다	찰지다	‘차지다’의 원말.	복수 표준어
푸르다	푸르르다	‘푸르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별도 표준어
<b>2016년(6항목)</b>			
기존 표준어	추가 표준어	의미	구분
거방지다	겉판지다	① 매우 푸지다. ② 동작이나 모양이 크고 어수선하다.	별도 표준어
건울음	겉울음	① 드러내 놓고 우는 울음. ② 마음에 없이 겉으로만 우는 울음.	별도 표준어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① 조건, 규정 따위가 복잡하고 엄격하여 적응하거나 적용하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 ①’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②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 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 ②’보다 센 느낌을 준다.	별도 표준어
실몽당이	실몽치	실을 한데 뭉치거나 감은 덩이.	별도 표준어
에는	엘랑	표준어 규정 제25항에 따라 ‘에는’의 비표준형으로 다루어 온 ‘엘랑’을 표준형으로 인정함. ‘엘랑’ 외에도 ‘ㄹ랑’에 조사 또는 어미가 결합한 ‘에설랑, 설랑, -고설랑, -어설랑, -질랑’도 표준형으로 인정함.	복수 표준형
주책없다	주책이다	표준어 규정 제25항에 따라 ‘주책없다’의 비표준형으로 다루어 온 ‘주책이다’를 표준형으로 인정함. ‘주책이다’는 ‘일정한 쫓대가 없이 되는대로 하는 짓’을 뜻하는 ‘주책’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말로 봄.	복수 표준형

2017년(5항목)			
기존 표준어	추가 표준어	의미	구분
꺼림칙하다	꺼림직하다	마음에 걸려서 언짢고 싫은 느낌이 있다.	복수 표준어
깨름칙하다	깨름직하다	마음에 걸려서 언짢고 싫은 느낌이 꽤 있다.	복수 표준어
추어올리다	추켜올리다	‘실제보다 과장되게 칭찬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추켜올리다’를 표준어로 인정함.	복수 표준어
치켜세우다	추켜세우다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추켜세우다’를 표준어로 인정함.	복수 표준어
추어올리다/ 추켜올리다	치켜올리다	① 옷이나 물건, 신체 일부 따위를 위로 가뜩하게 올리다. ② 실제보다 과장되게 칭찬하다.	복수 표준어

—  
제2부

표준 발음법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은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표준어로 규정된 단어들의 실제적인 발음을 따르는 것이며, 이때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현대 서울말의 현실 발음을 기반으로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원리는 겹받침의 발음 규정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국어의 겹받침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오지 않는 한 겹받침 중 한 자음이 탈락해야만 한다. 그런데 겹받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탈락 자음을 정하지 않고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탈락 자음을 정한다. 가령 ‘리’의 경우 용언 어간에 국한하여 ‘읽고[일꼬], 읽거든[일꺼든]’과 같이 ‘ㄱ’ 앞에서는 ‘ㄱ’이 탈락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ㄹ’이 탈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래’의 경우도 단어에 따라 달라져서 ‘뺨다’에서는 ‘ㄹ’이 탈락하고 ‘넓다’에서는 ‘ㄷ’이 탈락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모두 서울말의 현실 발음을 감안한 결과이다.

복수 표준 발음을 널리 허용하는 것도 실제 발음을 고려한 결과이다. ‘니, 기’를 단 모음과 이중 모음 모두로 발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이중 모음 ‘니’의 여러 발음을 허용한 것 등 현행 표준 발음법에는 둘 이상의 발음을 표준으로 규정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하나의 단어에 원칙 발음과 허용 발음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것은 실제 발음에서 보이는 다양한 발음상의 변이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표준어의 모든 실제 발음을 표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실제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하도록 하였다. 즉 전통성과 합리성에 위배된다면 실제 나타나는 발음이라도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발음상의 관습을 감안한다는 의미이다. 전통성을 고려한 표준 발음의 예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모음의 장단과 관련된다. 현실 발음에서는 모음의 장단이 정확히 구별되지 않거나 모음의 장단과 관련된 변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음의 장단은 이전부터 오랜 기간 구별되어 왔으며 단어의 의미 변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서는 모음의 장단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두었다. 특히 장단의 변동 또는 장모음의 위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전통성을 고려한 표준 발음 제정의 또 다른 예로는 단모음 ‘ㅈ’와 ‘ㅊ’의 구별을 들 수 있다. ‘ㅈ’와 ‘ㅊ’는 원래 명확하게 구별되는 단모음들이었지만, 현재는 일부 지역의 노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단모음을 명확히 구별하여 발음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한다. ‘ㅈ’와 ‘ㅊ’를 구별하지 못하여 표기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단모음은 오랜 기간 별개의 단모음으로서 그 지위가 확고했고 여전히 구별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전통을 감안하여 표준 발음법에서는 ‘ㅈ’와 ‘ㅊ’를 항상 다르게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성 이외에 합리성도 실제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닭, 흙, 여덟’과 같이 겹받침을 가진 체언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겹받침 중 하나를 연음해야 하므로, ‘닭이[달기], 닭을[달글], 닭은[달근]’, ‘흙이[흘기], 흙을[흘글], 흙은[흘근]’, ‘여덟이[여덜비], 여덟을[여덜블], 여덟은[여덜븐]’으로 발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현실 발음에서는 오히려 겹받침 중 하나를 탈락시켜 ‘[다기], [다글], [다근]’, ‘[흐기], [흐글], [흐근]’, ‘[여더리], [여더를], [여더른]’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발음은 합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맛있다, 멋있다’의 원칙 발음을 ‘[마딤따], [머딤따]’로 정한 것도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뒤따르는 경우에는 받침 ‘ㅅ’이 대표음인

[ㄷ]으로 바뀌는 것이 국어의 발음 규칙이므로 ‘[마딤따], [머딤따]’가 합리적인 발음이다. 다만 ‘맛있다, 멋있다’를 ‘[마싯따], [머싯따]’로 발음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여 이 경우에는 실제 발음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했다.

## 제2장 | 자음과 모음

### 제2항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이 조항은 국어 자음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국어에는 19개의 자음이 있으며 이러한 자음의 개수는 방언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일부 지역에 ‘ㅆ’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국어의 자음들을 발음되는 위치와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평 음	ㅂ	ㄷ		ㄱ	
	경 음	ㅃ	ㅌ		ㅋ	
	격 음	ㅍ	ㅍ		ㅋ	
마찰음	평 음		ㅅ			ㅎ
	경 음		ㅆ			
	격 음					
파찰음	평 음			ㅈ		
	경 음			ㅉ		
	격 음			ㅊ		
비 음	ㅁ	ㄴ		ㅇ		
유 음		ㄹ				

국어의 자음은 5개의 조음 위치에서 발음된다. 두 입술에서 내는 양순음, 혀끝을 치조 부위에 대거나 접근하여 내는 치조음, 혀의 앞부분을 경구개 부위에 대어 내는 경구개음, 혀의 뒷부분을 연구개 부위에 대어 내는 연구개음, 성문에서 내는 후음이 있다.

국어의 자음은 소리 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파열음, 좁은 틈으로 공기를 마찰하여 내는 마찰음, 공기를 막았다가 마찰하여 내는 파찰음, 코로 공기를 보내어 내는 비음, 공기의 흐름을 거의 방해하지 않으며 내는 유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다시 평음(예사소리), 경음(된소리), 격음(거센소리)의 세 부류로 구분된다. 이러한 자음의 구분 방식은 국어의 특징 중 하나이다.

후음인 ‘ㅎ’은 격음이나 평음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시하였다. 평음, 경음, 격음으로 구분하는 것은 파열음처럼 3항 대립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데, 후음은 ‘ㅎ’ 하나로, 대립하는 다른 자음이 없다. 따라서 비음이나 유음과 마찬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제시하였다.

## 더 알아보기

### • ‘ㅎ’의 지위

‘ㅎ’은 학자에 따라 격음으로 보기도 하고 평음으로 보기도 한다. ‘ㅎ’이 평음인 ‘ㄱ, ㄷ, ㅂ, ㅈ’과 인접할 경우 두 자음이 합쳐져서 격음인 ‘ㅋ, ㅌ, ㅍ, ㅊ’으로 축약되는데, 이러한 변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ㅎ’을 격음으로 분류하는 것이 유리하다. ‘ㅎ’이 격음이기 때문에 축약된 소리가 격음이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ㅎ’은 음성적으로 유기성이 미약하여 다른 격음과 달리 쉽게 탈락하기도 한다. ‘좋은’이 [조:은]으로 발음되고, ‘날아가’ [나아]로 발음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음성적 특성을 근거로 ‘ㅎ’을 평음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ㅎ’이 다른 자음과 달리 격음이나 평음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근거하여 분류하지 않고 제시하였다.

### 제3항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이 조항은 국어 모음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국어에는 총 21개의 모음이 있다. 이러한 모음은 크게 단모음(單母音)과 이중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음이다. 반면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모음이다.

제시되어 있는 모음들을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이중 모음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ㅢ

###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ㅜ,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어 단모음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국어 표준 발음으로는 10개의 단모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음과 달리 단모음의 개수는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령 방언에 따라 단모음의 수가 6개에서 10개까지 다양하며 같은 지역이라도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서울말의 전통적인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10개의 단모음을 원칙으로 삼았다.

국어의 단모음을 발음상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ɪ	ɨ	—	ɯ
중모음	ɛ	ɘ	ɚ	ɚ
저모음	æ		ɚ	

단모음의 분류는 크게 혀의 위치, 입술 모양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중 혀의 위치는 다시 전후 위치와 높이로 구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이,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이 구분된다.

이상의 단모음 중 ‘ɛ’와 ‘æ’는 현재 대부분의 세대에서 별개의 모음으로 구별되지 않고 있다. 즉 ‘ɛ’와 ‘æ’는 하나의 모음으로 합류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모음을 구별하는 세대가 아직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합류되지 않았고, 전통적으로 이 두 모음은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구별하도록 규정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모음의 수는 유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전설 원순 모음에 해당하는 ‘ɨ’와 ‘ɯ’는 단모음 대신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발음 현실을 감안하여 [불입]에서는 ‘ɨ’와 ‘ɯ’의 경우 단모음 대신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ɨ’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ɯ [w]’와 단모음 ‘ɨ’를 연속하여 발음하는 것과 같다. ‘ɯ’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ɯ[w]’와 단모음 ‘ɛ’를 연속하여 발음하는 것과 같아서 ‘ɛ’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회’의 경우 ‘ɘ’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회]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회]가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 제5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쨌, 처’는 [저, 쨌, 처]로 발음한다.

가지어 → 가져[가저]      찌어 → 쨌[쨌]      다치어 → 다쳐[다처]

다만 2. ‘예, 례’ 이외의 ‘궤’는 [궤]로도 발음한다.

계집[계:집/계:집]	계시다[계:시다/계:시다]
시계[시계/시계](時計)	연계[연계/연계](連繫)
메별[메별/메별](袂別)	개폐[개폐/개폐](開閉)
혜택[혜:택/혜:택](惠澤)	지혜[지혜/지혜](智慧)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닐리리	닝큼	무늬	띄어쓰기	씩어
띄어	희어	희땀다	희망	유희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조사 ‘의’는 [궤]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협의[허빅/허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강의의[강:의의/강:이에]

이 조항은 국어 이중 모음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국어에는 총 11개의 이중 모음이 있다. 이러한 이중 모음은 그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반모음의 종류 및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반모음 ‘ㅣ [j]’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ㅠ
반모음 ‘ㅣ [j]’로 끝나는 이중 모음	ㅡ
반모음 ‘ㄴ/[w]’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ㅏ, ㅑ, ㅓ, ㅕ



‘ㅈ, ㅉ, ㅊ, ㅋ, ㆁ, ㅍ, ㅌ’는 각각 반모음 ‘[j]’와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ㅝ, ㅞ’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ㄱ’는 단모음 ‘ㅡ’와 반모음 ‘[j]’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ㄲ, ㆁ, ㄷ, ㄹ’은 각각 반모음 ‘ㄱ/ㄷ[w]’와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단모음 중 ‘ㅓ, ㅗ’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이중 모음의 수는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단모음 ‘ㅓ’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때 기존의 이중 모음인 ‘ㅓ’로 발음되어 이중 모음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단모음 ‘ㅗ’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반모음 ‘ㄷ[w]’로 시작하여 단모음 ‘ㅏ’로 끝나게 되며 이러한 이중 모음은 기존 목록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중 모음 수가 한 개 늘게 된다.

이중 모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모음이 아닌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다만 1~다만 4’까지 별도의 단서 조항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1’은 ‘ㄱ’의 발음과 관련된 조항이다. 여기에 따르면 ‘저, 쩌, 처’와 같이 ‘ㅈ, ㅉ, ㅊ, ㅋ’ 뒤에 오는 ‘ㄱ’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단모음 ‘ㄱ’로 발음한다. ‘묻혀, 붙여, 잊혀’ 등과 같이 표기상 ‘저, 쩌, 처’가 아니라도 발음상 ‘저, 쩌, 처’와 동일한 경우의 ‘ㄱ’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ㅈ, ㅉ, ㅊ, ㅋ’ 뒤에서 ‘ㄱ’가 발음되지 못하는 것은 ‘ㅈ, ㅉ, ㅊ, ㅋ’과 같은 경구개음 뒤에 반모음 ‘[j]’가 연이어 발음될 수 없다는 국어의 제약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자, 저, 조, 주’, ‘짜, 쩌, 쯤, 쥬’, ‘차, 처, 초, 추’ 등은 현대 국어에 와서 모두 ‘자, 저, 조, 주’, ‘짜, 쩌, 쯤, 쥬’, ‘차, 처, 초, 추’ 등으로 바뀌었으며,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표기도 발음대로 바뀌었다. 다만 ‘지-+-어, 쨌-+-어, 처-+-어’ 등과 같은 용언의 활용형이 줄어들 경우에는 실제 발음과 달리 ‘저, 쩌, 처’와 같이 표기하므로, 이런 경우의 ‘ㄱ’는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만 2’는 ‘ㅋ’의 발음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중 모음 ‘ㅋ’는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 레’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에서는 이중 모음 대신 단모음 [ㅋ]로 발음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그래서 이러한 발음 현실을 감안하여 ‘예, 레’와 같이 초성이 없거나 ‘ㄹ’이 초성에 있는 경우가 아닌 ‘ㅋ’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모음 [ㅋ]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계시다, 혜택’과 같은 단어는 표준 발음을 복수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3’과 ‘다만 4’는 ‘-’의 발음과 관련된 조항이다. ‘다만 3’에서는 이중 모음 ‘-’를 반드시 단모음 [ ]로만 발음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니, -틱, -희’ 등과 같이 ‘-’을 제외한 초성자 뒤에 ‘-’가 표기된 예들은 현실 발음을 반영하여 ‘-’를 [ ]로 발음해야 한다. 여기에 따라 ‘-무니, -틱다, -희망’과 같은 단어는 각각 ‘[무니], [틱:다], [희망]’과 같이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다만 이 규정은 ‘협의, 신의’ 등과 같이 앞말의 받침이 뒷말의 초성으로 이동하여 ‘-’ 앞에 자음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4 참조)

‘다만 4’에서는 ‘다만 3’에서 다루지 않은 환경에서 ‘-’가 다른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모음 ‘-’는 현대 국어에서 발음상의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서는 다양한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다만 3’의 경우를 제외하면 ‘-’를 표기와 동일하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되 이것 외의 다른 발음들도 허용한다.

우선,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표기된 ‘의’는 [-] 이외에 [ ]로 발음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래서 ‘주의’와 같은 단어는 [주의]가 원칙이지만 [주이]로 발음해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협의’의 경우 받침 ‘ㅂ’이 초성으로 이동하면 [혀비]가 되어 ‘다만 3’과 비슷해지지만 원래 표기는 ‘협의’이므로 ‘다만 3’과 달리 표준 발음상의 원칙은 [혀비]이고 [혀비]도 허용한다.

다음으로 관형격 조사 ‘의’는 [-]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되 현실 발음에 따라 [-]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우리의’는 [우리의]와 [우리에]가 모두 표준 발음이다. ‘강의의’의 경우 조항에 제시된 표준 발음은 두 개이지만 실제로는 네 가지로 읽을 수 있다. 원칙은 [강:의의]와 같이 ‘의’를 모두 [-]로 발음하는 것인데, ‘[강:의에], [강:이의], [강:이에]’와 같이 ‘의’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이 조항에서는 편의상 원칙으로만 이루어진 표준 발음([강:의의])과 허용으로만 이루어진 표준 발음([강:이에]) 두 가지만 제시했다.

## 제3장 | 음의 길이

###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1) 눈보래[눈:보래] | 말씨[말:씨]  | 밤나무[밤:나무]  |
| 많다[만:태]       | 멀리[멀:리]  | 벌리다[벌:리다]  |
| (2) 첫눈[천눈]    | 참말[참말]   | 쌍동밤[쌍동밤]   |
| 수많이[수:마니]     | 눈멀대[눈멀대] | 떠벌리다[떠벌리다] |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신바:닉/반:신바:니]      재삼재사[재:삼재:사]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보아 → 봐[봐:]	기어 → 겨[겨:]	되어 → 돼[돼:]
두어 → 뒤[뒤:]	하여 → 해[해:]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저, 찌어 → 쪼, 치어 → 처’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국어의 장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장단을 구별해서 발음해야 한다는 점, 둘째, 장모음의 실현 위치에 제약이 있다는 점, 셋째, 장단의 변동 현상이 있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

첫째, 장단을 구별해서 발음해야 하는 이유는 장단에 따라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 쌍이 국어에 있기 때문이다. ‘눈[眼]’과 ‘눈[雪]’, ‘말[馬]’과 ‘말[言]’과 같은 단어 쌍은 단독으로 쓰일 때에 장단의 차이로만 그 뜻이 구별된다. 따라서 장단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단의 구별은 국어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 장단의 구별이 다소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둘째, 장모음은 실현되는 위치에 제약이 있어서 원칙상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온전히 발음하도록 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1)에서와 같이 단어의 첫음절에서 장모음을 지니는 것이 (2)와 같이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의 위치에 놓이면 그 길이가 짧아진다. 즉 첫음절이 장모음인 단어가 단일어로 쓰이거나 복합어의 첫 요소로 쓰일 때에는 장모음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복합어의 후행 요소로 쓰이면 장모음 대신 단모음(短母音)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반신반의, 재삼재사, 선남선녀’ 등과 같이 비슷한 요소가 반복되는 구조의 한자어에서는 첫음절이 아니라도 장모음이 실현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단어들은 첫음절과 셋째 음절이 동일한 한자로서 서로 대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음의 길이도 첫음절의 장모음을 셋째 음절에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반반[반:반], 간간[간:간], 영영[영:영], 시시비비[시:시비비]’ 등과 같이 동일한 한자가 연이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장모음이 실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국어에는 장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거나 단모음이 장모음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장단의 변동 현상이 있다. (2)에서 원래 장모음을 가지던 단어가 복합어의 후행 요소가 되면서 단모음으로 바뀌는 것도 이러한 장단의 변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단의 변동은 [붙임]에서 언급하고 있다. [붙임]에서는 1음절로 된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하면서 음절이 줄어들 때 일어나는 장단의 변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제시된 예들을 보면 음절의 수가 주는 대신 남은 음절은 그 길이가 길어지는 변동을 거치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줄어들기 전의 두 음절 길이가 남은 한 음절에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1음절 용언 어간에서는 이러한 장모음화가 잘 나타나지만 ‘오-+-아, 지-+-어, 찌-+-어, 치-+-어’가 각각 ‘와, 저, 쩌, 처’로 실현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모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음절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장모음화는 다른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한

단어인 ‘사이, 아이’가 줄어드는 ‘새, 애’의 ‘ㄱ’은 모두 장모음이다. 파생어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가령 ‘보이다→뵈다[뵈:다], 뜨이다→띄다[띄:다]’ 등에서 어간과 접미사가 축약되어 한 음절로 바뀌면 역시 장음이 된다.

##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대[감:때] — 감으니[가므니]      뵈대[뵈:때] — 뵈으면[발브면]  
 신대[신:때] — 신어[시네]      알대[알:대] — 알아[아래]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대[끌:대] — 끌어[끄:러]      뺏대[뺏:때] — 뺏은[뺏:븐]  
 벌대[벌:대] — 벌어[버:러]      썰대[썰:대] — 썰어[써:러]  
 없대[업:때] — 없으니[업:쓰니]

###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대[감:때] — 감기대[감기대]      꼬대[꼬:대] — 꼬이다[꼬이다]  
 뵈대[뵈:때] — 뵈히대[발피대]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리대[끌:리대]      벌리대[벌:리대]      없애대[업:쌔대]

**[붙임]**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쓴-살-같이      작은-아버지

이 조항은 장단의 변동 중에서도 특히 장모음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에는 앞의 제6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모음이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일 때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 조항에서는 용언 어간 뒤에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체언의 경우에는 특정한 조사 앞에서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용언 어간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음절로 된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는 ‘아’ 또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나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용언 어간에 결합할 때 어간의 장모음이 짧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제시된 예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어미의 첫음절에 모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간의 장모음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밧다’와 ‘알다’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어미가 결합하더라도 ‘밧으면[발브면]’에서는 장모음이 짧아지지만 ‘알면[알면]’에서는 장모음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어미의 첫음절에 ‘으’가 실현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어간의 장모음이 짧아지는 현상은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뿐만 아니라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괴다[괴:다], 뉘다[뉘:다], 호다[호:다]’ 뒤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괴어[괴어], 뉘어[뉘어], 호어[호어]’에서 보듯 어간 모음의 길이가 짧게 실현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장모음이 짧아지는 현상은 일부 예외가 있다. 조항에 제시된 ‘끌다, 벌다, 썰다, 없다’ 등이 그러하다. 이 외에 ‘긱다, 언다, 옹다, 웃다, 작다, 좋다’ 등도 여기에 속한다. 이 용언의 어간들은 뒤에 어떤 어미가 오든지 어간의 장모음이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1음절로 된 용언 어간 뒤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피동과 사동의 접미사는 ‘-이-, -히-, -리-, -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것이 결합하든지 어간의 장모음은 짧아진다. 물론 이러한 현상도 예외가 있다. 그런데 그 예외는 앞서 살핀 첫 번째 부류의 예외와 동일하다. 그래서 ‘끌다, 벌다, 썰다, 없다’에 피동 또는 사동 접미사가 결합한 ‘끌리다[끌:리다], 벌리다[벌:리다], 썰리다[썰:리다], 없애다[엷:췌다]’에서는 어간의 장모음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이 단어들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든 피동이나 사동의 접미사가 오든 어간의 길이가 짧

아지지 않는 것이다.

[붙임] 용언의 활용형이 포함된 합성어의 장단이 활용형의 장단과 일치하지 않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원래의 활용형은 길이가 길지만 이것이 합성어의 첫 요소로 쓰였을 때에는 길이가 짧게 발음되는 단어들이 있다. 예로 제시된 ‘밑물, 쓴살같이, 작은아버지’의 ‘밑, 쓴, 작은’이 모두 그러하다. 이 단어들이 ‘문을 밑 경우, 쓴 화살, 작은 손수건’ 등과 같이 활용형으로 쓰일 때에는 ‘밑[밑:], 쓴[쓴:], 작은[자:근:]’과 같이 장모음이 나타남에 비해 합성어의 첫 요소로 쓰일 때에는 짧은 모음이 나타난다. 이러한 예외적인 현상은 일부 활용형에서만 나타날 뿐, 모든 용언의 활용형이 합성어의 첫 요소로 쓰일 때 그 길이가 짧아지는 것은 아니다.

**제8항**

반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이 조항은 국어의 음절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 국어의 표기법상으로는 일부 쌍자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을 종성에 표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발음할 수 있는 것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음이 종성에 놓일 때에는 이 7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뀐다. 가령 ‘ㅋ, ㅌ, ㅍ’과 같은 홀반침이나 ‘ㄲ, ㅅ’과 같은 쌍반침은 각각 ‘ㄱ, ㄷ, ㅂ’, ‘ㄱ, ㄷ’으로 바뀐다. 또한 겹반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겹반침 중 하나가 탈락하게 되며, 탈락 후 남은 자음도 7개 자음에 속하지 않으면 그중 하나로 바뀌게 된다.

**제9항**

반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뉘대[뉘때]	키읃[키읃]	키읃과[키읃과]	읃[읃]
읃대[읃:때]	읃대[읃때]	읃[읃]	읃대[읃때]
읃[읃]	읃대[읃때]	읃[읃]	읃대[읃:때]
읃[읃]	읃대[읃때]		



이 조항은 앞선 제8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종성에 놓인 홑받침 및 쌍받침의 발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음이 단어의 끝에 오거나 다른 자음 앞에 오면 음절 종성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종성에서는 7개 자음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제시된 자음들은 [ㄱ, ㄷ, ㅂ] 중 하나로 발음이 바뀌어야 한다. 이때 ‘ㄱ, ㅋ’은 [ㄱ]으로, ‘ㅅ, ㅆ, ㅈ, ㅊ, ㅌ’은 [ㄷ]으로, ‘ㅍ’은 [ㅂ]으로 바뀐다. 그래서 ‘낮, 낮, 낮, 낱’과 같은 단어들은 받침이 다르게 쓰였더라도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ㄴ]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이처럼 음절 종성에서 발음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자음들은 모두 장애음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장애음에 대립되는 자음 부류는 공명음이며 비음과 유음이 여기에 속한다. 공명음은 종성에 놓여도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즉 ‘ㄴ, ㄹ, ㅁ, ㅇ’은 종성에서도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어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7개의 자음은 장애음 3개(ㄱ, ㄷ, ㅂ)와 공명음 4개(ㄴ, ㄹ, ㅁ, ㅇ)이다.

### 제10항

겹받침 ‘ㄱ’, ‘ㄷ’, ‘래, ㄹ, ㅍ’,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과]	앓다[안때]	여덟[여덜]
넋대[넉때]	외곶[외골]	핥다[할때]	값[갑]
없다[업:때]			

다만, ‘뵤-’은 자음 앞에서 [뵤]으로 발음하고, ‘넋-’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넉]으로 발음한다.

(1) 뵤다[뵤:때]	뵤소[뵤:쏘]	뵤지[뵤:찌]
뵤는[뵤:는 → 뵤:는]	뵤게[뵤:께]	뵤고[뵤:꼬]
(2) 넋-죽하다[넉쭈카대]	넋-똥글대[넉똥글대]	

이 조항은 제9항과 동일하게 제8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종성에 놓인 겹받침의 발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겹받침이 단어의 끝에 오거나 다른 자음 앞에 오면 홑받침이나 쌍받침과는 달리 겹받침을 이루는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게 된다. 이것은 음절 종성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지 못하는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 때문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겹받침도 음절 종성에서는 제8항에서 규정된 7개 자음 중 하나로 실현된다.

겹받침을 이루는 두 개의 자음 중 앞선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 오는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 조항에서는 뒤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ㄱ’은 [ㄱ], ‘ㄴ’은 [ㄴ], ‘ㄷ, ㄷ, ㅌ’은 [ㄷ], ‘ㅂ’은 [ㅂ]으로 발음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겹받침을 이루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탈락한 결과이다. 이 조항에 제시된 겹받침 중 ‘ㄷ’을 제외한 나머지 겹받침은 지역, 계층, 단어 등 어떠한 변수와도 상관없이 항상 뒤의 자음이 탈락한다.

다만 ‘ㄷ’은 다소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도 단어에 따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ㄷ’은 원칙적으로는 ‘ㅂ’을 탈락시켜 [ㄷ]로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뱃-’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에는 [ㅂ]으로 발음되고, ‘뽕-’이 포함된 복합어 중 ‘뽕죽하다’와 ‘뽕둥글다’, ‘뽕적하다’ 등에서도 ‘ㄷ’을 탈락시켜 [ㅂ]으로 발음한다. 동일한 겹받침 ‘ㄷ’의 탈락 자음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어에 따라 달리 규정한 것은 현실 발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한편 ‘넝따랑다, 짤막하다, 알쭉하다’와 같은 단어들은 어원적으로 ‘ㄷ’으로 끝나는 ‘뽕-, 짤-, 앓-’과 관련을 맺지만 겹받침을 표기하지 않고 종성의 발음을 표기에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표기대로 발음하면 된다.(한글 맞춤법 제21항 참조)

<b>제11항</b>			
겹받침 ‘ㄷ, ㄷ,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ㅂ]으로 발음한다.			
달[ㄷ]	흙과[흑과]	맑다[막따]	늪지[늑지]
삼[삼:]	젊대[점:때]	옹고[읍고]	옹대[읍때]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게[말께]

뭉고[물꼬]

엷거나[얼꺼나]

이 조항은 제10항과 더불어 겹받침이 어말이나 자음 앞과 같은 음절 종성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0항과 반대로 이 조항에서는 겹받침을 이루는 두 개의 자음 중 앞선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 ‘ㄹ, ㄹ, ㄷ’은 음절 종성에서 앞선 ‘ㄹ’이 탈락하게 된다. 그 결과 ‘ㄹ, ㄹ’은 각각 [ㄱ]과 [ㄱ]으로 발음되며, ‘ㄷ’에서는 ‘ㅍ’이 남게 되는데 ‘ㅍ’은 음절 종성에서 [ㅍ]으로 발음되므로 결과적으로 ‘ㄷ’은 [ㅍ]으로 발음된다. 다만 용언 어간의 겹받침 ‘ㄹ’은 ‘ㄱ’ 앞에서 앞 자음 ‘ㄹ’이 탈락하는 대신 뒤 자음 ‘ㄱ’이 탈락하여 [ㄹ]로 발음된다. 그래서 ‘ㄹ’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고, -거나, -거든’ 등과 같은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ㄹ’을 [ㄹ]로 발음한다. 이것은 용언의 활용형뿐만 아니라 ‘글개[글께], 밝기[발끼]’와 같은 파생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ᄃᆞ, ᄃᆞ)’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놀고[노코]

종던[조:턴]

쏟지[싸치]

많고[만:코]

얹던[안턴]

달지[달치]

**[붙임 1]** 받침 ‘ㄱ(ㄱ), ㄷ, ㅈ(ㅈ)’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각하[가카]	먹히다[머키다]	밝히다[발키다]	만형[마텥]
좁히다[조피다]	넓히다[널피다]	꽃히다[꼬치다]	앉히다[안치다]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ㅈ, ㅊ,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웃 한 벌[오탄벌]	낮 한때[나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술하다[수타다]

2. ‘ㅎ(ㄹᄃ, ㄹᄡ)’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달소[다:ㅆ]	만소[만:ㅆ]	실소[실ㅆ]
---------	---------	--------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놓는[논는]	쌍네[싼네]
--------	--------

**[붙임]** ‘ㅎ, ㄹᄃ, ㄹᄡ’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안네[안네]	안는[안는]	똥네[똥네 → 똥레]	똥는[똥는 → 똥른]
--------	--------	-------------	-------------

\* ‘똥네[똥네 → 똥레], 똥는[똥는 → 똥른]’에 대해서는 제20항 참조.

4. ‘ㅎ(ㄹᄃ, ㄹᄡ)’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낱은[나은]	놀아[노아]	쌍이다[싸이다]	많아[마:나]
앉은[아는]	닿아[다라]	싫어도[시러도]	

이 조항은 받침으로 쓰이는 ‘ㅎ’의 발음을 규정하고 있다. 받침으로 쓰인 ‘ㅎ’은 뒤에 어떠한 말이 오든 원래 음가대로 발음되지 못하고 변동을 겪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변동의 양상이 조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받침 ‘ㅎ’의 여러 가지 발음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 조항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건에

따라 받침 ‘ㅎ’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와 모음이 오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3은 받침 ‘ㅎ’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이고 4는 모음이 오는 경우이다.

1. ‘ㅎ(히, 히)’ 뒤에 평음 ‘ㄱ, ㄷ, ㅈ’으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하는 경우로 주로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나타난다. 이때에는 ‘ㅎ’과 ‘ㄱ, ㄷ, ㅈ’이 합쳐져서 격음인 [ㅋ, ㅌ, ㅊ]으로 발음된다. 용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경우는 아니나 음운 환경이 같은 ‘싫증’에서는, ‘ㅎ’과 ‘ㅈ’이 [ㅊ]으로 줄지 않고 [실쪄]으로 발음된다. 이는 ‘증(症)’이 붙는 말의 일반적인 발음 경향과 같다. ‘염증[염쪄], 건조증[건조쪄]’에서 알 수 있듯이 ‘증(症)’이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일 때에는 경음화가 잘 일어난다. ‘싫증’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실쪄]으로 발음한다.

한편 1의 [붙임]에 따르면 ‘ㅎ’은 평음 앞에 올 때뿐만 아니라 평음 뒤에 올 때에도 격음으로 합쳐진다. 1의 [붙임 1]과 [붙임 2]는 이런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붙임 1]은 한 단어 내에서 평음 뒤에 ‘ㅎ’이 올 때 격음으로 줄어드는 경우를 다루고, [붙임 2]는 ‘ㅎ’에 앞서는 자음이 원래는 ‘ㄷ’이 아니지만 대표음 [ㄷ]으로 바뀐 후 ‘ㅎ’과 합쳐져 [ㅌ]으로 바뀌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ㅎ’이 평음 뒤에 놓이면서 이 두 자음이 하나의 격음으로 줄어들 때에는 ‘꽃히다, 넓히다’와 같이 용언 어간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용언 어간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평음과 ‘ㅎ’이 곧바로 줄어든다. 그래서 ‘꽃히다’와 ‘넓히다’는 [꼬치다]와 [널피다]로 발음된다. 반면 그 이외의 경우에는 먼저 ‘ㅎ’ 앞에 있는 자음이 대표음으로 바뀌거나 또는 겹받침의 경우 자음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ㅎ’과 축약된다. ‘낮 한때’를 [나찬때]가 아니라 [나탄때]로 발음하는 것, ‘닭 한 마리’를 [달칸마리]가 아니라 [다칸마리]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차이점과 관련된다. 즉 ‘낮 한때’의 경우 ‘낮’의 ‘ㅈ’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 후 ‘한’과 결합하여 [탄]이 되며, ‘닭 한 마리’의 경우 ‘닭’의 겹받침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발음이 [닥]이 된 후 ‘한’과 결합하여 [다칸]이 되는 것이다.

2. ‘ㅎ(히, 히)’ 뒤에 ‘ㅅ’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고 그 대신 ‘ㅅ’을 [ㅆ]으로 발음하게 된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ㅎ’과 ‘ㅅ’이 합쳐져 [ㅆ]이 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여기에 대한 해석에는 이견이 있다.('더 알아보기' 참조)

3. 'ㅎ' 뒤에 'ㄴ'이 결합할 때에는 'ㅎ'을 [ㄴ]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놓는[논는], 쌓네[싼네]'와 같이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것을 'ㅎ'이 'ㄴ' 앞에서 곧바로 'ㄴ'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놓는[논는], 쌓네[싼네]' 등에서 'ㅎ'을 [ㄴ]으로 발음하는 것은 뒤에 오는 'ㄴ'에 동화되는 현상인데, 'ㄴ'에 동화되어 'ㅎ'이 [ㄴ]으로 발음되려면 먼저 [ㄷ]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놓는[논는 → 논는]', '쌓네[싼네 → 싹네]'에서와 같이 먼저 'ㅎ'이 대표음인 [ㄷ]으로 바뀐 후 'ㄴ'에 동화되어 [ㄴ]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것은 제18항에서 음절 종성에 놓일 때 [ㄷ]으로 발음되는 자음 목록에 'ㅎ'을 포함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붙임]에서는 'ㄴ, ㄹ' 뒤에 'ㄴ'이 결합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때에는 'ㅎ'이 발음되지 않고 앞의 자음인 'ㄴ'과 'ㄹ'이 발음된다. 따라서 '얹네'는 [안네], '똥네'는 [똥네 → 똥레]로 발음된다. [똥네 → 똥레]의 변화는 'ㄹ' 뒤에 오는 'ㄴ'이 'ㄹ'로 바뀌는 음운 현상에 따른 것으로 표준 발음법 제20항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4. 'ㅎ' 뒤에 모음이 오더라도 'ㅎ'은 온전히 발음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ㅎ'이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탈락한다. 'ㅎ'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어미, 접미사)가 결합할 때인데, '낳은[나은], 쌓이다[싸이다], 끓이다[끄리다]'에서 보듯 모두 'ㅎ'이 탈락한다.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원래는 연음이 일어나서 받침 'ㅎ'은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탈락한다.

'ㅎ'이 단어 둘째 음절 이하의 초성에 놓이면, 'ㅎ'을 온전하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령 한자어 중 '고향, 면허, 경험, 실학'과 같은 단어나 '진술하다, 신선하다, 셈하다, 주저하다'와 같은 복합어에서는 'ㅎ'을 그대로 발음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 발음에서는 이런 경우의 'ㅎ'을 발음하지 않기도 하는데, 모두 표준 발음은 아니다.

• ‘ㅎ’의 발음 변화

‘달소[다:쏘]’와 같이 ‘ㅎ(ㅏ, ㅑ)’ 뒤에 ‘ㅅ’이 결합할 때 ‘ㅎ’과 ‘ㅅ’이 [ㅆ]으로 실현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앞서 보인 대로, ‘ㅎ’과 ‘ㅅ’이 곧바로 축약되어 [ㅆ]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ㅎ’이 먼저 대표음 ‘ㄷ’으로 바뀌고(ㅎㅅ → ㄷㅅ) ‘ㄷ’ 뒤에서 ‘ㅅ’이 경음으로 바뀌 후(ㄷㅅ → ㄷㅆ) ‘ㅆ’ 앞에서 ‘ㄷ’이 탈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비록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 각 단계를 현실 발음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단 표준 발음법에서는 ‘젓살[전쌀]’과 같이 ‘ㅆ’ 앞의 ‘ㄷ’을 온전히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점이 문제이다.

**제13항**

흡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깎아[까개]	웃이[오세]	있어[이써]	낮이[나지]
꽃아[꼬재]	꽃을[꼬출]	쫓아[쫓채]	밭에[바테]
앞으로[아프로]	뎛이다[더피대]		

이 조항은 흡받침이나 쌍받침과 같이 하나의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결합할 때 받침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받침을 그대로 옮겨 뒤 음절 초성으로 발음하는 것이 국어의 원칙이며, 이것을 흔히 연음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말들은 연음의 원칙을 따르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강, 방’과 같이 ‘ㅇ’으로 끝나는 말은 연음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ㅇ’을 초성으로 발음할 수 없다는 국어의 발음상 제약 때문이다. 둘째, 제12항에서 보았듯이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받침 ‘ㅎ’도 탈락하므로 연음의 예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굳이[구지], 밭이[바치]’와 같이 ‘ㄷ, 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도 연음이 되지 않는다. 연음이 되려면 ‘ㄷ, ㅌ’이 그대로 초성으로 발음되어야 하는데, 구개음화(표준 발음법 제17항 참조)가 적용되어 ‘ㅈ, ㅊ’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연음의 예외는 좀 더 있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런 점에서 연음은 국어의 중요한 발음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실 발음에서는 연음이 되어야만 하는 환경에서 연음이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잘못된 발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엌이[부어기], 부엌을[부어글], 꽃이[꼬시], 꽃을[꼬슬] (×)

이러한 경우는 모두 연음을 적용하여 발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발음하는 것이 옳다.

부엌이[부어키], 부엌을[부어쿨], 꽃이[꼬치], 꽃을[꼬출] (○)

###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넋이[넉씨]	앉아[안재]	닭을[달글]	젊어[절머]
곶이[골씨]	핥아[할타]	읊어[을페]	값을[갑쓸]
없어[업:씨]			

이 조항은 제13항과 더불어 받침의 연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3항이 홑받침 또는 쌍받침과 같은 단일한 자음으로 된 받침의 연음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 조항은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겹받침의 연음에 대해 다루었다. 겹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결합하면 겹받침의 앞 자음은 음절의 종성에서 발음되고 겹받침의 뒤 자음은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발음된



다. 받침의 자음 중 하나가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간다는 점에서 연음 현상에 포함된다. 다만 겹받침의 두 번째 자음이 ‘ㅅ’인 ‘ㄱ, ㄷ, ㅂ’의 경우 연음이 될 때 ‘ㅅ’ 대신 [ㅆ]으로 발음된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 발음에서는 겹받침으로 끝나는 체언에서, 아래와 같이 겹받침 중 하나를 탈락시키고 연음하는 오류가 많이 일어난다.

닭이[다기], 닭을[다글], 여덟이[여더리], 여덟을[여더를] (×)

이러한 경우는 앞 자음은 종성에서 발음하고 뒤 자음은 연음하여 발음하는 것이 맞으므로 다음과 같이 발음하는 것이 옳다.

닭이[달기], 닭을[달글], 여덟이[여덜비], 여덟을[여덜블] (○)

###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뱓]	젓어미[저더미]
맛없다[마덥따]	겉옷[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싯따], [머싯따]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넋 없다[너겍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이 조항은 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해당 받침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3항, 제14항과 비교할 때, 받침을 가진 말 뒤에 오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로 받침의 발음 양상도 달라진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음이 되지 않는 대신, 받침이 대표음인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뀐 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연음과 대비하여 절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젓어미, 겉옷’의 ‘젓, 겉’과 같은 홑받침을 가진 말의 경우 대표음 중 하나로 바뀐 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여 ‘[저더미], [거돋]’이 된다. ‘값있다’의 ‘값’과 같이 겹받침을 가진 말은 자음이 하나 탈락하여 대표음으로 바뀐 후 역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여 [가빔따]가 된다.

이 조항에서는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오는 모음의 종류를 ‘ㅏ, ㅑ, ㅓ, ㅕ, ㅗ, ㅛ’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음들은 단모음 ‘ㅣ’ 또는 반모음 ‘ㅣ [j]’로 시작하는 ‘ㅑ, ㅓ, ㅕ, ㅗ, ㅛ’와 같은 이중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에 빠진 ‘ㅜ, ㅠ, ㅡ’ 등도 실제로는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모음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들을 제외한 것은,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 ㅑ, ㅓ, ㅕ, ㅗ, ㅛ’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ㄴ’이 첨가되어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발음 양상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앞입[압닐], 꽃입[꼰닙]’의 경우 ‘[아빌], [꼬뎁]’이 되지 않고 뒷말의 초성에 ‘ㄴ’이 첨가된 후 다시 첨가된 ‘ㄴ’에 의해 앞말의 받침이 동화된다.(표준 발음법 제29항 참조)

다만, ‘맛있다, 멋있다’의 경우 원래 규정대로라면 ‘맛, 멋’의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 후 초성으로 넘어가므로 [마딤따], [머딤따]가 올바른 발음이지만 현실 발음에서 [마싣따], [머싣따]가 많이 나타나므로 이것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붙입]에 나오는 예 중 ‘값어치’는 ‘-어치’가 접미사로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음이 되는 대신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현재의 국어사전에서는 ‘-어치’를 접미사로 다루고 있지만 이 말은 역사적으로 실질 형태소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값어치’에서는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맛있다/멋있다’의 발음

‘맛있다[마신타/마신타], 멋있다[머신타/머신타]’의 두 가지 표준 발음 중 [마신타]와 [머신타]의 경우 받침 ‘ㅅ’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 [ㄷ]으로 발음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맛이 있다, 멋이 있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맛이 있다, 멋이 있다’의 경우 ‘맛, 멋’ 뒤에 형식 형태소인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으므로 연음이 되어 [마시인타], [머시인타]가 되며 이것이 줄어들어 [마신타], [머신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단어 내의 경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맛있다’, ‘멋있다’는 ‘맛/멋’과 ‘있다’가 결합한 합성어이지만, 사람들이 ‘맛있다’, ‘멋있다’를 내부에 경계가 없는 한 단어로 인식하여 [마신타], [머신타]로 발음한다고 보는 것이다.

**제16항**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디근이[디그시]	디근을[디그슬]	디근에[디그세]
지웃이[지으시]	지웃을[지으슬]	지웃에[지으세]
치웃이[치으시]	치웃을[치으슬]	치웃에[치으세]
키웁이[키으기]	키웁을[키으글]	키웁에[키으게]
티웁이[티으시]	티웁을[티으슬]	티웁에[티으세]
피웁이[피으비]	피웁을[피으블]	피웁에[피으베]
히웁이[히으시]	히웁을[히으슬]	히웁에[히으세]

이 조항은 자음 글자를 나타내는 명칭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의 발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지웃이, 치웃이, 피웁이’ 등은 각

각 [지으지], [치으치], [피으피]로 발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르면 ‘디근, 지읊, 치읊, 키읊, 티읊, 피읊, 히읊’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음의 명칭이 정해진 당시의 현실 발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사실 ‘디근’을 제외한 ‘지읊, 치읊, 키읊, 티읊, 피읊, 히읊’과 같은 명칭은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당시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글 자모의 명칭은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에서 비롯하는데, 당시에는 ‘ㄷ, ㅌ, ㅋ, ㅌ, ㅍ, ㅎ’이 초성에만 쓰이는 글자였기 때문에 그 명칭도 ‘지, 치, 키, 티, 피, 히’와 같이 1음절이었다. 그러다가 모든 글자들을 종성에 표기하도록 표기법이 바뀌면서 이 글자들의 명칭도 2음절로 바뀌었다.

이렇게 새로이 만들어진 글자의 명칭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받침을 어떻게 발음할지에 대한 논란은 1930년대에도 있었다.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하던 학술지인 “한글”에는 이런 경우 연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연음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하여 현재의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표준 발음법을 정할 당시에는 실제 발음을 중시하여 현재와 같은 규정이 나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현실 발음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항과 구별된다.

##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곧이듣다[고지듣때]	굳이[구지]	미닫이[미:다지]
땀받이[땀바지]	밭이[바치]	벼훅이[벼훅치]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굳히다[구치다]	달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	----------	----------

이 조항은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ㄷ, ㅌ(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ㄷ, ㅌ’이 [ㅈ, ㅊ]으로 발음된다. 이 현상은 치조음인 ‘ㄷ, ㅌ’이 모음 ‘ㅣ’의 조음 위치에 가까워져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자음의 조음 위치가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주격 조사 ‘이’ 앞에서도 일어나고 접미사 ‘-이’ 앞에서도 일어난다.

[붙임]에서는 ‘ㄷ’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가 아닌 ‘히’가 결합할 때에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먼저 ‘ㄷ’과 ‘히’의 ‘ㅎ’이 [티]으로 축약되는데, 이는 ‘ㅌ’ 뒤에 ‘ㅣ’가 결합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치]이 된다.

##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ㄹ), ㄷ(ㄷ, ㅌ, ㄹ)’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먹는[멍는]	국물[궁물]	깎는[깁는]	키웁만[키응만]
뭉뭉이[몽목씨]	굽는[궁는]	흙만[흥만]	닫는[단는]
짓는[진:는]	옷맵시[온맵씨]	있는[인는]	맞는[만는]
젓명울[전명울]	쫓는[쫘는]	꽃망울[곤망울]	붙는[분는]
놓는[논는]	잡는[잠는]	밤물[밤물]	앞마당[암마당]
뺏는[밤:는]	웁는[음는]	없는[엄:는]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다[챙넌는다]	흙 말리다[흥말리다]	옷 맞추다[온만추다]
밥 먹는다[밤멍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이 조항은 비음화 현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어에는 ‘ㄱ, ㄷ, ㅂ’ 뒤에 비음인 ‘ㄴ, ㄹ’이 올 때 앞선 자음인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의 조음 방식에 동화되어 동일한 조음 위치의 ‘ㅇ, ㄴ, ㄹ’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있다. 이 변동은 예외 없이 적용되며 서로 다른 단어 사이에서도 적용될 만큼 강력하다.

이러한 현상은 앞 음절의 받침이 ‘ㄱ, ㄷ, ㅂ’이 아닌 경우에도 나타난다. 즉 음운 변동의 결과 종성이 대표음인 [ㄱ, ㄷ, ㅂ] 중 하나로 발음되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되는 것이다. 규정에서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ㄹ), ㄷ(ㄷ, ㅌ, ㄹ)’과 같이 ‘ㄱ, ㄷ, ㅂ’ 옆의 괄호에 ‘ㄱ, ㅋ, ㆁ, ㄷ’, ‘ㄷ, ㅌ, ㄹ’, ‘ㄷ, ㅌ, ㄹ’을 포함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ㄱ’의 경우 앞말이 ‘ㄱ, ㅋ, ㆁ, ㄷ’으로 끝나더라도 종성에서는 [ㄱ]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비음화가 적용되며, ‘ㄷ’이나 ‘ㅂ’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비음화 현상이 음절의 종성 제약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에 적용된

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즉 홀받침의 경우 장애음이 ‘ㄱ, ㄷ, ㅂ’ 중 어느 하나로 바뀐 후에 비음화가 적용되며 겹받침의 경우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한 후에 비음화가 적용되는 것이다. 겹받침 중 탈락 후에 남는 자음이 ‘ㄱ, ㄷ, ㅂ’ 중 하나가 아닌 경우에는 비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ㅈ, ㄹ’과 같은 겹받침은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이 되므로 뒤에 비음이 올 때 이 현상이 적용될 수 없다.

### 제19항

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담:넉]

침략[침:넉]

강릉[강녕]

항로[항:노]

대통령[대:통녕]

**[붙임]**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 → 망논]

석류[석뉴 → 성뉴]

협력[협녁 → 협녁]

법리[법니 → 범니]

이 조항은 ‘ㄹ’이 특정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뀌는 현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현상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ㄹ’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일어나며 주로 한자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음과 자음이 결합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자음 동화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지만 그 해석에는 논란이 없지 않다. (‘더 알아보기’ 참조)

이 조항의 구성을 보면 본문에서는 ‘ㅁ, ㅇ’ 뒤에서 일어나는 경우만 언급하고 [붙임]에서는 ‘ㄱ, ㅂ’ 뒤에서 일어나는 경우만을 언급하여 두 가지를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ㄱ, ㅂ’ 뒤에서 이 현상이 일어날 경우 제18항에서 규정한 비음화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ㅁ, ㅇ’ 뒤에서는 ‘ㄹ’이 ‘ㄴ’으로 바뀌지만 ‘ㄱ, ㅂ’ 뒤에서는 ‘ㄹ’이 ‘ㄴ’으로 바뀐 후 다시 ‘ㄴ’에 의해 선행하는 ‘ㄱ, ㅂ’이 ‘ㅇ, ㅁ’으로 바뀐다. 이때 두 음운 변동 사이의 순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가령 ‘막론’의 경우 ‘ㄱ’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뀐 후 ‘ㄴ’에 의해 ‘ㄱ’이 ‘ㅇ’으로 바뀐다.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바뀔 수는 없으므로 ‘ㄱ’ 뒤에서 ‘ㄹ’이 먼저 ‘ㄴ’으로 바뀌는 것이다.

## 더 알아보기

### • 제19항에 대한 다른 의견

제19항에서 다루는 현상은 흔히 자음 동화에 속한다고 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는 이 현상이 어떤 자음 뒤에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현상이 어떤 점에서 동화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이 조항에서는 ‘ㄹ, ㅇ’과 ‘ㄱ, ㅂ’의 네 자음 뒤에서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4종류의 자음 뒤로 국한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ㄹ’에 앞서는 자음은 음절 종성에 놓이는데 음절 종성에서는 7종류의 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이 발음될 수 있다. 이 중 ‘ㄹ’ 뒤에서는 ‘ㄹ’이 ‘ㄴ’으로 바뀌지 않는다. 또한 ‘ㄴ’ 뒤에서는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현상 이외에 유음화 현상이 적용되기도 한다.(표준 발음법 제20항 참조) 한편 이 현상은 주로 한자어에서 일어나는데 한자 중에는 그 음이 ‘ㄷ’으로 끝나는 것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로 음절 종성에서 발음되는 7종류의 자음 중 ‘ㄴ, ㄷ, ㄹ’이 빠져 이 조항에서 언급한 ‘ㄱ, ㅁ, ㅂ, ㅇ’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과 관련해서는 이견도 없지 않다. 이 현상이 비음인 ‘ㄹ, ㅇ’ 뒤에서만 일어난다고 보고 ‘ㄱ, ㅂ’은 그 조건에서 제외해 버리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이 현상을 동화로 보기 위한 조건이 되는 자음을 비음으로 국한한 결과이다. 비음 뒤에서 ‘ㄹ’이 비음인 ‘ㄴ’으로 바뀐다고 해석하면 이 현상이 앞선 비음에 동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비음뿐만 아니라 ‘ㄱ, ㅂ’과 같은 자음 뒤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이 현상이 과연 동화인가 하는 것이다. 표준 발음법에는 이 현상이 동화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도 이 현상은 두 개의 자음이 인접할 때 일어나는 동화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ㄱ, ㅂ’의 어떤 특징에 동화가 되어 ‘ㄹ’이 ‘ㄴ’으로 바뀌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현상을 동화에서 제외하는 견해도 있다.



##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 |             |           |          |
|-------------|-----------|----------|
| (1) 난로[날:로] | 신라[실라]    | 천리[철리]   |
| 광한루[광:할루]   | 대관령[대:괘령] |          |
| (2) 칼날[칼날]  | 물난리[물랄리]  | 줄넘기[줄럼끼] |
| 할는지[할른지]    |           |          |

**[붙임]** 첫소리 ‘ㄴ’이 ‘ㅈ’, ‘ㅉ’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        |        |        |
|--------|--------|--------|
| 닿는[달른] | 뚫는[뚫른] | 할네[할레] |
|--------|--------|--------|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 |           |           |           |
|-----------|-----------|-----------|
| 의견란[의:견난] | 임진란[임:진난] | 생산량[생산냥]  |
| 결단력[결단녁]  | 공권력[공권녁]  | 동원령[동:원녕] |
| 상견례[상견례]  | 횡단로[횡단노]  | 이원론[이:원논] |
| 입원료[이뵤뇨]  | 구근류[구근뉴]  |           |

이 조항은 유음화 현상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ㄹ’과 ‘ㄴ’이 인접하면 ‘ㄴ’이 ‘ㄹ’에 동화되어 ‘ㄹ’로 바뀌게 된다. 이 현상이 동화에 속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현상은 ‘ㄴ’이 ‘ㄹ’에 앞서는 경우와 ‘ㄴ’이 ‘ㄹ’ 뒤에 오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은 ‘ㄴ’이 ‘ㄹ’에 앞설 때 ‘ㄹ’로 동화되는 예이다. 그런데 ‘ㄹ’ 앞의 ‘ㄴ’이 항상 ‘ㄹ’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ㄹ’ 앞의 ‘ㄴ’이 ‘ㄹ’로 바뀌는 대신 ‘ㄴ’ 뒤에 있는 ‘ㄹ’이 ‘ㄴ’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것은 ‘다만’에 제시되어 있는 ‘의견란[의:견난], 생산량[생산냥]’과 같은 예에서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ㄴ’과 ‘ㄹ’이 만날 때에는 앞의 ‘ㄴ’이 ‘ㄹ’로 바뀌기도 하고 뒤의 ‘ㄹ’이 ‘ㄴ’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처럼 ‘ㄴ’이 ‘ㄹ’ 앞에 올 때 상이한 두 가지 음운 변동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즉 어떤 경우에 ‘ㄴ’이 ‘ㄹ’로 바뀌고 어떤 경우에 ‘ㄹ’이 ‘ㄴ’으로 바뀌는지가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대체로 ‘의견-란, 생산-량’

등과 같이 ‘ㄴ’으로 끝나는 2음절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에는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난로, 신라’ 등과 같이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한자들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는 ‘ㄴ’이 ‘ㄹ’로 바뀌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2)는 ‘ㄴ’이 ‘ㄹ’ 뒤에 올 때 ‘ㄹ’로 동화되는 예이다. 이러한 유음화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많이 보이지만 용언의 활용형에서도 보인다. (1)과 같은 유음화는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그런데 용언의 활용형에 적용되는 유음화는 [붙임]에서 보듯이 ‘ㄷ, ㄹ’과 같이 ‘ㄹ’로 시작하는 겹받침을 가진 어간 뒤에서만 적용될 뿐이다.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경우 ‘아는[아:는](←알-+-는), 무는[무:는](←물-+-는)’에서 보듯 ‘ㄹ’이 탈락하기 때문에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컨대 용언 활용형에서의 유음화는 ‘ㄹ’로 시작하는 겹받침 중 음절 종성에서 [ㄹ]로 발음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할는지’가 [할른지]로 발음 나는 것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는 어미 ‘-르는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다른 예와는 경우가 다르다.

## 제21항

위에서 지정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감기[감:기](×[강:기])	옷감[옷갸](×[옥갸])
있고[익꼬](×[익꼬])	꽃길[꼇길](×[꼭길])
젓먹이[전머기](×[점머기])	문법[문뻬](×[뉘뻬])
꽃밭[꼇뻬](×[꼭뻬])	

이 조항은 표준 발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발음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조항과는 차이가 난다.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자음 동화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경우이다. 가령 ‘감기[강:기], 옷감[옥갸]’ 등은 앞 음절의 받침이 뒤에 오는 연구개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예이고, ‘문법[뉘뻬], 꽃밭[꼭뻬]’ 등은

뒤에 오는 양순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예이다. 이러한 조음 위치의 동화는 모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종성의 자음은 원래의 조음 위치대로 발음해야만 한다.

##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오, 아니오]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이 조항은 전통적으로 ‘ㅣ’ 모음 순행 동화라고 불리던 현상을 규정하고 있다. 예전의 문법에서는 ‘ㅣ, ㅐ, ㅙ, ㅚ, ㅜ’와 같이 문자의 측면에서 ‘ㅣ’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어’를 [ㄷ]로 발음하는 현상을 ‘ㅣ’ 모음 순행 동화로 규정했다. ‘어’를 [ㄷ]로 발음하는 것은 반모음 ‘ㅣ [j]’가 첨가된 것인데 이것은 앞에 오는 모음들에 동화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ㅣ, ㅐ, ㅙ, ㅚ, ㅜ’는 모두 전설 모음이며 반모음 ‘ㅣ [j]’의 조음 위치가 전설 모음의 조음 위치와 비슷하므로 전설 모음 뒤에 반모음 ‘ㅣ [j]’를 첨가하여 ‘어’를 [ㄷ]로 발음하면 동화가 일어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된다.

이 조항에서는 ‘어’를 [ㄷ]로 발음하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제시된 예만 보면 ‘되-, 피-’ 뒤에 어미 ‘-어’가 오는 경우와, ‘이오, 아니오’에서만 반모음 ‘ㅣ [j]’가 첨가된다. 그러나 국어사전의 발음 정보를 살펴보면 ‘되-’와 같이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 전체, ‘피-’와 같이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 전체는 물론이고 ‘뛰-’와 같이 ‘기’로 끝나는 용언 어간 전체에서 반모음 ‘ㅣ [j]’가 첨가되는 현상을 표준 발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깨-, 패-’와 같이 ‘ㅙ’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나 ‘데-, 세-’와 같이 ‘ㅚ’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는 반모음 ‘ㅣ [j]’가 첨가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전통적으로 처리되어 오던 ‘ㅣ’ 모음 순행 동화와 비교할 때 ‘ㅣ, ㅚ, ㅜ’ 뒤에서의 반모음 ‘ㅣ [j]’ 첨가만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ㅍ), ㅂ(ㅍ, ㅂ, ㅃ,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꺄]	꺄다[꺄따]	넋받이[넋빠지]	삻돈[삻돈]
닭장[닥장]	칙범[칙범]	뽀대대[뽀대대]	웃고름[웃꼬름]
있던[읷면]	꺄고[꺄꼬]	꺄다밭[꺄따밭]	낫설대[낫셀대]
밭갈이[밭까리]	솔전[솔전]	곰돌[곰돌]	뺨개[뺨개]
옆집[옆집]	넋죽하다[넋쑤카다]	읷조리다[읷쑤리다]	꺄지다[꺄찌다]

이 조항은 ‘ㄱ, ㄷ, ㅂ’과 같이 종성으로 발음되는 파열음 뒤에서의 경음화를 규정하고 있다. ‘ㄱ, ㄷ, ㅂ’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물론이고 ‘ㄱ, ㅋ, ㆁ, ㄷ’, ‘ㄷ, ㅌ, ㅊ, ㅌ, ㅍ’, ‘ㅍ, ㅂ, ㅃ, ㅍ’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ㄱ, ㄷ, ㅂ’으로 끝나지 않아도 종성에서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경우 동일한 성격의 경음화가 적용된다. 이러한 경음화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적용되는 국어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신고[신:꺄]	꺄안다[꺄안따]	얏고[안꺄]	엷다[언따]
삼고[삼:꺄]	더듬지[더듬찌]	뺨고[담:꺄]	꺄지[점:찌]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안기다

감기다

굽기다

웁기다

이 조항은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경음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비음 중에서 ‘ㄴ, ㄹ’만 제시된 것은 ‘ㅇ’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음화는 용언 어간 뒤에 피동, 사동 접미사가 결합할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따라서 현실 발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신기다 [신끼다]’는 표준 발음이 아니며 [신기다]가 표준 발음이라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의 경음화는 ‘용언 어간 뒤’와 ‘어미’라는 문법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선 제23항의 경음화와는 차이가 있다.

#### 더 알아보기

##### • ‘ㄴ’ 뒤의 경음화

이 조항에서는 ‘ㄴ’ 뒤의 경음화와 ‘ㄷ’ 뒤의 경음화를 ‘ㄴ(ㄷ)’과 같이 하나로 묶어 놓았다. 이것은 흘받침인 ‘ㄴ’이든 겹받침인 ‘ㄷ’이든 모두 음절 종성에서는 [ㄴ]으로 발음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ㄴ’ 뒤에서의 경음화와 ‘ㄷ’ 뒤에서의 경음화는 차이가 있다. ‘ㄷ’ 뒤의 경음화는 실제로는 ‘ㄷ’에 의한 경음화이다. 겹받침의 일부인 ‘ㄷ’이 탈락하기 전 대표음 ‘ㄷ’으로 바뀐 후 그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ㄷ’ 뒤에서의 경음화는 제23항에서 규정하는 ‘ㄱ, ㄸ, ㅃ’ 뒤의 경음화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다만 ‘ㄷ’이 표면적으로는 음절 종성에서 [ㄴ]으로 발음된다는 측면을 중시하여 이 조항에서는 ‘ㄷ’ 뒤의 경음화와 ‘ㄴ’ 뒤의 경음화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 제25항

어간 받침 ‘ㄹ, ㅍ’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ㄸ, ㅃ,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넓게[널궤]

할대[할궤]

훈소[훈쏘]

뺨지[뺨궤]

이 조항은 겹받침 중 ‘래, 래’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경음화는 어간이 ‘래, 래’로 끝나는 용언의 활용형에서만 일어난다. ‘여덟’과 같이 ‘래’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덟도, 여덟과’의 경우 ‘[여덟또], [여덟파]’ 대신 ‘[여덟도], [여덟과]’로 발음하게 된다.

겹받침 ‘래, 래’은 음절 종성에서 [ㄹ]로 발음된다. 그래서 자칫 이 조항에서 보이는 경음화가 종성의 [ㄹ] 뒤에서 일어난다고 오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 살-’과 같이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해석은 합리적이지 않다. 학술적으로는 겹받침 ‘래, 래’의 경음화는 ‘ㅂ, ㅈ(ㅉ)’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제23항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다. 다만 제23항의 경우 받침이 종성에서 [ㄱ, ㄷ, ㅂ] 중 하나로 발음되는 데 비해 ‘래, 래’은 종성에서 [ㄹ]로 발음되기 때문에 별개의 조항으로 분리하였다. 이것은 앞선 제24항에서 ‘ㄴ’ 뒤의 경음화를 ‘ㄷ’ 뒤의 경음화로 보지 않고 ‘ㄴ’ 뒤의 경음화와 동일시한 태도와 궤를 같이한다.

한편 이 조항에는 나오지 않지만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활용형 중 ‘읽고[일꼬], 읽기[일끼]’와 같이 ‘ㄱ’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에 적용되는 경음화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읽고, 읽기’도 종성에서 겹받침이 [ㄹ]로 발음되므로 ‘읽고[일꼬], 읽기[일끼]’에서 보이는 경음화 역시 ‘래, 래’ 뒤의 경음화와 성격이 같다. 다만 ‘ㄹ’은 종성에서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등[갈똥]	발동[발똥]	절도[절똥]	말살[말쌈]
불소[불쏘](弗素)	일시[일씨]	갈증[갈짙]	물질[물짙]
발전[발쩐]	몰상식[몰쌍식]	불세출[불썰출]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	절절-하다[절절하다](切切-)
------------------	------------------

이 조항은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경음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ㄹ’로 끝나는 한자와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하면 ‘ㄷ, ㅅ, ㅈ’이 [ㅌ, ㅆ, ㅊ]과 같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ㄷ, ㅅ, ㅈ’은 자음의 조음 위치에서, 입안의 중앙에서 발음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ㄱ’이나 ‘ㅂ’과 같이 입안의 중앙이 아닌 양 끝에서 나는 자음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갈증, 발동’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만 ‘갈구, 출발’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또한 ‘다만’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동일한 한자가 연속되어 만들어진 접어에서는 ‘ㄹ’ 뒤에 ‘ㄷ, ㅅ, ㅈ’이 오더라도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갈 곳[갈꼐]
할 도리[할뜨리]	만날 사람[만날싸림]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할걸[할꺄]	할밖에[할빠꺄]	할세라[할쌔라]
할수록[할쑤록]	할지라도[할찌라도]	할지언정[할찌언정]
할진대[할찐대]		

이 조항은 관형사형 어미 중 ‘-(으)ㄹ’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더라도 ‘-(으)ㄹ’이 아닌 ‘-(으)ㄴ’이나 ‘-는’ 뒤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을’과 같은 목적격 조사 뒤에서도 경음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조항의 경음화에는 특수한 제약이 있다.

관형사형 어미 ‘-(으)르’ 뒤에서 경음화의 적용을 받는 것은 크게 명사와 보조 용언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조항에 제시된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등은 명사에 경음화가 적용된 경우이다. 비록 예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할 듯하다[할뜨타다], 할 성싶다[할쌩싹따]’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으)르’ 뒤에 ‘듯하다, 성싶다’와 같은 보조 용언이 와도 경음화는 일어난다. 이 외에 [붙임]에는 ‘-(으)르걸, -(으)르밖에’ 등과 같이 하나의 어미 안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의 예도 포함되어 있다. 보조 용언이나 한 어미 안에서 경음화가 적용되는 예들도 역사적으로는 관형사형 어미 ‘-(으)르’ 뒤에 명사가 결합된 구조이므로 ‘-(으)르’ 뒤의 명사에 경음화가 적용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경음화의 적용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르’로 끝나는 용언 활용형과 그 뒤에 오는 말의 긴밀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두 말이 매우 긴밀하게 이어져 있을 때 경음화가 잘 일어나는 것이다. ‘-(으)르’ 뒤에 자립성이 없는 의존 명사가 올 때 경음화가 잘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된다. 이 조항의 ‘다만’에서 끊어서 말할 때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끊어서 말한다는 것은 긴밀도가 떨어짐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쌔]	손-재주[손째주]	길-가[길깨]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쑥]
술-잔[술잔]	바람-결[바람꼈]	그믐-달[그믐땨]
아침-밥[아침뵵]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깨]
초승-달[초승땨]	등-불[등뵵]	창-살[창쌔]
강-줄기[강쭈기]		



이 조항은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경음화 중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이룰 때에는 경음화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에서 다루는 경음화는 모두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합성 명사에서 보이는 경음화는 항상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에서는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을 때 경음화가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관형격 기능’은 합성 명사를 이루는 명사들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즉 두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이룰 때, 앞의 명사가 뒤의 명사의 시간, 장소, 용도, 기원(또는 소유)과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 ‘관형격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경음화가 잘 일어난다. 가령 ‘그믐달[그믐딸]’은 시간, ‘길개[길깨]’는 장소, ‘술잔[술짚]’은 용도, ‘강줄기[강쫄기]’는 기원의 의미 관계가 있어서 경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물론 합성 명사에서 나타나는 경음화가 의미 관계에 따라 항상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시간의 의미를 갖는 ‘가을고치’, 장소의 의미를 갖는 ‘민물송어’, 용도의 의미를 갖는 ‘운동자금’, 기원의 의미를 갖는 ‘콩기름’ 등은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의미 관계가 경음화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언급한 의미 관계를 가지지 않는 다른 합성 명사의 경우 대체로 경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가령 ‘병렬’의 의미를 갖는 ‘물불, 손발’이나 ‘재료’의 의미를 갖는 ‘돌부처, 콩밥’ 그리고 ‘수단’의 의미를 갖는 ‘물장난, 불고기’ 등은 경음화가 안 일어난다. 이처럼 합성 명사에서 일어나는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경음화는 의미 관계에 따른 강한 경향성을 가진다. 다만 예외가 있으므로 경음화의 적용 여부는 국어사전의 발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숨:니불]	흠-이불[흠니불]	막-일[망닐]
삿-일[상닐]	맨-입[맨닙]	꽃-잎[곤닙]
내복-약[내:봉낙]	한-여름[한녀름]	남존-여비[남존녀비]
신-여성[신녀성]	색-연필[생년필]	직행-열차[지갱널차]
늑막-염[능망념]	콩-엿[콩녘]	담-요[담:뇨]
눈-요기[눈뇨기]	영업-용[영엄농]	식용-유[시공뉴]
백분-율[백분닐]	밤-옷[밤:눈]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먄금]
검열[검:녘/거:멸]	올랑-올랑[올랑놀랑/올랑올랑]
금융[금농/그똥]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들-일[들:릴]	술-잎[술립]	설-익대[설릭대]
물-약[물략]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력]
물-엿[물련]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한 일[한닐]	옷 입대[온닙때]	서른여섯[서른녀섯]
3 연대[삼년대]	먹은 옛[머근녜]	할 일[할릴]
잘 입대[잘립때]	스물여섯[스물려섯]	1 연대[일련대]
먹을 옛[머글렛]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6·25[유기오]	3·1절[사밀쩨]	송별-연[송:버련]
등-용문[등용문]		

이 조항은 ‘ㄴ’이 첨가되는 현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ㄴ’이 첨가되는 조건은 두 가지이다. 우선 문법적 측면에서 보면 뒷말이 어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업용’과 같이 접미사 ‘-용’이 결합된 경우에도 ‘ㄴ’이 첨가되지만 이때의 ‘-용’은 어휘적인 의미를 강하게 지닌다. 다음으로 소리의 측면에서 보면 앞말은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은 단모음 ‘이’ 또는 이중 모음 ‘야, 여, 요, 유’로 시작해야 한다. 이때 첨가되는 ‘ㄴ’은 뒷말의 첫소리에 놓인다.

그런데 실제로 ‘ㄴ’이 첨가되는 조건은 이보다 좀 더 다양하다. 문법적 측면에서는 [붙임 2]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복합어뿐만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ㄴ’이 첨가된다. 또한 소리의 측면에서는 이중 모음의 종류가 ‘야, 여, 요, 유’로 국한되지 않고 ‘애, 예’와 같이 반모음 ‘ㅣ [j]’로 시작하는 모든 이중 모음 앞에서 ‘ㄴ’이 첨가된다. 그래서 ‘슬픈 얘기[슬픈내기], 먼 옛날[먼:넌날]’ 등에서도 ‘ㄴ’이 첨가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소리의 측면에서는 ‘ㄴ’의 첨가가 단모음 ‘이’와 반모음 ‘ㅣ [j]’ 앞에서 일어난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국어에서는 구개음화, ‘ㅣ’ 역행 동화 등 여러 현상에서 단모음 ‘ㅣ’와 반모음 ‘ㅣ [j]’가 발음 조건으로 함께 제시되므로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편 [붙임 1]에서 언급했듯이 앞말의 마지막 자음이 ‘ㄹ’일 경우에는 첨가된 ‘ㄴ’이 실제로는 [ㄹ]로 발음된다. 이것은 ‘ㄴ’이 첨가된 후 앞선 ‘ㄹ’에 동화가 일어난 결과이

다. 이러한 자음 동화는 제20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ㄴ’의 첨가는 항상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만’을 통해 ‘이죽이죽’과 같이 ‘ㄴ’이 첨가되는 것과 첨가되지 않는 것을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송별연, 등용문’과 같이 ‘ㄴ’이 첨가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에 제시되지 않은 단어 중에도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적지 않다. 문법적 성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접두사가 결합한 경우: 몰인정, 불일치 등
- 합성어의 경우: 독약, 그림일기 등
- 구 구성의 경우: 작품 이름, 아침 인사 등
- 한자 계열의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 한국인, 경축일 등

###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넋개[내:까/넋:개]	셋길[새:길/셋:길]
빨랫돌[발래돌/빨래돌]	כות[코똥/콤똥]
깃발[기빨/깃빨]	대팻밥[대:패밥/대:팻밥]
햇살[해살/햇살]	뱃속[배속/뱃속]
뱃전[배전/뱃전]	고갯짓[고개짚/고갯짚]

2.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כות[콩날 → 콘날]	아랫니[아래니 → 아랜니]
툃마루[툃:마루 → 툃:마루]	뱃머리[뱃머리 → 뱃머리]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니]로 발음한다.

베갯잇[베갯닐 → 베갯닐]

갯잇[갯닐 → 갯닐]

나뭇잎[나뭇닐 → 나뭇닐]

도리갯열[도리갯닐 → 도리갯닐]

뒷웃[뒤:눈 → 뒤:눈]

이 조항은 사이시옷이 표기된 단어의 발음에 대한 규정이다. 첨가된 자음의 종류에 따라 3개의 하위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 조항은 ‘ㄷ’이 첨가된 경우, ‘ㄴ’이 첨가된 경우, ‘ㄴ니’이 첨가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 ‘ㄷ’이 첨가되는 경우로 사이시옷이 [ㄷ]으로 발음된 것이다.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은 뒷말의 첫소리가 경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사이시옷은 [ㄷ]으로 발음하는 경우와 사이시옷을 발음하지 않는 경우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되, 발음하지 않는 쪽을 원칙으로 삼고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즉 ‘깃발’의 경우 [기빨]이 원칙이고 [긴빨]도 허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이시옷을 발음하지 않는 쪽을 원칙으로 삼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글 맞춤법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제30항)에 따르면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합성어를 이루는 뒷말의 첫소리가 경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이지 음이 첨가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한글 맞춤법 조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이시옷을 발음하지 않는 형태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현실 발음에서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지 않는 형태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발음하지 않는 형태를 원칙으로 삼았다.

2. ‘ㄴ’이 첨가되는 경우로 사이시옷이 음절 종성에서 [ㄷ]으로 바뀐 후 뒤에 오는 비음에 동화된 결과이다. 표면적으로는 ‘ㄴ’이 첨가되었지만 실제로는 사이시옷이 [ㄷ]으로 발음되는 것과 관련되므로 앞선 1과 통하는 바가 있다. 단, 1에서는 사이시옷을 발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했음에 비해 이 조항의 경

우 사이시옷을 반드시 [ㄷ]으로 발음해야만 ‘ㄴ’으로 동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ㄴㄴ’이 첨가되는 경우로 앞선 1이나 2와 달리 뒷말이 ‘이’ 또는 반모음 ‘ㅣ [j]’로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첨가된 ‘ㄴㄴ’은 여러 단계를 거쳐 나오게 된다. ‘베갯잇[베갯닐→베갯닐]’에서 보듯이 사이시옷이 먼저 첨가된 후 ‘ㄴ’이 첨가되고(표준 발음법 제29항 참조) 다시 자음 동화를 거친 결과 ‘ㄴㄴ’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ㄴㄴ’이 첨가되는 사례에는 제시된 것 이외에 ‘훗일[훈:닐], 뒷일[뒀:닐]’과 같은 예가 있다.

### 더 알아보기

#### • ‘ㄴ’ 첨가 현상 보충 설명

‘베갯잇’과 같이 표면상 두 개의 ‘ㄴ’이 첨가되는 것에 대해 사이시옷이 먼저 첨가된 후 ‘ㄴ’이 첨가된다고 설명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사이시옷이 첨가되기 위해서는 뒤에 오는 말이 경음으로 바뀔 수 있는 평음으로 시작하거나, 비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ㄴㄴ’이 첨가되는 예들은 뒷말이 ‘이’나 반모음 ‘ㅣ [j]’로 시작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 사이시옷이 첨가될 수 없으며 사이시옷이 첨가되지 못하면 ‘ㄴ’도 첨가될 수 없다.

‘ㄴㄴ’이 첨가되는 예들 중 ‘갯잇, 나뭇잎’은 ‘잎’이 예전에 ‘뉘’이었으므로 실제로는 2의 ‘ㄴ’ 첨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즉 역사적으로 ‘갯뉘, 나뭇뉘’에서 ‘[갯닐], [나뭇닐]’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잎’이 결합되지 않은 ‘베갯잇, 도리갯열, 뒀’ 등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ㄴㄴ’이 첨가되었는지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해설

---

발행일	2018년 12월 21일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기획·편집	정호성, 이운영
발행처	국립국어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 화	(02)2669-9775
인 쇄	(주)더크리홍보

---

